

M46-9-3/2007.10

제9권 제3호/Vol. 9 No. 3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일반인이 북한농업을 이해하고 정부가 대북 농업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농업팀이 북한의 최근 농업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이 자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이 책은 1년에 4회(1, 4, 7, 10월) 발간되며,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북한농업정보”

- 연락처: 전화 02-3299-4324 전송 02-959-6110

- 내용 문의:

권태진 kwontj@krei.re.kr 02-3299-4255

김영훈 kyhoon@krei.re.kr 02-3299-4367

이정연 sabrina@krei.re.kr 02-3299-4370

목 차

□ 포커스

최근 여건 변화와 대북 농업협력 방향 / 3

□ 동향분석

- | | |
|--------------|---------------------|
| 1. 농업정책 / 18 | 6. 농업기반 및 수해복구 / 50 |
| 2. 벼농사 / 25 | 7. 산 림 / 65 |
| 3. 밭농사 / 31 | 8. 기타 작물 / 69 |
| 4. 감자농사 / 39 | 9. 기타 보도 동향 / 73 |
| 5. 축 산 / 43 | |

□ 농업교류협력 동향

-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 81
 -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 81
 - 2. 교류협력사업 동향 / 92
 - 3.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 93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 134
 -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 134
 - 2.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단체 동향 / 142

□ 농업자료

- 북한의 기상 / 159

포커스

- 최근 여건 변화와 대북 농업협력 방향

최근 여건 변화와 대북 농업협력 방향

김 영 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 북한 농업 실태

북한이 겪고 있는 식량부족 현상은 10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다. 비록 2000년대 들어 식량생산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식량부족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남한을 제외하고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도 차츰 줄어들고 있어 식량부족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식량을 더 생산하기 위해 농업부문의 가용 자원을 식량생산부문에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 생산은 잠재 생산능력보다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생산재원이 식량생산부문에 집중되고 있어 다른 작물이나 축산은 더 위축되고 있다.

북한의 농업생산 침체 요인은 여러 가지이다. 그중 가장 큰 요인은 농자재 공급 부족에 있다. 오랜 동안의 경제침체로 인해 비료, 농약, 농업용 유류, 비닐, 농기계 부품, 타이어 등 농업생산요소 및 기자재의 생산과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졌다. 기계동력도 부족하다. 90년대 들어 농기계와 부품 생산공장의 가동이 급격히 낮아져 신규 농기계 공급은 대부분 중단되었다. 농장에서는 에너지 공급 부족으로 작동 가능한 트랙터나 기계장비의 가동도 줄여야만 했다. 유엔개발계획(UNDP)의 조사(1998년)에 의하면 농업현장에서 운행 가능한 농기계동력은 보유량의 2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기계동력 부족은 적기 농작업에 지장을 초래한다. 특히 이모작 확대 이후 수확-수송-저장-파종-이앙 등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농번기에 농업동력 부족은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농업생산기반도 취약하다.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식량작물인 벼와 옥수수의 수리관개 상황을 보더라도 완전관개 면적은 45%에 불과하며 관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면적이 31%에 달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산림 황폐화도 심각하다. 경사도 8도 이상의 전체 산지 중 18%인 160여만 ha가 비탈밭 등으로 개간되거나 황폐화된 상태이다. 특히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의 산림황폐화 정도는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비교적 작은 기후 변동에도 재해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표 1. 북한의 식량수급 현황

단위: 천 톤

연 도	인 구 (천명)	공급량				소요량		부족량	
		국내 생산량	해외 도입량	남한 지원량	계(A)	최소소요량 (C)	권장소요량 (D)	C-A	D-A
1995/96	21,684	3,451	962	150	4,563	5,145	6,258	582	1,695
2000/01	22,253	3,590	1,225	500	5,315	5,280	6,422	-35	1,107
2004/05	22,936	4,311	697	300	5,308	5,442	6,619	134	1,311
2005/06	23,165	4,540	450	500	5,490	5,496	6,685	6	1,195

표 2. 남북한 농가인구 비교

단위: 천 명

연 도	남 한		북 한		B/A (배)
	농가인구(A)	비중(%)	농가인구(B)	비중(%)	
1965	15,812	55.1	4,999	40.8	0.31
1995	4,851	10.8	7,863	36.5	1.62
2005	3,434	7.1	8,460	36.8	2.46

표 3. 북한의 화학비료 수급

단위: 성분 천 톤

구 분	1997	1998	2003	2004
소요량	(580)	(580)	580	580
공급량	193	124(100)	244(100)	230(100)
그 중 국제사회 지원량	n.a	77(62.1)	175(71.7)	166(72.2)
북한국내 생산량	n.a	47(37.9)	32(13.1)	56(24.3)
상업적 수입량	n.a	n.a	37(15.2)	8(3.5)
부족량	(387)	(456)	336	350

표 4. 북한의 산림 황폐화 현황

단위 : 천 ha, (%)

전체 산지 (8도 이상)	임목지	황폐산지			
		계	개간산지	무림목지	나지
9,165 (100.0)	7,534 (82.2)	1,632 (17.8)	972	533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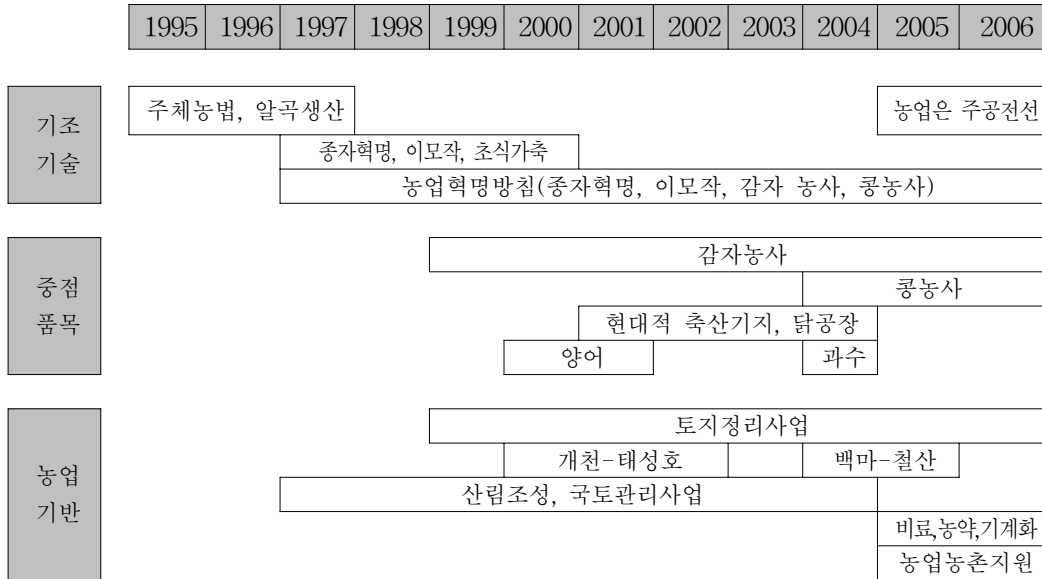
2. 북한의 농정시책과 한계

가. 식량난 이후 북한의 농정시책

북한 농업의 회복과 발전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하다. 우선 농업생산이 증대되면 무엇보다 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인도적 문제를 크게 완화시킬 수 있다. 또 농업발전을 통해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동력 수요에 대처할 수 있고, 식량의 수입대체를 통해서도 경제개발에 필요한 외자를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훼손된 산림이나 수리기반시설 복구는 국토가 지닌 생산기반으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다. 북한의 농업 회복과 발전은 남북한 농업의 상호 발전을 꾀할 수 있는 토대도 된다. 남한의 자본·기술·시장과 북한의 기반·노동력을 결합한 경협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남북한 농업의 공동 발전을 꾀할 수 있다.

북한의 농업이 회생 및 발전 국면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농정시책이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식량난 이후 북한은 우선 농업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 다각도의 농정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한 바 있다. 이 노력은 주로 이모작과 감자재배 확대를 중심으로 한 작물 다양화, 우량종자 확보를 위한 종자혁명, 곡물 부족에 따른 초식가축 사육 장려, 토지 정리와 수로 개설 등 농업기반정비사업에 집중되었다.

그림 1. 식량난 이후 북한의 주요 농정시책



1998년부터 본격 추진된 작물 다양화 사업은, 옥수수 재배를 크게 감축하고 감자 재배 면적을 4만 5천 ha에서 20만 ha 수준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단위면적당 식량생산을 늘리기 위해 이모작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종자혁명도 강조해 왔다. 옥수수는 다수확 품종을 개발하고 맥류는 조생 품종을 확보하는 데 힘을 쏟았다. 특히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감자를 대상으로 우량종서 공급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곡물이 부족해짐에 따라 북한은 엽소, 토끼, 오리 등 초식가축 사육을 장려하고 있다.

1999년부터 북한은 주요 농업지대에 대한 토지정리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이 당초 목표대로 완료되면 총 60만 ha의 농경지를 정리하게 된다. 한편 북한은 관개체계를 양수식에서 자연흐름식으로 전환하는 관개수로 건설 공사도 추진해 왔다. 2002년에는 「개천-태성호 물길(평안남도)」 공사를 완료했으며 2005년에는 「백마-철산 물길(평안북도)」 공사를 마쳤다. 지금은 「미루벌 물길(황해도)」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북한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새롭게 강조하며 추진하기 시작한 이상의 농정시책들은 과거와는 달리 실천적 농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북한 당국은 이들 농정시책들을 추진하는 데 북한 내 가용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해 왔으나 그것만으로 충분할 수는 없었다. 이에 북한은 농업생산부문에서 동기유발을 위한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외부의 지원을 유치하는 등 개혁·개방 실험에 착수하기도 했다.

나. 경제 및 농업부문 개혁 실험

90년대 중반 식량부족 현상이 심각해지자 북한은 협동농장에서 「새로운 분조관리제(1996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농장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했다. 새로운 분조관리제가 지니고 있는 가장 큰 개혁적 요소는 개별 작업분조가 달성한 초과생산분을 수매가가 아닌 현물로 지급한다는 점에 있다.

표 5. 북한 협동농장 분조관리제의 비교(1966/1996)

	분조관리제(1966~95)	새로운 분조관리제(1996)
구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25명 • 농장원들의 능력, 요구, 연령을 고려하여 인원을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0명 • 주로 가족, 친척으로 구성
생 산 계 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연도 국가전체의 생산목표에 따라 분조에 제시된 계획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의 평균 수확고와 그 이전 10년간 평균 수확고의 평균치로 설정
농 산 물 처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과생산분 국가에서 수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과생산분 분조 자유처분

90년대 중후반 곡물의 국정가격과 농민시장가격의 차이가 크게는 350배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분조관리제」는 획기적인 동기유발제도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한 이후,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는 보고는 없으며 농업생산도 2000년까지 정체 상태에 머물렀다. 이는 중국의 생산책임제가 안휘성 변경의 1개 현에 재도입된 지 불과 5년 만에 전국의 농업생산이 비약적으로 증대되고 집단적 농업경영 해체로까지 발전한 사례와 잘 비교된다.

2002년 7월에는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단행했다. 이 조치의 주요 내용은 가격과 임금의 인상, 환율 현실화, 원부자재시장의 개설, 경제계획 및 관리의 분권화 등이다. 「7·1조치」 중 농업부문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식량의 국정수매가격 대폭 인상, 농장의 농산물 자체처분권 확대, 그리고 생산요소 시장 개설 등이다. 당시 이들 조치는 농업생산 동기를 유발하고 확대재산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실제로 7·1조치 이후 북한의 식량 생산이 증대되었다. 그러나 이 현상이 개혁적 제도개선조치의 성과라 판단하기는 어렵다. 생산물 가격 인상을 농자재 가격 인상을 뚜렷하게 상회하지 않았다는 점, 기술혁신 등 다른 요인의 변화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 농산물 처분권의 농장 이양 폭이 크게 확대되지 않았다는 점, 주요 농자재가 거래되는 생산요소시장이 개설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농업생산 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 기제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은 2005년 말 일시적으로 식량사정이 호전되자 시장에서 곡물 판매를 금지하고 배급제를 강화한다고 밝혀 7·1조치의 개혁성에 반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다. 남한의 대북 농업협력과 지원

북한은 농업부문의 부족한 자본을 국제사회로부터 유치하기 위해 1998년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AREP: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계획」을 입안하고, 유엔개발계획(UNDP)의 도움을 받아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 계획 수행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지원은 대부분 유엔의 합동호소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당초 필요로 했던 지원규모에는 미치지 못했으며, 단기 투입재 지원에 집중되어 본래 의도한 농업복구개발 지원과도 다소 동떨어진 결과를 낳았다. 또한 AREP 실행계획 추진과 지원을 주관해야 할 북한 농업위원회(현 농업성), 국제기구, 국제민간지원단체 간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사업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결국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염두에 두고 농업복구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공개했으나 충분한 지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지는 못했다.

북한은 남한의 지원도 받았다. 남한의 대북 농업지원은 1995년 정부의 쌀 15만 톤 지원과 민간단체들이 농업지원에 나서면서 시작되었다. 남북한 농업협력과 관련된 사업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 농업개발 차원의 지원, 경험 차원의 교류협력 사업으로 구분된다.

농업과 관련하여 인도적 지원으로 대표적인 것은 정부의 식량·비료 지원이다. 1995년부터 시작된 우리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은 2007년까지 유무상을 합쳐 약 285만 톤이며, 비료 지원 규모는 1999년에서 2007년까지 약 255만 톤에 달한다. 식량과 비료지원은 북한의 단기적인 식량부족 상황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해 왔으나 이것이 북한 농업의 확대재생산을 촉발하는 자본으로 전환되기는 어려웠다.

남한 민간단체의 농업지원사업은 당초 인도지원을 목표로 출발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개발지원사업으로서의 목표가 추가되어 다변화되었다. 즉, 북한의 농장을 대상으로 농자재와 농업기술을 지원하면서 농업개발 시범사업으로서의 성격을 실험해 왔다. 그러나 재정적으로 취약한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만큼 지원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고, 상업적 교역을 수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자본 축적에 기여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표 6. 우리나라 주요 민간지원단체의 대북 농업지원사업

단체명	시작연도	주요 사업	비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1997	축산 지원(젓염소 목장) 농기계 지원 및 수리센터 건설·지원	농자재 지원
월드비전	1998	채소온실농장 지원 종서 생산 시설 및 기술 지원	농업개발지원
굿네이버스	1998	축산 지원(젓소 목장) 양계장 설비 지원	인도지원 농업개발지원
북고성군농업협력단	2002	고성온실농장 지원	농업개발지원
통일농수산사업단	2004	고성군 삼일포협동농장 지원	농업개발지원
한국JTS	1998	농업기자재 지원	농자재 지원
농협중앙회	1997	농업기자재·설비, 콩종자 지원	농자재 지원
한민족복지재단	2002	농업기자재 지원	농자재 지원
남북농업발전협력 민간연대	1999	씨감자 및 씨감자생산설비 지원	농자재 지원
평화의 숲	1999	산림보호, 양묘장 복구 지원	산림개발지원

한편 남북한 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농업개발을 지원하고 협력하기 위한 시도가 2005년 「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 바 있다. 이 회의에서 남북한 당국은 몇 가지 의미 있는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으나 그 이후 2007년 하반기까지 뚜

렸한 진전이 없다.

그간 남한과 국제사회의 식량·비료 지원과 농업지원사업은 북한 농업이 당면한 긴급 문제를 완화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그러나 농업생산을 향상시키는 데 항구적 토대가 되어야 할 농업기반시설의 복구와 정비는 아직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자본의 공급과 축적, 확대 재생산, 경제부문 개혁·개방의 진척도도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요컨대 국제사회와 남한의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 농업개발의 중대한 진전에 필요한 제도 개혁과 자본 확충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라. 북한 농업발전의 장애요소

농업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자본 조달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북한경제는 1990년대 들어 지금까지 개혁 부진과 자본 부족에 직면해 있다. 농업 생산부문의 부분적 개혁 시도는 자본 부족으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으며, 농업복구개발을 위한 해외자본 확보 노력은 제도개혁 수준 미흡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금까지의 경험은 그것을 잘 증명하고 있다. 10여 년에 걸친 다양한 농정시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북한 농업의 구조와 기반을 대변하는 대부분의 지표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북한 농업 내외부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북한 내부의 제도 개선과 외부 자본의 대규모 투입이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동시 이행은 불가능해 보인다. 가장 큰 이유는 북한과 국제사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90년대 말 농업복구개발계획(AREP계획) 수립 당시 북한의 개방적인 자세는 국제사회에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정작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북한의 개혁·개방 수준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외부의 지원과 참여 정도에 따라 자신의 태도와 진로를 결정하려 했을 수 있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려 한 것이다.

북한 경제 및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의 준비 상태도 농업복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북한은 오랫동안 폐쇄 상태를 유지해 왔다. 따라서 농업복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제사회와의 의사소통 및 거래를 담당할 전문 인력이 질적·양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개혁·개방에 대한 북한당국의 소극적 자세 못지않게 국제사회의 적극적 지원을 유인하는 데 중대한 장애로 작용해 왔다. 북한 내부의 개혁 진전에 관계없이 우리가 대북 지원을 고려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대규모 자본 지원은 실현되기 어려웠다.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국민적 합의 도출은 북한의 개혁 추진 여부뿐만 아니라 북핵문제 해소와 6자회담 진전, 남북관계의 개선 상황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3. 환경의 변화와 남북농업협력 기본 방향

가. 환경의 변화

2007년 들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2.13합의」 이후 방코텔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 문제로 주춤하기는 했으나 6자회담 체제는 뚜렷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6자회담의 진전과 함께 또 하나의 큰 변화로 들 수 있는 것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다.

지난 2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6자회담에서는 「9.19 공동성명(2005)」 이행을 위한 단계적 조치에 합의했다. 여기에는 핵 시설의 폐쇄와 불능화, 중유 100만 톤 상당의 경제지원과 북·미, 북·일 양자 대화 개시, 각각의 합의 사항에 대응한 5개 실무그룹 구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그룹 중 농업협력과 관련해서는 ‘경제 및 에너지 협력 실무그룹’의 기능과 역할이 주목된다. 경제협력 실무그룹의 명시적 임무는 1단계 조치(핵시설의 폐쇄) 후 중유 100만 톤 상당의 경제지원과 인도지원에 관해 협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2단계 핵 불능화 조치가 이행되면 대북 경제협력 논의는 초기단계 지원을 넘어 본격적이며 포괄적인 경제협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국이 이 실무그룹 의장국을 수임함으로써 대북 경제협력에 관한 우리의 전략과 구상을 6자회담에서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제2단계 조치) 이행 후 대북 경제협력에 관한 논의는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는 6자회담 틀 내에서 경제협력 실무그룹 차원의 논의를 들 수 있고, 또 하나는 대북 경제협력에 관한 남북한 양자 간 논의이다.

남북 양자 간 경제협력 논의는 2007년 10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활성화되고 있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는 방북 마지막 날 양측이 함께 발표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선언문은 총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초반 4개 항목은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후반 3개 항목은 사회문화교류와 인도주의적 협력에 각각 할애하고 있다.

남북 간 경제협력에 관해서는 비교적 상세한 부분까지 정리하고 있다. 여기에는 민족 간 경험의 우대와 특혜 부여, 해주 주변에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 개성공단의 통행·통신·통관 등 3통문제 해결, 철도와 도로의 개보수, 조선단지 건설, 농업·보건·환경 분야의 협력,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설치 등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 몇 가지 중요 현안이 빠졌다는 문제제기는 있으나 남북 간에 놓여있는 대부분의 과제를 큰 틀에서 다루고 있다. 이제는 양측의 정부담당자와 협력당사자들이 여러 후속 조치들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기는 과제가 남았다.

향후 추진해야 할 경험사업 가운데 농업부문의 교류협력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정상선언에서 특정 농업협력사업 추진에 대해 적시하지 않았지만 여러 분야에서 농업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금까지의 남북 간 농업협력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에 대한 포괄적 합의로 이해할 수 있다.

나. 농업협력 기본 방향

남북 간 농업교류협력의 기초와 발전 방향은 여러 차례 제시된 바 있다. 그것은 세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여러 민간지원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지원사업이고, 둘째는 정부 간에 추진할 수 있는 기반조성협력사업 및 교류사업이며, 셋째는 민간기업 간 상업적 교역과 투자협력사업이다. 각 협력사업의 특성을 살리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궁극적으로 북한농업을 발전시키고 남북 양측의 공동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새롭게 부과된 과제이다.

민간지원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대북 농업지원사업은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는 분야이다. 비록 협력 규모는 크지 않지만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고 농촌 현장에 들어가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참여하고 있어 『민간단체-자치단체-정부』 간 역할을 구분하고 협조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정부가 함께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농업협력 분야는 농업농촌기반정비, 산림복구, 농업기술교류협력 등이다. 이 사업들이 추진된다면 북한의 농업생산성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다. 또 농촌주민의 생활을 개선시키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이들 협력사업의 규모는 정부가 주도해야 할 만큼 크기 때문에 즉시 실행에 옮겨질 수는 없다. 아직 북한 내에서 대규모 자본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시범협력사업을 통해 경험을 쌓은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역과 상업적 투자협력사업은 민간기업에 해당되는 일이며 일방적 지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협력 과정에서 양측은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고 협력사업의 지속 가능성도 가장 높다. 다만, 북한산 농산물의 상품가치가 낮고 남한산 농산물의 시장이 북한지역에 없어 남북 간 농산물 반출입은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문에서도 민간 주도의 시범사업이 필요하며 정부는 교역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남북 간 농업협력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주된 목표를 설정한 후 거기에 맞는 농업협력사업의 형태를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이다. 북한 농업의 현 상황을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는 농업협력사업의 목표는 인도적 지원, 식량 증산, 농업기술 전파, 교육·훈련 기회의 제공, 북측 협력 상대방의 자립, 농촌지역 생산·생활기반 복구 등이며, 이들 다양한 목표 중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주요 목표

를 분명하게 설정해야 한다.

둘째,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선 협력사업의 규모는 중소기업에서 시작하여 성과를 확인해가며 점차 규모를 늘려나가야 한다. 지원사업이든 경협사업이든 투하되는 자본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농업협력의 목표와 형태는 지원·교류를 중심으로 하는 협력사업을 통해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점차 상업적 협력으로 구성되는 경협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협력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업협력사업을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농업생산이 증대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농업발전의 토대가 구축되지 못한다면 개발협력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양측 협력 당사자와 관련자의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협력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시범 협력사업을 활용하여 양측 참여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북측 참여자에게는 농업기술의 향상, 시장경제에 관한 이해도 제고, 국제사회와 소통할 전문인력 양성 등의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남측 참여자에게는 북한 체제에 대한 전반적 지식과 이해를 향상시켜 남북 경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대규모 경협 추진시 시행착오로 인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4. 과제

현 상황에서 대북 농업교류협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있다. 당국 간 농업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대화채널 복원, 협력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선도적 협력사업 발굴과 추진, 현 상황에서 북한의 수용 가능성이 높고 협력 효과도 큰 농업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등이 그것이다.

우선 남북 당국자 간 농업협력 협의채널이 복원되어야 한다. 남북한 당국은 2005년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5개 분야의 협력사업을 선정·추진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남북농업협력위원회는 재개되지 않고 있으며 합의된 사항도 이행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양측의 기대 수준의 차이에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당국 간 농업협력의 성격, 범위, 규모 등에 대해 남북 양측이 달리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관한 이견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당국 간 직접 협력사업에 대해 북한 당국이 부담을 안고 있다면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을 필요도 있다. 또 남북 간 농업협력의 비전과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북한에 제시하고 적극적인 반응을 유도해야 한다.

각종 지원 프로젝트와 경협 프로젝트로 구성된 종합적 농업협력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북한은 농업회생과 발전을 위해 내부적으로 과감한 개혁을 추진

하는 한편, 국제사회로부터 대규모 자본을 조달해야 한다. 그러나 제도개선과 자본조달의 동시 이행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남북한 양측이 감내할 수 있는 규모의 시범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농업협력 형태는 남북한이 함께 북한의 농촌지역에 영농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 농업협력사업이 섬세하게 기획되고 실행에 옮겨진다면 남북한 모두에게 유용한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

농업과학기술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사업은 북한 농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며 남북한 양측의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북한은 1990년대 이래 우량종자 개발과 보급, 감자농사 확대, 다모작 도입 등 농업기술 향상과 관련된 농정시책을 추진하고 있어 농업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수요도 매우 높은 상태이다. 2005년 남북농업협력위원회에서도 농업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합의가 실행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능성과 필요성이 높은 분야로 협력 대상을 좁히고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협력분야로는 농업과학기술협력센터의 설치, 동식물 유전자원 분야 교류와 저장고 설치, 농업대학이나 농업전문학교 간 학술교류와 교육·훈련 지원사업 등이 있다.

남북 농업교류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 대북 농업교류협력 추진에 대한 우리 내부의 이견을 통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실행하고 있거나 앞으로 추진할 교류협력사업에서 성과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 그것을 통해서 본격적인 남북농업협력 추진에 필요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동향 분석

1. 농업정책
2. 벼농사
3. 밭농사
4. 감자농사
5. 축산
6. 농업기반 및 수해복구
7. 산림
8. 기타 작물
9. 기타 보도 동향

동향분석 요약

여름철을 맞아 각 지역에서는 화학비료 부족을 타개하기 위하여 풀베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연일 풀 생산 실적을 보도함. 농작물 비배관리를 철저히 하여 장마에 대비하기 위한 각 협동농장의 활동이 소개되었으며 매년 되풀이 되는 수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준비 사항이 상세하게 보고됨.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8월 7일부터 14일 동안 평양, 평안남도, 황해남북도, 강원도, 함경남도에는 무더기 비가 내려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으며 살림집과 공공건물,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시설의 피해도 막대함. 농업부문에는 농경지의 침수, 유실, 매몰, 농업시설과 장비의 파괴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였음. 9월 추석 직전에는 태풍 위파의 영향으로 평안남도와 황해남북도 지역에서는 폭우와 강풍으로 농업부문 피해가 재차 발생함. 이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농작물 감수도 불가피함. 8월 중순 이후 피해 농경지와 농업용 시설, 제방 등의 복구에 전 주민이 투입되어 아직도 복구공사가 진행되고 있음. 집계된 자료에 의하면 8월의 호우로 인하여 22만 정보의 농경지가 침수되거나 유실, 매몰되었으며 9월의 태풍 영향으로 서해안 지역 농경지 13만 정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됨.

수확 철을 맞아 북부산간지대인 대흥단군에서는 9월 초부터 보리와 밀, 옥수수, 감자 수확을 시작하였으며 이어 전국 각지에서는 벼 수확 작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음. 특히 최근에는 공재배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공 수확에 대해 강조하고 있음. 벼 수확을 위하여 트랙터를 비롯한 각종 연결기계, 운반용 기계, 탈곡기 등 모든 이용 가능한 농기계를 총동원하여 제 때 수확하기 위한 노력이 집중됨.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뿐만 아니라 인민위원회와 공장, 기업소에서도 일손 돕기에 적극 나서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 식량가격이 폭등하는 가운데 식량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모작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조됨. 이모작은 북한의 농업정책의 중요한 한 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해피해 복구를 진행하는 가운데서도 적기에 보리와 밀 종자를 파종하기 위한 각 지역의 활동이 소개됨. 이와 함께 풀먹는 집짐승의 사육을 장려하고 사료 원천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이 소개되기도 함.

기타 농업활동으로서 과수, 채소, 유지작물, 약초, 버섯, 양잠이 소개되고 있으며 특히 가을철 약초재배월간을 맞아 전 군중적 운동으로 약초 채취 및 재배를 권장하고 있음. 농촌 주택의 개량에 관한 소식도 간간히 소개되고 있음.

겨울철을 맞아 통나무 생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경제림을 조성하여 산림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음.

1. 농업정책

□ 전 세계적으로 식량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조관리제를 더욱 철저히 추진해야 하며 특히 평가를 잘 해야만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함. 오래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이모작이야말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관건임을 자각하고 이를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하며 과학영농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 농정의 기본 방침임.

□ 농업정책

○ 두벌농사를 주체적인 영농체계, 우리식의 농법으로(로동신문 7. 31)

· 부침땅 면적이 제한되어 있는 현실에서 식량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땅의 이용률을 최대한 높여야 하며 그 해결책의 하나가 두벌농사임.

· 이치상으로는 명백하지만 불리한 자연기후조건과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두벌농사는 일부 지역에만 가능함.

· 당 제5차대회 보고에서 김일성은 두벌농사를 농업부문의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함. 그 후 김정일은 10여년에 걸쳐 두벌농사를 실천하여 ‘우리식 농법’으로 전환시킴.

· 두벌농사는 단벌농사에 비해 노력과 자재가 많이 들기 때문에 풍족했던 시기에도 엄두를 내기 어려웠으나 1995~97년의 어려운 시기를 겪고 난 후 “당의 두벌농사방침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를 발표한 후 두벌농사를 ‘우리식의 주체적인 농법’으로 정착시킴.

· 두벌농사 방침에서 제기된 주요한 과제는 서해안지대에서 키큰모를 받아들여 두벌농사를 할데 대한 문제,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높일데 대한 문제, 두벌농사를 알곡대 알곡으로 진행할 데 대한 문제, 앞그루로 심는 작물을 가을에 심을 데 대한 문제 등이 있음.

○ 심각한 식량문제, 그 해결을 위한 노력(민주조선 8. 10)

- 유엔이 발표한 조사 자료에 의하면 1981년부터 2002년까지 세계적으로 밀, 보리 등 알곡 생산량이 연평균 4,000만 톤씩 줄어들고 있다고 함.
- 2006년에는 세계 알곡생산량이 2005년에 비해 1.6% 감소하여 수요 대비 5,800만 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올해 말에는 세계 알곡 재고량이 지난 20년 이래 최저수준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식량난으로 현재 세계적으로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의 수는 8억 5,000만 명에 이르고 있음.
- 식량문제, 농업문제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의 하나임.

□ 농업관리

○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을 발휘(로동신문 7. 17)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룡천군 신암협동농장 현지지도에서 “농촌경리부문에서 로력평가기준을 바로 정하고 농장원들에게 그들이 일한 것만큼 로력일을 정확히 평가 해주어야 사회주의적 분배를 옳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함.
- 농장일군들이 중시하고 있는 것은 노력평가사업을 정확히 하여 모든 농장원이 집단경리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주인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임.
- 청년분조의 경우 하루작업을 조직할 때 우선 작업 대상을 정확히 정하고 분조원의 농사경험과 나이, 취미까지 고려하여 작업을 조직하고 분조장과 노력일평가성원들이 하루작업 과제를 정확히 분석한 다음 노력일을 평가함.

○ 작업반초급일군들의 역할을 높여(로동신문 7. 21)

- 산골농장인 녕원군 룡성협동농장은 금성호 기슭에 자리 잡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자체의 힘으로 농사를 지어오고 있음.
- 농촌에서 농사일은 분조단위로 진행되는데 작업반장, 분조장들이 모든 영농공정에 맞게 노력을 어떻게 조직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좌우됨.
- 발농사가 기본인 농장에서 가장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영농시기는 강냉이영양단지

찍기와 씨넣기, 그리고 강냉이영양단지모를 옮겨 심을 때임.

- 농장의 형편에서 농장원들이 노동정량대로 강냉이영양단지를 찍는다면 보통 20~25 일 걸려야 하며 강냉이영양단지모를 옮겨 심을 때도 사정은 비슷함.

-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농장에서는 부대노력과 노동자, 사무원가족 등 비생산노력을 동원하여 물걷기, 영양단지찍기, 영양단지 재료혼합, 흙덮어주기 등은 순수 농장원이 하고 씨넣기는 비생산노력으로 보충함으로써 작업 일정을 앞당길 수 있었음.

○ 김정일 위원장, 함주군 추상협동농장에서 도, 시, 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참가(민주조선 7. 30)

- 조선로동당 총비서이며 국방위원장인 김정일 위원장은 7월 29일 함주군 추상협동농장을 방문하여 도, 시, 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참가함.

- 함경남도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제85호 선거구 제36호 분구 위원으로부터 선거표를 받고 도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인 함주군 상중협동농장 분조장 최순희와 함주군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인 함주군 추상협동농장 관리위원장 허금숙에게 투표함.

○ 은이 나는 분조관리제(로동신문 8. 4)

- 곡산군 지석협동농장에서는 농작물 비배관리의 실적을 높이기 위한 방도의 하나로 분조관리제를 정확히 실시하고 있음.

- 분조장협의회를 자주 개최하고 분조에 영농물자를 직접 공급하는 체계를 세우고 걸린 문제를 우선 해결하도록 함.

- 각 작업반의 분조들은 포전조건과 작업량, 분조원의 능력에 맞게 작업을 할당하고 하루 노력일 평가사업도 실속 있게 진행한 결과 모든 분조원이 농사일에 대한 열성이 높아짐.

○ 신흥군 원동협동농장 일군들의 사업에서(로동신문 8. 21)

- 신흥군 원동협동농장은 농사조건이 불리한 산골농장이지만 10여 년간 지원 노력을 받지 않고 농사를 지은 농장으로 알려짐. 농장의 강냉이밭 가운데 50%는 비탈밭이며 게다가 지력도 높지 못함.

- 농사를 지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비료와 기름을 해결하는 것임. 정보당 10톤

의 흙보산비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7~8월에 청년 돌격대를 조직하여 부식토를 만드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각 작업반마다 여름철에 500~600톤의 부식토를 원료로 하여 흙보산비료를 생산함.

- 각 작업반 비육분조는 연간 8~10톤의 돼지 물거름을 받아 이를 부식토와 섞여 흙보산비료를 생산함.
- 연료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고장에서 흔한 참나무로 대용연료를 생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동차, 트랙토르를 가동시킴.

○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로동신문 9. 26)

- 선천군 은정협동농장은 지원 노력을 받지 않고 지난 10년간 자체로 농사를 짓고 있는 모범사례로 선정됨.
- 가장 중요한 것은 분조관리제의 위력을 강화하는 것이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노력일 평가사업을 제대로 하는 것임.
- 분조장은 노력일 평가를 그날로 정확히 진행하되 포전머리에서 노력일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분조원 모두가 만족함. 공정한 노력일 평가는 자극이 되어 생산의욕을 높이는데 기여함.
- 모든 작업반에서는 분조별 작업정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10일에 한 번씩 총화를 하는 한편 그것을 노력일 공시판에 올림.
- 영농자재의 이용기한을 늘이고 예비를 조성한 단위에 대해서는 우대제를 적용하여 국가에 준 이득만큼 분배몹을 첨가해줌.
- 농장에서는 농장원 세대와 각 분조에 식구수, 노력자수에 맞게 거름 생산계획을 주며 내부규정 항목에 근거하여 철저한 우대제를 실시함.

□ 과학영농

○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작물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로동신문 7. 10)

- 안변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김매기와 논물관리, 비료치기를 비롯한 논벼비배관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경제조직사업과 기술지도를 적극 실시함.

- 비산, 신화, 중평, 과평협동농장을 비롯한 군 안의 다른 농장들에서도 로력조직을 짜고 들어 포전별 토양조건과 농작물의 생물학적 특성에 맞게 시비량을 정확히 정하고 비료주기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면서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예찰예보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백암군 덕립협동농장의 제 2, 3, 4, 5작업반들로 김이 뜯을세라 흙을 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김매기 속도와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음.
-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로동신문 8. 21)
- 농업부문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이 당조직의 지도 밑에 과학자, 기술자들과 합심하여 선진영농방법과 기술을 받아들여 알곡생산을 늘이는데 기여하고 있음.
 - 숙천군 약전농장 및 열두삼천농장, 문덕군 룡립협동농장, 연안군 오현협동농장,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곡산군 평안협동농장, 강남군 신정협동농장, 함흥시 해안구역 품동협동농장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은 각 농장의 기술자와 합심하여 각종 새로운 기술과 재배방법을 고안하고 있음.
 - 황해남도 농촌경리위원회 산하 농장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은 김제원해주농업대학 교원들과 합심하여 새로운 형태의 밀폐식 탈곡 및 종자선별기, 능률 높은 벼 종합탈곡기를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5건의 기술과제를 수행함.
- 농장원 모두가 과학농사의 주인이 되게 하여(로동신문 10. 13)
- 최근 재령군 재천협동농장에서는 새로운 영농방법을 받아들여 논농사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농장에는 지대가 낮고 습한 논이 많기 때문에 벼 뿌리가 손상되는 현상이 일어나며 이로 인해 정보당 수확고가 증가하는 못함.
 - 농장에서는 논판에 일정한 폭으로 두둑을 짓고 그 위에 소식재배방법으로 영양알모를 낸 다음 두둑 사이에 물을 대어 농사를 짓는 방법을 고안한 결과 벼 뿌리가 손상되는 비율을 현저히 줄일 수 있었음.
 - 이 방법은 논 겉면의 높은 지역이 그대로 보존되어 초기 생육이 좋을 뿐 아니라 뿌리가 손상되는 비율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음.
 - 첫째 시험포전으로 지대가 낮고 습하여 수확고가 적은 9작업반의 6정보 논에 새로운 영농방법을 도입하여 성과를 거둠.

- 두둑 짓는 작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농장에서는 복토기를 개조하는 성과도 거둬.

○ 콩 가을 적기(로동신문 10. 14)

- 콩은 가을걷이를 어느 때 하는가에 따라 정보당 소출과 콩알의 질이 많이 차이남.
- 가을걷이를 지나치게 빨리하면 1,000알 당 무게가 떨어져 소출이 낮아지며 콩의 품질도 나빠짐. 반면 콩 가을걷이를 너무 늦게 하면 콩알의 기름함량이 낮아지고 싹트는 힘이 약해짐.
- 콩은 완전히 여물면 잎이 다 떨어지고 콩알은 꼬투리배꼽 붙은 자리에서 완전히 떨어져 품종의 고유한 색깔을 나타내는데 이 시기가 콩 수확에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음.
- 콩은 수확한 후 물기함량을 잘 맞추어 탈곡을 해야 하는데 물기가 너무 많을 때 탈곡을 하면 찢기는 알 수가 많아지며 물기가 너무 적을 때 탈곡하면 콩알이 많이 깨어지게 됨.

○ 벼 가을걷이와 낱알 털기를 질적으로 하려면(로동신문 10. 14)

- 벼 가을걷이를 적기에 하려면 이삭에서 푸른 벼 알이 거의 다 누렇게 되고 이삭목이 누런색을 띠었을 때 하는 것이 좋음.
- 벼 알의 수분 함량이 30% 아래로 떨어졌을 때 해야 하며 간석지 논에서는 가을에 논물을 늦게 떼기 때문에 내륙지대 논에 비하여 그 만큼 가을걷이를 늦게 해야 함.
- 벼 가을걷이가 끝나면 수확한 지 이틀 안으로 벼 단을 묶어 동가리를 하였다가 벼 이삭이 마르자마자 논판에 오래 두지 말고 바로 실어들이기를 해야 함.
- 낱알 털기를 짧은 기간에 끝내기 위해서는 탈곡장 가까이 있는 논이 벼는 실어다 종합탈곡기로 털고 먼 곳의 논에 있는 벼는 포전에 모아놓고 이동식탈곡기로 털어야 함.

□ 농업교육

○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의 우월성 과시(로동신문 7. 16)

- 사회주의교육체제가 발표된 이후 지난 30년간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에서

수많은 현장기사, 기술자들을 배출하였으며 그들 중 수 백 명의 졸업생들이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책임일군으로, 학위소유자로, 노력영웅으로 자라남.

- 사회주의교육체제 발표 이후 10년 동안 40여개의 대학이 추가로 설립되고 1984년 한 해 동안 기술자를 양성하는 6개 대학이 설립되었으며 지난 30년 동안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현장기술자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가 확립됨으로써 일하면서 배우는 대학들은 도시와 농촌, 공업지대와 농업지대에 합리적으로 배치되고 그 기능과 역할이 높아짐.

2. 벼농사

□ 금년 8월의 무더기비와 9월의 태풍 피해로 인해 전국적으로 벼농사에 많은 타격을 받았으나 제 때 수확하여 손실을 최소화하자고 호소함. 벼 가을걷이철을 맞아 전국 각지의 협동농장에서는 모든 농기계와 운반도구, 탈곡기계를 동원하여 벼 수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일선 협동농장에 내려가 농장원들과 함께 가을걷이를 함으로써 힘을 보태고 있음.

□ 과학영농

○ 천내군 금성협동농장에서 불경(무경운)모내기(로동신문 8. 13)

- 천내군 금성협동농장에서 지난 몇 해 동안 크게 덕을 보고 있는 불경모내기(무경운 모내기)에 의한 논벼재배 방법은 지난 5월 초에 진행된 김일성 탄생 95돐 기념 중앙과학기술축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음.
-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금성협동농장에서는 논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백정보의 수령논 때문에 숯한 노력을 들이고 부속품과 연유를 소비 기준 이상으로 초과하면서 트랙토르를 만가동시켜도 논갈이를 제때 하기 힘들었으며 이로 인해 알곡 소출도 영향을 받았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장에서는 논갈이를 하지 않고 모내기를 하는 불경모내기에 의한 논벼재배방식을 채택하고 시험재배를 통해 기술을 확립하였으며 올해는 수 십 정보에 달하는 논에 불경모내기를 함과 동시에 논벼수직파재배방법을 시험적으로 실시함.

□ 영농관리

○ 협동벌에 굶이치는 애국의 열정(민주조선 8. 5)

- 곡산군 안의 일군과 농업근로자들은 당면한 농작물비배관리에 힘쓰고 있음.

-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은 농작물 비배관리에 대한 조직지도사업을 힘있게 하고 있음. 이와 함께 논물관리와 콩밭후치질, 병충해막이 등 당면한 농사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진행하고 있음.
- 신흥협동농장의 일군들은 논농사는 물농사라는 관점에서 장마철 조건에 맞게 논물관리를 잘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펼치고 특히 논물관리공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음.

□ 가을걷이

○ 가을걷이 준비를 다그치자(민주조선 8. 26)

- 가을걷이 준비를 빈틈없이 하기 위해서는 시, 군농기계작업소와 농기구공장의 역할을 높여야 함.
- 탈곡기와 트랙토르를 비롯한 가을걷이에 동원되는 농기계의 수리와 생산을 적극 다그쳐야 함.
- 생산조직을 관리하여 자재와 부속품, 영농물자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며 농기계 수리와 생산속도를 높여야 가을걷이를 제대로 할 수 있음.

○ 가을걷이 준비를 빈틈없이 하여 올해 농사 결속을 잘하자(로동신문 9. 4)

- 황해북도 안의 협동농장에서는 애써 가꾼 곡식을 제때에 실어들이기 위해 트랙토르에 대한 수리정비를 착실히 하고 있음.
- 황해북도 연안군, 청단군, 황주군, 개성시는 가을걷이에 쓸 농기계 수리정비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음. 가을걷이 전 기간에 농기계가 멈추는 일이 없도록 예비부속품을 넉넉히 마련해놓고 있음.
- 평양시, 평안남도를 비롯한 각지 농촌에서는 연결차를 완전 가동할 수 있도록 수리정비를 열심히 하고 있으며 각 지방의 특성에 맞는 능률적인 수송기재를 만드는데 힘을 쏟고 있음.
- 황해북도, 함경남도과 강원도의 농촌에서는 이미 있는 강냉이창자 보수를 말끔히 끝내고 창고를 손질하며 많은 물동량을 실을 수 있도록 달구지 만들기에 열중하고 있음.
- 수확의 계절을 앞 둔 동림군 안의 협동농장은 가을걷이 준비에 여념이 없음. 백마-

철산물길의 생명수로 마음껏 농사지은 보람을 안고 가을걷이와 낱알털기를 제철에 하기 위하여 농기계와 농기구 준비를 빈틈없이 하고 있음.

- 가을걷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전기이며 군대에서 운영하는 발전소를 완전 가동시켜 낱알털기에 필요한 전기를 자체로 해결하고자 함.
- 전력의 도중손실과 낱알털기 작업에서의 전력 부하를 줄이기 위하여 전기선 교체 공사를 추진하고 탈곡기와 운반수단의 제작 및 보수정비에 군대가 지원하고 나섬.
- 숙천군 약전농장의 기계화작업반원과 수리분조에서는 모든 트랙토르와 탈곡기 수리정비를 끝냄.
- 광산 연결농기계공장에서는 소형 벼수확기 생산을 다그치고 있음.
- 태탄군에서는 100대에 가까운 트랙토르와 탈곡기 수리정비를 마무리 한 데 이어 수십종의 여러 가지 농기계부속품을 생산함. 이 뿐만 아니라 낫, 솟돌, 구력 등 가을걷이에 필요한 농기구들을 자체로 만드는 사업에도 성과를 거둬.

○ 가을걷이 준비를 실속있게(로동신문 9. 6)

- 선천군 안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트랙토르를 비롯한 운반수단들과 탈곡기에 대한 수리정비, 중소농기구 준비 등 가을걷이 준비를 빈틈없이 하고 있음.
- 은정, 석화협동농장에서는 트랙토르를 비롯한 운반수단들에 대한 수리정비 작업을 다그치고 있으며 연유, 부속품을 넉넉히 마련하면서 가을걷이 준비를 조직적으로 하고 있음.
- 인암, 고성협동농장에서는 무더기비에 의하여 파괴된 포전도로와 다리들을 원상태로 복구하였으며 중소농기구들도 수리정비하면서 가을걷이를 준비하고 있음.

○ 가을걷이 준비를 다그친다(로동신문 9. 7)

- 황해남도 안의 농촌들은 무더기비로 많은 농경지가 침수되고 그 피해가 아직 가지 않은 상황에서 가을걷이를 위한 경제조직사업에 열중하고 있음.
- 도농촌경지위원회에서는 도 안의 각 시, 군 농어부문 일군들에게 큰물피해 복구와 농작물의 후반기 비배관리에 관심을 두면서 벼 가을걷이 준비에 여념이 없음.
- 은천, 청단군을 비롯하여 무더기비에 의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가을걷이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음.

○ 탈곡장 보수정비 적극 추진(로동신문 9. 8)

- 평안남도, 평안북도 안의 농촌에서는 이미 강냉이 탈곡기 수리정비를 마무리하고 벼 탈곡기 수리정비사업을 다그치고 있음.
- 특히 황해남도에서는 당면한 가을걷이 준비에서 벼 탈곡기 수리정비를 중요 항목으로 설정하고 노력을 집중하고 있음.
- 평양시, 량강도 안의 협동농장에서는 곡식이 익는 족족 가을하고 그것을 제때에 털어내기 위하여 탈곡장 건물 수리와 울타리 쌓기 등 탈곡장 준비를 마무리함.

○ 가을걷이와 낱알털기를 제철에 성과적으로 결속하자(민주조선 9. 15)

- 함주군 추상협동농장에서는 강창욱 농근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주성일 함경남도당 위원회 비서, 추상협동농장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하여 가을걷이와 낱알털기를 제철에 성과적으로 끝내기 위한 쫓기모임이 진행됨.
-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올해에도 농업전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농사를 지은데 대하여 언급하고 가을걷이와 낱알털기를 원만히 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노력과 기계수단을 합리적으로 동원, 이용할 것을 결의함.
- 숙천군 광천농장은 가을걷이와 낱알털기 준비를 거의 마무리한 상태이며 수확에 필요한 트랙또르와 연결농기계, 벼탈곡기 등 농기계의 수리와 정비에 힘을 쏟고 있음. 주된 탈곡기는 ‘남농1호’라고 명명된 것으로 탈곡기를 완전 가동하기 위한 계획에 신경을 쓰고 있음.

○ 가을걷이 준비를 빈틈없이(로동신문 9. 17)

- 강원도에는 성능이 확인된 밀폐식종합탈곡기(남농1호)를 모든 협동농장에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문천시, 안변군, 통천군은 가을걷이 준비에서 가장 앞서나가고 있음.
- 원산시와 이천군, 평강군에서는 트랙또르의 수리정비를 말끔히 끝내고 가을걷이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음.

○ 쌀로써 우리 당을 받들 애국의 한마음 안고(로동신문 10. 1)

- 농업성에 따르면 농촌에서는 이미 시작된 벼, 강냉이, 콩 수확은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감.

- 평양시 안의 농업근로자들은 강냉이 가을걷이를 거의 끝내고 지금은 벼 가을걷이에 노력과 운반수단을 집중하고 있음.
 - 재령군, 신천군 등 재령별 안의 협동농장들은 벼 가을걷이에 한창임. 강냉이 수확을 기본적으로 끝낸 연안군, 배천군, 해주시 안의 일군들은 벼 가을걷이 작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음.
 - 황주강릉별과 미루별을 비롯한 황해북도 안의 농촌에서는 강냉이 가을걷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평안남도과 함경남도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강냉이 수확과 이삭운반, 벼 수확과 벼단 들이기를 동시에 하고 있음.
- 각지 농촌들에서 벼가을 시작(민주조선 10. 5)
- 각 농촌에서는 벼가을을 시작함.
- 태천의 기상안고 가을걷이 전투를 힘있게 다그친다(로동신문 10. 6)
- 곡산군은 지난 8월과 9월에 내린 무더기비로 수천 정보의 농경지가 침수, 매몰, 유실되었으며 탈곡장이 무너지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음.
 - 곡산군은 큰물피해 복구를 추진하는 한편 당면한 가을걷이에 한창임.
 - 건설건재공업성, 무역성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의 일군들과 정무원도 농장원과 함께 미루별 가을걷이를 지원하고 있음.
 - 미루별에서 덩치가 제일 큰 룡현협동농장에서는 모든 농기계를 다 동원하여 가을걷이를 하고 있음.
- 곡식이 익는 족족 베어 들여(로동신문 10. 13)
- 평산군 봉탄협동농장에서는 가을걷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농장에서는 모드 작업반, 분조들이 가을걷이 준비를 착실히 하고 곡식이 익는 족족 수확을 하고 수확한 벼는 탈곡장으로 실어 날라 낱알 털기를 하고 있음.
-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자각안고(민주조선 10. 14)
- 황해남도의 농촌에서는 가을걷이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올해 뜻하지 않게 들이닥친 무더기비와 태풍으로 알곡생산에 커다란 피해를 입었으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용기를 잃지 않고 가을걷이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도농촌경리위원회를 비롯한 농업지도기관 일군들은 현장에 내려가 농장원들과 일손을 같이 하면서 가을걷이를 독려하고 있음.

3. 밭농사

- 백두삼철리벌의 대홍단군을 시작으로 밀과 보리, 강냉이의 수확을 시작함. 이와 함께 이모작 보리와 밀 파종을 위하여 종자를 준비하고 파종을 제 때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 최근 콩 재배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콩을 적기에 수확하도록 강조하고 있으며 김장을 위한 채소의 파종에도 힘을 쏟고 있음.

- 이모작
 - 밀, 보리 가을 시작(로동신문 8. 19)
 - 대홍단군에서는 밀, 보리 가을(수확)이 시작됨.
 - 감자농사와 함께 밀, 보리농사에 중점을 두는 대홍단군에서는 밀, 보리 종합수확기 수리정비와 건조장 보수를 미리 실시하고 수확 일정 계획을 수립
 - 군에서는 밀, 보리 종합수확기를 지대 조건에 맞게 배치하고 그 이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함.
 - 밀, 보리 건조장 준비를 빈틈없이 해놓고 수확에 들어간 농사동, 창평농장의 농업 근로자들은 밀, 보리선별과 건조작업을 대홍단식과학농법의 요구대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음.
 - 백두삼천리벌에서 밀, 보리 가을 한창(로동신문 8. 28)
 - 백두삼천리벌에 자리 잡은 대홍단군 안의 농장에서는 밀, 보리 수확에 들어섬.
 - 군에서는 감자농사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것과 함께 밀, 보리 가을걷이를 위하여 종합수확기를 총동원하고 있음.
 - 삼장농장은 밀, 보리가 일찍 여무는 지대적 조건에 맞게 수확을 일찍 시작하였으며 농사동, 창평, 홍암, 신흥농장에서도 수확 작업을 시작하여 걷어들이는 족족 잘 말려 보관하기 위한 대책도 강구하고 있음.

○ 가을, 보리의 씨앗준비(로동신문 9. 14)

- 가을밀과 보리는 다음에 각각 6월 5~10일, 6월 15~20일 전에 안전하게 수확할 수 있는 품종을 선택해야 함. 햇별이 잘 드는 곳에 갈개를 깔고 씨앗을 편 다음 자주 뒤적여주면서 햇빛 말리기를 해야 하며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20~30℃되는 방안에 씨앗을 펴 놓고 말리거나 바람이 잘 통하는 탈곡장이나 창고 같은 데서 말림.
- 밀, 보리 씨앗 소독을 잘하는 것은 병해충을 미리 막고 높고 안전한 소출을 거두는 중요한 문제임.
- 밀, 보리 씨앗 소독은 더운물 소독과 화학적 방법으로 할 수 있음. 화학적 방법으로 소독한 밀, 보리 씨앗은 철저히 맑은 물로 깨끗이 씻고 말린 다음 심어야 함.

○ 가을밀, 보리 심기를 제철에(로동신문 9. 16)

- 황해남도 도농촌경리위원회 농산처의 일군들은 두별농사 가을밀, 보리 심기에 대한 기술적 지도를 강화하고 있음.
- 화학비료가 적은 조건에서 밀, 보리 심기에 대응비료를 적극 생산,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 안악군, 재령군, 신천군의 협동농장에서는 가을밀, 보리 심기 일정을 면밀히 세우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강냉이 가을걷이 조직(로동신문 9. 13)

- 강냉이 가을걷이를 제철에 하기 위해서는 포전별 가을걷이 날짜와 순서를 바로 정해야 하며 곡식이 익는 족족 거두어들여야 함.
- 작업공정별 노력 조직은 각 구성원의 능력과 체질을 고려하여 집단의 힘이 잘 발양되도록 해야 함.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책임성과 기술기능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골고루 들어가도록 노력 조직을 구성해야 함.
- 트랙또르는 거리가 먼 포전의 짐을 싣고 달구지로는 가까운 포전의 짐을 싣도록 해야 하며 가을한 강냉이 이삭은 반드시 가마나 구렁에 담아 실어들이도록 하고 싣고 부리는 장소에는 멍석을 깔아야 함.

○ 가을밀, 보리씨뿌리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하자(민주조선 9. 19)

- 가을밀, 보리심기 철을 맞아 각 농촌에서는 씨뿌리기를 준비하고 있음.

- 가을밀, 보리 씨뿌리기는 여러 영농작업과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선후를 제대로 가려 노력과 농기계를 잘 배분해야 함.
-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가을밀, 보리 씨뿌리기를 제철에(민주조선 9. 28)
 - 증산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두벌농사 계획을 세우고 당면한 가을밀, 보리씨뿌리기 지도사업에 열중하고 있음.
 - 각 협동농장은 가을밀, 보리씨뿌리기가 큰물피해복구, 가을걷이 등과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실정에 맞게 역량을 편성하도록 위원회는 지도하고 있음.
 - 선천군 안의 협동농장에서도 가을밀, 보리씨뿌리기를 다그치고 있음.
- 가을밀, 보리씨뿌리기를 과학기술적으로(민주조선 9. 30)
 - 안주시 안의 운송, 청송, 덕성협동농장에서는 씨앗고르기와 해빛말리기 등 두벌농사를 위한 가을밀과 보리 종자처리에 한창임.
 - 룡연, 남흥협동농장을 비롯한 시 안의 다른 협동농장에서도 기름 실어내기와 논밭갈이, 씨레치기 등 포전준비를 하면서 가을밀, 보리씨뿌리기를 제철에 하기위해 노력을 집중하고 있음.
- 가을걷이 준비를 철저히 하여 한 알의 낱알도 허실 없게 하자(로동신문 9. 18)
 - 박천군 청룡협동농장에서는 분조별로 강냉이 창자(창고)에 칸칸을 막아 명찰을 붙이고 비가 새지 않도록 지붕수리를 하였으며 ‘남농1호’ 탈곡기와 콩 및 강냉이탈곡기는 기름을 칠하여 가을걷이 준비를 완료함. 또한 강냉이 창자 옆의 작업장에는 새끼줄을 건 여러 대의 가마니 짜는 기계를 준비해 놓고 있음.
 - 름산군에서는 콩탈곡기 수리정비를 완료하여 콩 수확을 준비하고 있음. 마대를 비롯하여 콩 담을 용기도 준비하고 콩단을 쌓아올기 위하여 탈곡장 바닥도 깨끗이 정리함.
 - 무산군 문암협동농장에서는 트랙또르, 자동차 수리정비를 마치고 수십대의 달구지를 새로 만들어 가을걷이를 짧은 기간에 끝낼 목표를 세우고 있음.
 - 논벼는 다 여물면 잎이 누른색으로 변하고 이삭줄기의 끝에서 3분의 1정도가 윤기나는 누른색으로 변함. 그러므로 벼알의 색깔을 보고 가을걷이 적기를 정하는 것이 비교적 정확함.

- 논벼의 경우 해당 포전에서 3~5포기의 이삭을 자르고 그 중에서 큰 이삭과 작은 이삭을 각각 20%씩 버리고 나머지 이삭의 총 벼 알 가운데 푸른색을 띤 것이 10~15%되면 가을걷이 적기로 판정함. 그러나 간석지 논과 같은 데는 논물떼기를 늦게 하기 때문에 그만큼 가을걷이 날짜를 늦추어야 함.

○ 강냉이 가을걷이를 본격적으로(로동신문 9. 21)

- 선천군 안의 협동농장들은 강냉이 가을걷이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음.
-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곡식이 익는 족족 제때에 수확하도록 협동농장을 독려하면서 농촌의 모든 노력과 운반수단을 집중하고 있음.

○ 씨부리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민주조선 10. 2)

- 용진군 안의 협동농장은 가을밀, 보리씨부리기를 할 포전부터 가을걷이를 우선 하고 있음.
-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각 협동농장에 두벌농사를 위한 적지 선정과 종자처리 등 가을밀, 보리씨부리기를 위한 과학기술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도하고 있음.

□ 콩

○ 콩농사의 전문화 적극 추진(로동신문 7. 17)

- 전국 각지 협동농장에 조직된 콩전문작업반, 전문분조의 수는 지난해에 비해 거의 3배나 많음.
- 각지 농촌에서는 콩농사에서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해 콩농사의 전문화를 추진하고 있음.
- 의주군당위원회에서는 모든 농장의 농산작업반에 콩전문분조를 조직하도록 함.
- 름산군와 맹산군, 화대군을 비롯한 많은 군에서는 실정에 맞게 콩전문작업반, 전문분도를 조직함.
- 배천군에서는 청년으로 구성된 콩농사전문분조를 조직함.

○ 모든 콩밭을 꽃밭처럼(민조조선 7. 20)

- 안변군 천삼협동농장에서는 콩농사를 많이 할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농장에서

는 콩비배관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하고 있음.

- 콩씨불임과 초기 비배관리를 잘해온 제1작업반원들은 당면한 비배관리에 힘을 쏟아 애써 가꾼 콩포기들이 장마철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작업반에서는 트랙도르와 축력을 배합하여 콩밭후치질을 깊이 있게 하고 콩밭둘레에 물도랑을 쳐주어 큰 비에 대비하고 있음.

○ 장마철 조건에 맞게 콩밭비배관리에 큰 힘을(로동신문 7. 21)

- 신천군 백석협동농장은 원그루콩과 뒤그루콩을 함께 재배하고 있음.
- 농장원들은 장마철 조건에 맞게 콩밭머리의 도랑을 더 깊숙이 파주어 무더기비가 내려도 물이 쪽쪽 빠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부림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뒤그루콩밭의 후치질도 진행하고 있음.
- 또한 콩포전관리원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미리 막고 덧거름 주기도 진행하고 있음.

○ 콩밭비배관리에 애국의 열정을(로동신문 7. 24)

- 개천시 일군들은 지난해에 비해 콩밭면적을 훨씬 늘이고 그 비배관리를 깐지게 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진행함.
- 시에서는 봉화협동농장을 콩농사의 본보기 단위로 정하고 모든 영농공정에서 앞서 나가도록 도와주는 한편 그 경험을 시 안의 다른 협동농장에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콩농사를 발전시키고 있음.
- 뒤그루 콩농사 면적이 많은 도화, 알일, 룡운, 대각, 청룡협동농장을 비롯하여 시 안의 모든 협동농장에서는 두벌김매기를 끝낸데 이어 세벌김매기를 다그치면서 장마철에 콩이 큰물피해를 받지 않도록 후치질도 깊숙이 해주고 있으며 덧비료 주기가 마감단계와 와 있음.
- 은륜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마지막 콩밭김매기와 순치기를 하도록 떠밀어 주고 있으며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콩밭비배관리를 잘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협동농장 일군들은 콩포전에서 꽃이 피기 전에 김을 한 벌씩 더 매도록 목표를 세우고 정보당 콩 수확고를 높일 수 있게 순치기를 적극 추진하도록 함.

○ 콩밭비배관리에 힘을 넣는다(로동신문 7. 25)

- 개성시 해선협동농장은 콩농사를 전문으로 하는 작업반을 조직하고 관수조건과 지력이 높은 밭에 콩을 심은 다음 콩밭 비배관리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작업반원은 콩밭에 4회 김매기를 끝내고 병해충 피해 방지를 위해 대책을 세우고 있음.
- 농산 1, 3작업반에서도 병해충과 큰물피해 막기 위하여 밭 둘레에 배수로 치기를 하고 덧비료 주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하고 있음. 농산 제6, 7작업반의 농장원은 뒤그루로 심은 콩밭에 대해 2회 김매기와 2회 후치질을 끝냄. 밭에 심은 콩뿐만 아니라 논두렁에 심은 콩의 비배관리도 착실히 하고 있음.

○ 콩밭비배관리를 착실히(민주조선 7. 31)

- 연탄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올해에 지난해보다 더 많은 콩을 생산할 목표를 세우고 협동농장에서 자체의 실정에 맞게 노력을 조직하여 콩밭비배관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해나가도록 하고 있음.
- 천마군에서도 콩밭비배관리를 조직적으로 하면서 부림소를 이용하여 후치질 속도를 높이고 있음.

○ 콩가을을 제철에 질적으로(로동신문 10. 7)

- 무산군에서는 콩가을걷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음.
-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모든 농장이 콩가을 일정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도와주고 있음.
- 콩의 품종과 심은 날짜, 익은 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수확 날짜를 잡고 있음.
- 군에서는 콩가을걷이 전투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콩 탈곡을 위한 준비도 함께 진행하고 있음.

○ 콩 가을을 제철에 질적으로(로동신문 10. 7)

- 무산군에서는 콩 가을걷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음.
-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모든 농장이 콩 가을 일정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도와주고 있음.

- 콩의 품종과 심은 날짜, 익은 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수확 날짜를 잡고 있음.
- 군에서는 콩 가을걷이 전투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콩 탈곡을 위한 준비도 함께 진행하고 있음.

○ 강남군 안의 협동농장들에서(민주조선 10. 12)

- 강남군 안의 협동농장에서는 콩 수확을 힘 있게 추진하고 있음.
- 신흥, 동정, 고읍, 류포 협동농장에서는 콩이 여문 상태를 따져 수확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다음 콩이 여무는 족족 모든 운반 기구를 총동원하여 수확하여 실어들이고 있음.

□ 채소

○ 가을남새 씨불임(파종)을 제철에(로동신문 8. 8)

- 강남군 마정협동농장에서는 가을남새 씨불임을 제철에 질적으로 하고 있음.
-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에서도 이른 봄남새와 여름남새 생산을 통해 많은 남새를 생산한 이 농장에서는 한해 남새 생산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음 가을남새 씨불임 준비를 하고 있음.
- 농장에서는 가을남새 생산에 필요한 질 좋은 흙보산비료, 소석회 등을 충분히 마련하고 앞그루 작물을 거두어들이는 대로 땅 소독과 거름 실어내기, 밭갈이를 연속적으로 함으로써 가을남새 씨불임을 제철에 하고 있음.

○ 가을남새 심기를 다그친다(로동신문, 민주조선 8. 10)

- 각지 농촌에서는 가을남새 심기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배추영양단지 씨넣기가 이미 끝나고 무씨뿌리기는 90%, 배추모 옮겨심기는 15% 수준에 이름.
- 평안북도 협동농장에서는 포전별, 날짜별 작업계획을 세워 배추영양단지 씨넣기를 짧은 기간에 완료하였으며 배추모 옮겨심기는 20% 이상하였음.
- 박천군, 태천군, 운산군 등 여러 군에서는 무, 배추씨앗들이 싹트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공정별 작업을 진행하였음.

- 황해북도 농업근로자들은 배추영양단지 씨넣기를 계속하였음.
 - 순천시, 안주시, 강서군 등 평안남도 시, 군에서는 밭갈이와 이랑짓기를 한 후 무씨 뿌리기를 적기에 끝냄.
 - 평양시, 강원도, 함경남도, 함경북도의 농촌에서는 무씨뿌리기와 배추영양단지 씨넣기를 전부 끝냄.
 - 원산시 안의 협동농장은 앞그루 남새 수확을 끝내고 땅 다루기를 한 후 무씨 뿌리기와 배추모판 만들기를 동시에 시작함.
- 가을남새 가꾸기에 큰 힘을(로동신문 9. 18)
- 평양시와 평안북도 안의 협동농장들은 가을남새 가꾸기에 집중하고 있음.
 - 포전별 김매기 계획을 세우고 포기말다 진거름을 빠짐없이 주며 김매기를 제대로 해주어야 정보당 수확고를 높일 수 있음. 성장촉진제를 주면 남새 생육이 더욱 왕성하기 때문에 기술지도를 통해 이를 적극 권장함.
 - 평양시에서는 올해 3,000여개의 우물과 굴포 파기를 진행하여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확보하게 됨.

4. 감자농사

- 대홍단군을 필두로 9월 중순부터 감자 수확을 본격적으로 시작함. 지역에 따라 감자 수확시기가 다르지만 10월 중순에는 모든 지역에서 감자 수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 금년에는 비가 많이 내려 감자 생산량이 예년에 비해 낮을 것으로 전망함.

- 감자수확
 - 대홍단군을 감자농장 혁명의 본보기로 내세우시여(로동신문 7. 10)
 - 1950년대 백두고원의 원시림을 개간하여 대홍단군에 대규모의 농장을 개척함.
 - 백두삼천리벌에 자리 잡은 대홍단군을 농업생산의 종합적기계화를 위한 본보기로 꾸리고 감자농사 혁명을 위한 전진기지로 선정한지 20년 가까이 됨.
 - 이를 위해 품이 많이 들고 시기성을 요구하는 감자심기, 김매기, 감자캐기를 비롯하여 모든 영농공장을 기계로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제대 군인까지 정착시킴.
 - 국제감자과학토론회 진행(로동신문 7. 25)
 - 국제감자과학토론회가 23일과 24일 평양에서 진행됨. 토론회에는 김혁진 농업성 부상, 관계부문 일군들, 농업부문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 국제감자센터와 여러 나라 대표가 참가함.
 - 토론회에는 고금학 농업과학원 부원장이 개막연설을 하고 김혁진 부상과 페르난도 엔 에제타 국제감자센터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책임자가 축하연설을 함.
 - 토론회는 개괄토론, 감자협조부문, 종자부문, 재배부문, 병해충부문 등 부문별 토론이 진행됨.
 - 대홍단식 과학농법의 요구대로(로동신문 7. 29)
 - 삼지연군에서는 감자역병 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있음.

- 중경제초기로 여러 번 후치질을 하여 감자밭이랑을 높이고 있으며 감자 포기가 물에 잠기거나 습기 피해를 받지 않게 하고 있음.
- 역병에 대한 예찰예보사업을 강화하여 포전마다 책임 있는 사람을 포전관리원으로 배치하고 있음.
- 포대, 중토장 농장도 역병 방지사업을 잘하고 있으며 물도랑치기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선군시대에 복받은 백두삼천리별(로동신문 8. 24)

- 백두고원에 자리 잡은 대홍단은 6.25 동란 중에 국영농장으로 개발된 북한의 대표적인 감자 생산지역이며 농업과학원 감자연구소(소장 김춘연)가 자리 잡고 있음.
- 대홍단군은 기계화 비중이 높아 농업근로자 1인당 평균 10정보의 농장을 관리해야 함. 농업기계 가운데는 감자수확기, 밀, 보리종합수확기와 파종기를 비롯하여 트랙터, 농약살포기 등 다양함.
- 감자연구소에는 현대식 감자종자저장고가 마련되어 있는데 1층에 보관된 감자종자를 승강기로 올려 2층에서 싹틔우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대홍단군은 감자음식문화도 발달되어 있는데 감자국수, 감자설기떡, 감자송편, 언감자송편, 감자지짐 등 다양함.

○ 백두삼천리별에서 감자수확 시작(로동신문 9. 12)

- 백두삼천리별에서 감자수확이 시작됨. 대홍단군에서는 일군들을 현지에 내려보내 농장의 감자수확준비를 지원함.
- 감자수확이 시작되자 군농업경영위원회에서는 서리피해를 먼저 받을 수 있는 포전부터 수확하도록 하고 그날 캔 감자는 그날로 실어들이도록 하고 있음.

○ 감자 캐기로 들끓는 대홍단군에서(로동신문 9. 15)

- 대홍단군의 책임일군들은 한 개 농장씩 맡고 내려가 포전을 지휘하면서 감자 캐기 전투를 시작함.
- 각 농장은 감자 종자 저장고에 대한 소독, 보수를 진행하고 감자를 캐는 족족 저장고에 넣을 수 있도록 준비함.
- 군 농기계작업소에서는 농기계 수리정비에 필요한 부속품 생산과 대홍단감자가공

공장의 감자부산물처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함.

- 군 감자수송대에서도 감자 캐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모든 자동차에 대한 수리정비를 끝내도록 지시함. 지난 9월 8일에는 자동차 출동식이 열림.
- 대흥단군에서는 매주 목요일 진행되는 자동차 설비점검을 군에서 하지 않고 대흥단감자가공공장에서 하도록 장소를 정함.
- 신덕농장 제7작업반 포전에서는 감자 캐기 전투가 시작되었음.
- 백산농장에서는 감자 숲자르기를 이미 끝내고 제철에 감자 캐기를 끝내기 위한 일정을 빈틈없이 세워놓고 있음.

○ 감자캐기를 제철에 질적으로(로동신문 9. 22)

- 삼지연군, 백암군, 장진군, 부전군 등 북부 고산지대 농촌에서는 감자캐기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풍서군, 갑산군 등 양강도와 연사군, 무산군, 랑림군 등 함경북도와 자강도의 농촌에서는 감자캐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운반과 가공, 종자고르기와 보관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감자 캐기에 역량을 집중하여(민주조선 10. 5)

- 백두대지에 자리 잡고 있는 삼지연군 안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감자 캐기를 지원하고 있음.
- 보서, 통신, 홍계수, 중흥, 포태농장 등 군 안의 농장에서는 모든 농기계를 총 동원하여 감자 캐기와 운반, 가공처리를 하고 있음.

○ 모든 역량을 감자수확에 집중(로동신문 10. 6)

- 양강도 안의 농촌에서는 모든 역량을 감자수확에 집중하고 있음.
-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군별로 감자 캐기 일정을 잡고 농장을 지원하고 있음.
- 대흥단군, 삼지연군, 백암군, 보천군, 운흥군, 갑산군, 삼수군에서는 군 안의 모든 운반수단을 감자수확에 집중하고 있으며 감자를 캐는 족족 감자종자저장고에 보관하고 있음.

○ 감자캐기전투장에 혁명적 열정 차넘친다(로동신문 10. 9)

- 북부 고산지대인 백암군 안의 농장에서는 감자 캐기가 한창임.
- 덕립, 옥천, 삼수평 농장을 비롯한 개척지구의 농장들과 상담, 동계협동농장을 비롯하여 온 군이 감자농사에 주력하고 있음.
- 금년에는 많은 비가 내려 감자수확에 불리한 조건이 조성되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현재 감자수확과 수송, 처리에 여념이 없으며 전분공장도 완전가동하고 있음.

5. 축 산

□ 각 지역의 협동농장에서는 토끼, 오리, 염소 등 풀 먹는 집짐승 사육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사료 문제 해결을 위하여 새로운 풀판을 조성하거나 발효 먹이 등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음. 이와 함께 축산단지를 중심으로 돼지, 닭, 젓소 등의 사육을 위한 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음.

□ 축산 동향

○ 완공단계에 이른 사리원돼지공장(로동신문 7. 11)

- 연건평이 1만여 m²에 달하는 사리원돼지공장은 공사를 시작한지 불과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완공단계에 이르렀으며 여기에는 먹이가공기와 먹이창고, 여러동의 비육사와 종축사, 육성사 등 기본생산건물들과 사무실, 합숙, 실험실, 양수장과 침전지까지 갖추어져 있음.
- 사리원시 립석지구에 자리 잡은 돼지공장은 모든 생산건물을 현대적으로 건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먹이가공공장으로부터 먹이와 물공급, 퇴수처리 등 모든 공정이 현대적인 설비들로 이루어져 생산성이 높은 축산기지임.

○ 자연풀판을 적극 리용(로동신문 7. 18)

- 고평군 룡성협동농장에서는 풀먹는 집짐승기르기에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염소를 기르고 있음.
- 농장에서는 산을 끼고 있는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자연풀판을 더 많이 조성하고 염소를 기르고 있으며 자체로 젓가공설비를 만들어 탁아소와 유치원 어린이들, 그리고 농장원 세대와 학교 학생들에게 공급하고 있음.

○ 종자 덕을 본다(민주조선 7. 21)

- 운전군 운하협동농장은 풀먹는 집짐승을 많이 기를 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우

량 품종의 토끼를 많이 기르고 있음.

- 지난 시기 농가들이 부업식으로 한두 마리씩 기르던 것을 이제는 알곡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작업반과 농장원 세대들이 농장적인 사업으로 많은 토끼를 기르고 있음.

○ 수의방역사업에 힘을 넣어(로동신문 7. 24)

- 김정일 위원장은 “축산업에서는 첫째도, 둘째도 수의방역사업을 잘하는 것입니다.”라고 함.
- 강계토끼중축장에서는 자강도 농촌경리위원회와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예방접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토끼에 대해 적기에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하도록 추진함.
- 중축장에서는 배설물을 미생물로 처리하는 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으며 관리공에 대한 기술학습을 통해 기술기능 수준을 높이고 수의방역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는 사업을 추진함.

○ 풀먹는 집짐승기르기를 균중적으로(로동신문 7. 31)

- 서흥군에서는 풀과 고기를 바꿀 데 대한 당의 축산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염소와 토끼를 비롯한 풀먹는 집짐승기르기를 균중적으로 펼쳐 성과를 거두고 있음.
- 군에서는 이미 여러해 전에 염소목장을 건설하고 각 협동농장과 공장, 기업소는 풀먹는 집짐승을 기를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놓음.
- 군 염소목장에서는 갖가지 젓가공품과 고기가공품을 생산하여 읍내 주민과 탁아소, 유치원에 공급하고 있으며 중축체계를 세워 협동농장과 공장, 기업소에 우량품종의 염소를 보내주고 있음.
- 서흥군에서는 염소기르기를 적극 장려하여 군적으로 염소 사육두수가 1만 마리를 훨씬 넘어섰으며 산골짜기 마다 풀판을 조성하고 있음.

○ 김정일의 성진제강련합기업소 현지지도(로동신문 8. 8)

- 김정일은 성진제강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면서 후방사업으로 일환으로 운영하는 오리목장을 방문함.
- 성진제강련합기업소는 오리목장을 꾸리고 돼지를 기르며 부업지를 이용하여 콩농사를 하고 있음.

- 개황
 - 오리목장 건평: 111,600m²
 - 건물총면적: 12,144m²
 - 생산능력: 300톤/연
 - 오리 가공처리능력: 7,500마리/일
 - 사료가공능력: 10,280kg/일
 - 청사료 면적: 273정보
 - 단백질이 서식면적: 2정보
 - 2006년 생산실적: 303톤
- 오리고기 생산정형

(오리고기 생산)

연도	생산 (톤)	사료소비 (kg/마리)	알생산 (천알)	폐사율	
				계획(%)	실적(%)
2005	300	3.2	380	7	6.5
2006	303	3.1	393.7	7	6.1
2007	310	3.0	806(계획)	7	2.49

(종별)

연도	종금(마리)	알생산(천개)	병아리생산 (천마리)	비육(천마리)
2005	3000	380	212.16	198.37
2006	2837	393.7	212.92	199.93
2007(계획)	2734	286	171.6	

(사료조성 및 소비)

연도	강냉이 (톤)	콩두박 (톤)	쌀겨 (톤)	어분 (톤)	광물질 (톤)	청사료 (톤)
2005	567	221	673	576	48	300
2006	559.3	218	664	569	474	340
2007	540	205	654	582	493	360

○ 당의 축산정책을 관철하여 인민들이 덕을 볼 수 있게 하자(민주조선 9. 6)

- 황해남도에서는 연탄군 토끼종축장을 비롯하여 새끼집짐승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단위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량 품종의 종자 확보와 사양관리, 새끼생산 조직을 과학기술적으로 하기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음.
- 봉산군, 서흥군, 연산군 등지에서는 풀판면적을 늘리고 그 이용을 합리적으로 하기위한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음.
- 강동군 구빈축산전문협동농장에서는 수의방역사업에 관심을 집중시킴.
- 장진군과 같은 산을 끼고 있는 지역에서는 자연 지리적 조건에 맞게 방목 등을 통해 집짐승 기르기를 해야 하며 양과 같은 풀먹는 짐승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함.

○ 토끼 기르기를 과학적으로(로동신문 9. 11)

- 향산군 태평협동농장 축산작업반에서는 우량 품종의 어미토끼 150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한 마리당 몸무게가 3kg을 훨씬 넘음.
- 올해는 새끼토끼 생산을 지난해에 비해 1.5배로 늘이고 고기는 6톤 이상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 토끼우리의 위생방역사업을 위해 2~3일에 한 번씩 자체로 생산한 메탄가스로 화염소독을 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생존율을 90% 이상으로 높였음.
- 토끼먹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앞산에는 칩을 심었으며 뒤산에는 아카시아 나무림을 조성하는 등 6정보의 풀판을 조성함.

○ 종합목장 건설 적극 추진(로동신문 9. 14)

- 자강도에서 강계시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강계종합목장 건설을 다그치고 있음.
- 강계종합목장은 구봉령지구와해남지구로 나뉘어 건설되며 각 지구 안의 골짜기를 따라 분장을 건설하고 풀판을 조성하여 집짐승 기르기에 이용함.
- 이 종합목장에서는 수많은 염소, 토끼, 돼지, 젖소 등을 길러 고기와 알, 젓과 젓 가공품을 생산하게 됨.

- 1,000여 정보를 차지하는 구봉령지구에 10개의 분장을 만들고 각 분장에는 집짐승 우리와 먹이창고, 먹이가공기지, 종업원을 위한 살림집을 건설함.
 - 해남지구에는 15개의 분장이 건설될 예정임.
 - 희천공작기계공장에서는 먹이 가공설비와 젓가공 설비를 제 때에 공급하기 위하여 설비제작을 서둘러 하고 있음.
- 덕을 보는 오리사업(로동신문 9. 16)
- 성진제강연합기업소의 한쪽에 자리 잡은 오리목장에는 종합가공장, 알깨우기장, 오리우리 등이 자리 잡고 있음.
 - 오리 목장에서 한 번에 생산되는 오리고기는 2톤 이상임.
- 토끼 기르기를 균중적으로(로동신문 9. 18)
- 안악군에서는 풀먹는 집짐승을 많이 길러 인민들의 고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가을부터 토끼 기르기를 적극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음. 그리고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모든 일꾼들이 가정에서 토끼 기르기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음.
 - 종축 토끼 마리수가 3배 이상 늘었으며 우량 품종 토끼 마리수는 7배나 늘어남.
 - 수십 톤의 토끼 고기와 많은 토끼 가죽을 생산하여 인민부대와 사회주의 건설장에 보내주었음.
- 당의 축산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민주조선 9. 23)
- 구성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축산정책을 실행하기 위하여 축산물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사업, 집짐승 겨울나기 준비, 먹이 가공방법 연구 등 여러 각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단천시 달전염소종축장에서는 종자혁명 방침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6월까지 올해 계획한 우량품종의 종자새끼 염소를 생산하여 시 안의 많은 단위에 보내줌.
 - 양평협동농장에서는 자른 집짐승과 함께 양기르기를 하고 있으며 령산, 장내협동농장들도 많은 양을 기르고 있음.
- 먹이 생산을 과학기술적으로(로동신문 9. 23)
- 구성닭공장에서는 가금 배설물을 균처리하여 집짐승먹이로 이용하기 위하여 균주

생산을 정상화하는데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 공장에서는 닭, 오리, 계사니, 토끼, 염소를 비롯한 집짐승 마리수를 대대적으로 늘이면서 이미 이룩한 연구성과에 기초하여 균 처리한 대용먹이의 이용범위와 비중을 높여가고 있음.
-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가금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알깨우는 작업에서 무인조종화를 실현하고 알깨우기 수율을 높이기 위한 발육기와 발추기 생산에 성공함.

○ 영양가 높은 겨울철 토끼먹이(로동신문 9. 23)

- 토끼기르기에서 겨울철 먹이 준비를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최근 과학자들은 겨울철 토끼 먹이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였음. 무잎이나 배추잎은 물론 각종 풀이나 도토리나무, 개암나무, 오동나무 등 넓은잎나무 잎을 미생물로 처리한 ‘청초프로피온산발효먹이’은 한겨울에 저장해놓고 토끼에게 먹일 수 있음.
- ‘청초프로피온산발효먹이’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1톤의 풀이나 나뭇잎을 발효처리하기 위하여 길이 2.5m, 너비 0.8m, 깊이 0.7m 정도 되게 땅을 판 다음 종균가루 20g을 50리터의 물에 타서 풀더미에 골고루 뿌려주면서 움에 푹푹 다져넣는다. (2) 그 위에 비닐박막 같은 것을 펴고 흙을 20cm 정도 덮고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밟아준다. (3) 9월의 날씨조건에서는 15일 정도 지나면 발효가 기본적으로 끝난다. (4) 잘 발효된 먹이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며 도토리나무잎은 황록색, 개암나무와 오동나무잎은 갈색을 띤다. (5) 이렇게 발효시킨 먹이를 겨울 동안 움의 한쪽 끝에서부터 먹일 만큼씩 꺼내 토끼나 염소, 양에게 먹인다. 먹이를 꺼낸 다음에는 먹이가 공기와 접촉하지 못하게 움을 잘 덮어주어야 한다.

○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757군부대의 축산기지 시찰(민주조선 9. 25)

- 김정일 위원장은 현철해, 리명수 대장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장성책, 황병서 부부장과 함께 조선인민군 757군부대의 축산기지를 시찰
- 축산기지에서는 염소와 토끼를 비롯한 풀먹는 집짐승을 기르고 있으며 최근에는 현대적 염소목장과 토끼목장을 건설하여 축산물 생산을 정상화함. 또한 고기가공장, 먹이가공장을 새로 건설하고 먹이첨가제 개발과 순종번식체계를 확립을 비롯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 축산기지들이 은을 낸다(로동신문 9. 28)

- 황해북도에서는 사리원시에 현대적인 돼지공장을 새로 건설하고 사리원닭공장을 개선하는 등 각 시, 군의 전문축산기지, 협동농장의 종축작업반, 비육분조를 통해 축산 발전에 힘을 기울이고 있음.
- 은파군, 연산군, 사리원시를 비롯하여 도 안의 많은 시, 군에서는 알곡먹이 비중을 낮추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클로렐라 생산기지를 매 협동농장과 축산기지를 가지고 있는 공장, 기업소마다 꾸려놓고 이를 이용하기 위한 사업이 한창임.

□ 축산 기술 동향

○ 가치 있는 연구 성과를(로동신문 8. 2)

- 현대적인 닭공장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
- 최근 가금업 부문에서 국가과학원 국가균주보존연구소 과학자들이 개발한 가금배설물 처리기술이 널리 도입되고 있음. 이 기술은 가금공장에서 먹이 문제를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음. 즉, 닭배설물을 미생물로 처리하면 집집승 먹이로 이용할 수 있음.
- 소화기관이 발달하지 못한 닭을 비롯한 가금의 배설물에는 채 소화되지 못한 많은 영양성분이 들어 있음. 강냉이에는 단백질이 7~9% 들어있지만 닭배설물을 미생물로 처리한 먹이에는 17% 정도 있음. 닭배설물을 미생물로 처리한 먹이를 섞어 먹인 돼지는 일반적인 먹이를 그냥 먹인 돼지보다 한 달 동안 무려 4kg이나 더 증체가 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 문제는 닭배설물에 들어 있는 독성을 없애고 나쁜 냄새를 없애는 것이 관건임.
-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미생물을 이용하여 닭배설물을 처리한 후 사료로 이용하면 돼지뿐만 아니라 오리, 소, 염소, 토끼 등도 기를 수 있으며 종전에 비해 먹이를 절반 이상 절약할 수 있음.

6. 농업기반 및 수해복구

□ 금년 8월의 집중 호우와 9월의 태풍 위파 영향으로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발생하였음. 8월의 무더기비로 22만 정보에 달하는 논밭이 침수, 유실, 매몰되었으며 9월의 태풍 피해로 13만 정보의 농경지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등 매우 심각한 수해 피해가 발생함. 이 뿐만 아니라 제방이 무너지고 농업시설물이 파괴되는 피해도 발생함에 따라 재산상의 손실이 막대함. 이 같은 농업기반 복구를 위하여 모든 자원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복구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도 완전하게 복구되지 않은 상황임.

□ 물 공급과 수해 예방

○ 개천-태성호물길관리소에서(민주조선 7. 24)

- 개천-태성호물길관리소에서 농촌에 더 많은 물을 보내주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일군들은 당면한 농작물 비배관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해나가는데 필요한 생명수를 원만히 보내주기 위한 조직사업을 추진함.
- 일군들은 산하지구 관개관리소에서 흙물길과 구조물에 대한 관리운영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며 물의 도중 손실을 줄이도록 하기 위한 지도사업을 강화하고 현지에 내려가 물공급 정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음.

○ 장마철 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 힘 있게 전개(민주조선 7. 31)

- 각지 농촌에서는 당면한 영농전투를 벌리면서 장마철 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전개하고 있음.
- 평양시에서는 저수지와 배수갑문의 수문과 권양시설의 상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위험 개소를 제때에 퇴치하였으며 농촌의 배수물길과 돌림물길 가시기를 끝냄으로써 농경지와 농작물을 보호할 수 있게 함.
- 금야군, 고원군을 비롯한 함경남도의 농촌에서는 노력과 기계수단을 집중하여 무더기비가 내려도 고인물을 제때에 뺐을 수 있게 배수로치기와 수십 개의 저수지

보강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평안북도의 룡천군에서는 백마-철산 물길의 룡천간선과 덕승, 신암지선 등의 보수 공사를 비롯하여 큰물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놓았으며 철산군에서는 9개 대상의 해안방조제를 보강함.
- 황해남도는 강하천 정리와 물길정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위험 개소들에 대한 예방대책을 빈틈없이 세워놓고 있음.
- 강원도에서는 원산시, 문천시, 천내군 등지의 배수갑문에 100여개의 배수문을 새로 제작 설치하였으며 고성군, 통천군, 안변군을 비롯한 시, 군에 50개소의 배수구조물을 보수보강하고 강하천도 말끔히 정리함.
- 평안남도의 농촌에서는 군중적 운동으로 짧은 기간에 320여 km의 물길정리를 완전히 끝냈음.
- 사리원시, 은파군, 황주군을 비롯한 황해북도에서도 배수갑문의 불량 개소를 보수하였으며 수십 km의 배수로치기를 하여 큰물피해를 막을 수 있게 함.

□ 물길공사

○ 물길굴뚝기에 힘을 집중(로동신문 8. 21)

- 미루벌물길공사장에서는 작업갱굴진이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음.
- 양강도, 강원도, 함경남도, 황해남도 여단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군과 돌격대원들이 미루벌물길공사장에 투입됨.

○ 미루벌물길공사장에서(로동신문 10. 9)

- 신의주대대, 삭주군대대, 삭주풍년광산대대를 비롯한 평안북도 여단 안의 모든 대대에서는 미루벌물길공사장에서 맨 먼저 굴뚝기를 끝내기 위하여 굴진 속도를 높이고 있음.
- 평안남도 여단의 북창, 신양, 평원, 성천군대대 일군들도 물길공사 중 가장 어려운 공사인 물길굴 뚝기에 모든 장비와 노력을 총동원하고 있음.

□ 간척사업

○ 대계도간석지 2호, 4호 제방 완공(로동신문 7. 15)

- 대계도간석지 2호, 4호 제방을 완공한 평안북도간석지건설관리국에서는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1호, 3호 제방 보강공사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평안북도간석지건설관리국은 제방보강공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2호 제방과 4호제방을 훌륭히 건설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과 시멘트, 강재, 연유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추진함.
- 다사간석지건설사업소, 로하간석지건설사업소, 다사기계화사업소, 장송간석지건설사업소, 석화간석지건설사업소, 보산간석지건설사업소, 청강기계화사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제방공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으며 공사기간 국가검열성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 일군들은 공사를 앞당기는데 적극 기여함.

□ 큰물 피해 복구사업

○ 힘차게 벌어지는 큰물피해 복구사업(로동신문 8. 11)

-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큰물피해 복구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최근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내린 무더기비로 인하여 황해북도와 평안남도, 강원도의 여러 군이 피해를 입었음.
- 농경지가 침수되거나 유실, 매몰되고 도로와 철길, 강둑, 살림집, 공공건물 등 많은 대상들이 커다란 피해를 입음.
- 국가계획위원회, 건설건재공업성, 금속공업성, 전력공업성, 석탄공업성, 국토환경보호성, 도시경영성에서는 피해복구에 필요한 물자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각 성에서는 내부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시멘트와 강재, 연유 등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조직사업을 진행하고 피해지역 주민에게 의약품을 비롯한 생활필수품을 보내주고 있음.
- 예상치 않게 큰물피해를 입은 곡산, 신평, 신계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파괴된 도로와 다리를 복구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침수된 농경지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도, 시, 군 일군들은 여러 지역에 내려가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방송선전차를 비롯한 선전선동 수단을 피해현장에 집중시켜 화선식 정치사업을 벌이고 있음.

○ 피해복구 투쟁에서 연일 성과를 이룩(로동신문 8. 12)

- 지난 8일부터 연속적으로 내리는 무더기비와 강한 비바람에 의해 황해북도 여러 지역이 피해를 입었음.
- 8월 10일 오전까지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황해북도는 수천세대의 살림집과 수백동의 공공건물이 물에 잠기거나 파괴되었으며 수천정보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음.
- 또한 10여개의 다리가 파괴되고 관광도로를 비롯한 중요 도로들이 끊기거나 돌사태 피해를 입었으며 전주대가 넘어져 신평군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전력공급과 통신이 중단됨.
- 자동차, 트랙토르, 굴착기를 비롯한 각종 룬전설비와 양수기, 전동기, 변압기 등 설비들이 물에 잠기고 수천마리의 짐짐승들이 떠내려감.
- 도당위원회를 비롯한 각 기관은 필요한 물자를 싣고 신평군과 곡산군을 비롯한 피해지역으로 달려가 복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민군 군인들도 주민을 도와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있음.
- 평산, 연산, 은파군을 비롯한 다른 시, 군들도 큰물로 피해를 입은 도로와 농경지를 복구하고 강하천 제방과 수로를 보강하고 있음.

○ 난관을 완강히 박차고(로동신문 8. 12)

- 기상관측자료에 의하면 며칠 전 은천군의 마두협동농장에는 하루에 250mm, 복두협동농장에는 175mm의 비가 내린 것을 비롯하여 군 안의 대부분 지역에서 분당 2~2.2mm의 무더기비가 내렸음.
- 이번 무더기비로 은천군은 수천정보의 논이 물에 잠기고 량담협동농장을 지나는 수로제방뚝이 터졌으며 농촌살림집과 공공건물이 무너짐.
- 복구를 위하여 군에서는 2일 동안 수만 m³의 흙과 돌을 운반하여 제방을 보강함.

○ 군의 역량을 총동원하여(로동신문 8. 13)

- 곡산군에서 모든 역량을 큰물피해복구사업에 집중하고 있음

- 최근 며칠 사이 군에서는 수백 mm의 많은 비가 내려 읍지구의 하천제방이 터지고 많은 살림집, 공공건물이 파괴되었으며 수천정보의 부침땅이 침수되고 매물, 유실되었으며 곡식들도 넘어짐.
 - 읍지구 기관, 기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 가두인민반원을 모두 동원하여 료전기재와 운반수단을 총동원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각 리에서는 모든 농장우너이 큰물피해를 입은 부침땅을 복구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음.
 - 정평군에서도 고인 물빠기 양수장을 만가동시켜 물에 잠겼던 벼와 강냉이 포기를 살려내기 위해 애쓰고 있으며 큰물로 밀려내려온 흙, 모래를 파내고 있음.
- 나라의 많은 지역이 무더기비로 큰 피해를 입었다(로동신문 8. 14)
- 은천군에서 갑자기 쏟아져 내린 무더기비로 수천정보의 논밭이 완전히 침수된 것을 비롯하여 황해남도에서는 수많은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살림집, 공공건물, 도로가 파괴됨.
 - 황해북도에서는 무더기비로 인하여 13,000여 정보의 농경지가 침수, 매물, 유실되었으며 특히 신평군, 곡산군, 신계군, 서흥군은 피해가 큼.
 - 양덕군, 신양군에서는 제방이 터졌으며 철도가 파괴되어 열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 것을 비롯하여 평안남도에서도 커다란 물질적, 인적 피해가 있었음.
 - 강원도의 회양군, 세포군, 천내군, 이천군에서는 2만여 세대의 살림집, 도로, 다리가 파괴되고 농경지가 침수되거나 매물되는 큰 피해를 입음.
 - 각 도와 시, 군에서는 큰물피해복구지휘부를 조직하고 복구 자재와 생활필수품을 우선 공급하고 있음.
- 무더기비와 큰물로 인한 피해복구사업에 역량을 총집중하자(민주조선 8. 14)
- 황해북도 신평군에서는 여러날 동안 들이닥친 무더기비와 강한 비바람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음. 일차적으로 파괴된 도로와 다리, 전력망과 통신선로를 복구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평안남도 양덕군, 신양군, 맹산군, 은파군에서는 피해를 입은 제방, 도로, 철길, 송전선, 농경지를 복구하고 있음. 또한 지난번 해일로 피해를 입었던 서해안지방의 해안방조제를 더 든든히 보강하기 위한 사업도 벌이고 있음.

○ 피해 계속 확대, 복구사업에 총동원(로동신문 8. 15)

- 초보적으로 집계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평양시는 1,870여세대의 살림집이 피해를 입고 송산-평양역, 락랑-서평양역 궤도전차의 운행이 중지됨.
- 군의 농촌에서는 많은 면적의 논밭과 물길, 양수장이 큰물과 고인물, 비바람으로 알곡 생산과 가을남새 생산, 축산물 생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음.
- 특히 논벼와 강냉이, 콩을 비롯한 알곡작물이 무더기비와 고인물의 피해로 후반기 생육에 크게 영향을 받아 생산 전망을 기대할 수 없게 됨.
- 계속 내린 무더기비와 락랑구역 두루섬이 물에 잠겨 수도의 남새 생산기지가 피해를 입을 것을 비롯하여 여러 농촌에서는 갓 씨붙임을 한 배추영양단지모와 무가 흙에 묻히거나 죽은 등 막심한 피해를 입어 다시 씨붙임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고 뒤그루 감자도 피해를 받아 많은 물질적 손실을 가져옴.
- 평양시농촌경리위원회의 일군들은 만경대구역과 형제산구역, 순안구역과 강남군을 비롯한 여러 피해지역으로 달려가 고인 물 빼기 양수기를 총 가동함.
- 수많은 농경지가 물에 잠긴 강남군과 락랑, 순안구역의 협동농장에서는 유실, 침수된 농경지에대한 복구사업을 진행하면서 비바람에 넘어진 논벼와 콩, 강냉이를 세우는 사업에 모든 농장원이 동원되었으며 협동농장에서는 가을남새 씨붙임을 다시 하기 위하여 씨앗을 준비하고 있음.

○ 무더기비로 인한 손실 막심하지만 신심을 가지고 피해복구예로!(민주조선 8. 15)

- 강원도에서는 최근 며칠째 계속 내린 무더기비에 의한 큰물피해를 많이 받음. 특히 회양군에서는 많은 살림집이 큰물에 떠내려가거나 파손되었으며 인명피해도 적지 않음. 금강군과 철원군에서는 무더기비와 폭우에 의해 많은 살림집이 산사태에 묻히었으며 다리와 도로도 파괴됨. 도에서는 계속 늘어나는 수재민을 안전한 곳으로 긴급 대피시키는 한편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피해복구사업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음.
- 속천군 안의 농촌들도 큰물피해를 입어 복구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최근 며칠 내린 비로 열두삼천농장을 비롯한 군 안의 여러 농장들의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곡식이 넘어지는 등 피해를 입음. 열두삼천, 칠리, 신평, 사산농장을 비롯한 피해 농장은 고인물을 빼내고 곡식에 묻은 흙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도 벌이고 있음.
- 곡산군에서는 수천정보의 부침땅이 침수되거나 유실되고 200여동의 살림집과 100

여동의 공공건물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큼. 침수 및 유실된 일부 농경지는 수확을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알곡 수확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 심한 큰물피해, 복구사업 활발(로동신문 8. 16)

- 기상수문국의 통보에 의하면 8월 7일 0시부터 8월 14일 18시까지 강수량이 북창군 796mm, 평성시 766mm, 덕천시 760mm, 서흥군 769mm로 최근 몇 년간 가장 높은 기록을 내고 있음.
- 최근 나흘 동안 강원도 금강군, 회양군, 창도군에서는 강수량이 무력 682mm, 745mm, 655mm나 되어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가져옴.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농작물 총 파종면적의 10%가 훨씬 넘는 농경지가 물에 잠겼으며 특히 곡창지대인 황해남도, 황해북도를 비롯한 서해안 협동농장들이 커다란 손실을 입었음.
- 평안남도에서는 2만여 정보의 논과 6,700여 정보의 강냉이밭, 황해남도에서는 14,000여 정보의 논과 6,000여 정보의 강냉이밭, 황해북도에서는 37,000여 정보의 논밭이 큰물에 의해 매몰, 유실되었거나 물에 잠기어 수확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당함.
- 전국적으로 30여개소의 저수지가 손상되었으며 450여 개소의 농업구조물이 파괴됨.
- 800여 개소에 600여 km의 하천제방이 큰물피해로 끊어졌거나 파괴됨.
- 200여 동의 양수장이 물에 잠기었고 10여 개소에 10km 구간의 해안방조제가 끊어졌거나 파괴됨.
- 전국적으로 8만여 세대의 살림집이 침수, 파괴되었으며 강원도와 황해북도에서는 각각 2만여 세대, 평안남도에서는 18,000여 세대, 특히 강원도 창도군에서는 7,000여 세대의 살림집이 파괴되거나 물에 잠김.

○ 무더기비와 큰물로 인한 피해막심, 복구사업 적극 추진(민주조선 8. 16)

- 8월초부터 계속 내리고 있는 무더기비는 평안북도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줌. 구장, 향산군에서는 큰물로 산에서 많은 토량이 밀려 내려와 도로가 파괴되었으며 의주군에서는 다리가 떠내려감.
- 염주, 선천군에서는 길거리 나무가 넘어지고 배수로가 메여 료전기재들의 운행에

지장을 주고 있음.

- 농업부문에서는 수많은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논밭에 흙과 모래가 쌓여 막대한 피해를 입음. 많은 농경지가 물에 잠긴 박천, 운전, 곡산군에서는 양수동력설비를 집중하여 부침땅을 복구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진행함.
- 룡천, 선천군에서는 물길 제방을 더욱 보강하고 큰물로 밀려 내려온 흙모래를 파고 있으며 철산, 염주군에서는 해안방조제 보수공사를 추진 중임.

○ 큰물피해를 가시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민주조선 8. 19)

- 신계군에서는 최근 며칠사이 내린 무더기비로 320여 동에 750세대의 살림집과 120여 동의 공공건물이 파괴됨. 또한 3,800정보에 달하는 농경지가 침수되고 매몰, 유실됨. 신계지방에서 오래 동안 살아오는 주민의 말에 의하면 이번과 같은 피해는 처음 보는 것이라고 함.
- 청단군 안의 일군들이 큰물피해복구를 위한 투쟁을 펼치고 있음. 한주일 동안 계속된 무더기비로 군 안의 수천정보의 농경지가 물에 잠기거나 매몰되고 신생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협동농장의 살림집이 파괴됨. 청단군과 연안, 배천군을 연결하는 도로의 화양천다리 입구가 심히 파괴되어 교통이 차단됨.
- 각 군의 인민위원회는 내부예비를 총동원하여 수해복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은 군 안의 협동농장 논밭에 깔린 감탕을 파내고 넘어진 곡식을 바로 세워 애써 가꾼 농작물을 원상태로 살려내기 위해 노력을 집중함.

○ 조선 각지에서 막심한 큰물피해(조선신보 8. 22)

- 8월 7일부터 연일 내린 무더기비로 인하여 강원도, 평안남도, 황해북도, 함경남도를 비롯한 여러 지방에서 막심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함.
- 수많은 살림집과 공장, 공장건물이 파괴, 침수되고 곡창지대의 농경지들이 유실되었으며 철길이 차단되는 등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인민생활이 큰 타격을 받음.
- 전국적으로 농경지의 11%가 침수, 매몰, 유실되었으며 88,400여 세대 살림집이 침수 파괴되었으며 인명피해도 확인되고 있음.
- 황해북도와 평안남도에서는 7일 동안 연 강수량과 거의 맞먹는 무더기비와 강한 폭우가 내려 25,000여 동의 살림집이 완전 또는 부분 파괴, 침수되었으며 각각 37,000정보, 27,000여 정보의 논밭이 침수, 유실, 매몰됨.

- 서해곡창지대인 황해남도에서는 무더기비와 강한 비바람으로 2만여 정보의 논밭이 피해를 입어 알곡 생산에 막대한 지방을 받게 됨.
 - 평양시에서도 8,200여 정보의 논밭이 매몰, 유실되거나 수확을 내다보기 어렵게 되었다고 함.
 - 강원도에서는 수천 정보의 논밭이 유실되었으며 27,700여 세대의 살림집이 파괴, 침수되었으며 특히 창도군에서는 7,000여 세대의 집이 파괴되었거나 물에 잠김.
 - 한국의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식량, 생활필수품, 약품 등 71억 원(약 8억 5,000만 엔) 상당의 긴급구호물품을 보낼 예정이라고 발표함.
 - 미국의 대외원조 총괄기관인 국제개발처(USAID)도 10만 달러(약 1,100만 엔) 상당의 물자를 2개의 비정부조직을 통해 긴급지원 할 것을 발표함.
- 큰물피해를 가시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민주조선 8. 22)
- 여러 날 동안 계속된 무더기비로 인하여 은천군은 전체 논면적의 77%가 완전히 물에 잠겼으며 966개소에 10,000m의 논뚝과 158개소에 2,600m의 수로뚝, 72개소에 630여m의 제방뚝이 터졌으며 86개소에 2,400여m의 도로가 끊어짐.
 - 또한 수많은 농장원의 살림집과 공공건물, 양수장이 물에 잠기었으며 특히 마두, 북두협동농장의 피해가 큼.
 -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비롯한 군의 일군들은 피해지역 주민에게 식량과 생활필수품을 마련하고 새 살림집을 짓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군대에서는 돌격대를 조직하여 복구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전국적 규모에서 큰물피해복구사업(조선신보 8. 24)
- 8월 7일부터 각지에 내린 무더기비로 인하여 막심한 큰물피해를 입은 조선에서는 복구사업이 벌어지고 있음.
 - 국가계획위원회, 건설건재공업성, 금속공업성, 경공업성을 비롯한 여러 성과 중앙기관에서는 피해복구에 필요한 시멘트와 강재 등의 자재를 피해지역에 우선 보장하고 있으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안착시키기 위한 사업을 벌임.
 - 조선적십자회는 16,000세대의 피해지역 주민에게 모포, 천막, 부엌세간, 물정화 알약 등 긴급구제물자를 배포하였으며 13,400여 명의 적십자 봉사자들은 피해주민의 생활을 안착시키기 위한 사업을 벌임.

- 피해가 큰 황해북도의 곡산, 신평, 신계, 서흥, 연산군에서는 주민들이 파괴된 살림집과 공공건물의 복구와 침수된 농경지 복구정리사업에 나서고 있음.
 - 평안남도과 강원도, 황해남도, 함경남도에서도 물에 잠겼던 논밭을 보장하는 한편 파괴된 도로와 다리를 복구하고 있음.
 - 평양시 농촌경리위원회는 강남군과 락랑구역, 순안구역 등 물에 잠긴 시 주변의 협동농장에 대한 물빼기 작업을 현장에서 지휘하면서 물에 잠기거나 비바람에 넘어졌던 논벼와 콩, 강냉이를 바로 세우고 남새 파종을 다시 하기 위한 대책을 세움.
- 큰물피해복구사업을 힘있게 다그친다(로동신문 8. 29)
- 금야군은 수해로 인해 파괴된 다리, 강하천제방 복구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임.
 - 군에서는 침수, 매몰되었던 농경지를 복구하기 위하여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총동원하여 침수된 논밭에 고인물 빼기를 마무리함.
 - 군 안의 협동농장은 탈곡장과 집집승 우리를 비롯하여 침수 및 파괴된 건물, 포전 도로와 관개망의 보수정비도 마무리 단계에서 힘있게 추진하고 있음.
 - 회양군에서도 침수, 매몰, 유실된 농경지에서 고인물을 뽑고, 감탕, 흙, 자갈 처리를 다그치면서 벼와 강냉이, 콩 등 농작물을 살려내기 위한 전투를 벌이고 있음.
 - 양수설비에 대한 보수정비를 앞세우고 물도랑 정비를 하면서 고인물을 뽑아내고 있음.
- 북측 수해복구 도와나서자(조선신보 8. 29)
- 남측과 해외동포들도 북측의 수해복구지원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음.
 - 남측에서도 북측의 수해 소식이 보도된 직후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원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동포들도 미국,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모금활동을 전개함.
 - 8월 24일 남측 당국은 북한 수해지원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374억 원 상당의 수해복구자재장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함. 주요 지원품목은 시멘트 10만 톤, 철근 5만 톤, 화물차 8톤 20대, 5톤 60대, 연료 500톤, 도로복구장비 20대 등임.
 - 대한적십자는 총 37억 원에 상당하는 생활필수품과 응급구호세트를 개성을 통해 북측에 전달함.
 -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는 협의회 소속단체들이 개별단체의 지원과는 별

도로 의약품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함.

- 북민협 단체의 회원 중 남북나눔운동은 4억 5,000만 원 상당의 생활필수품을 인천-남포 배편을 통해 지원하였으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도 5억 원 상당의 식량과 의류를 전달함.
- 굿네이버스, 한국JTS,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월드비전 등도 수해물자를 보냄.
- 월드비전은 1차로 200만 달러 상당의 긴급물자를 지원한 데 이어 2차로 250만 달러 규모의 물품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하고 있는 남한 기업 협의체인 개성공당기업협의회는 자발적으로 모금한 10만 달러 상당의 수해지원물자를 북한에 지원함.
- 세계식량계획은 향후 3개월간 6개도 37개 시, 군 이재민 215,000명을 대상으로 긴급 식량지원을 제공하기로 북한 당국과 합의함.
- 미국은 수해복구지원을 위하여 머시코와 사마리탄즈퍼즈를 통해 각각 5만 달러씩 지원함.
- 이 외 호주, 노르웨이, 중국 등도 북한의 수해지원을 추진함.

○ 애국의 마음안고 큰물피해복구사업을 힘있게(로동신문 8. 30)

- 녕변군에서는 큰물피해복구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녕변군에서는 큰물피해를 입은 구룡강제방을 다시 쌓고 물길을 정리하며 유실, 매몰되었던 농경지를 복구하고 있음.
- 동신군에서는 큰물피해를 입은 다리를 복구하기 위한 사업에 매진함.
- 동신군에서는 원흥리지구의 다리 복구를 위해 300명 규모의 돌격대를 조직하고 복구에 필요한 자재를 확보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많은 살림집을 복구(로동신문 9. 4)

- 채령군에서는 지난 8월에 내린 무더기비로 수천세대의 살림집과 농경지, 물길과 제방, 그리고 도로와 철길 등 큰 피해를 입었음.
- 군 안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은 합심하여 수천 정보에 달하는 침수된 농경지를 복구하고 넘어진 곡식을 세움.

- 물길과 제방, 도로와 철길 보수사업도 마감단계임.
- 큰물피해를 가시기 위한 각지 투쟁소식(로동신문 9. 6)
- 강원도에서는 지난 8월 큰물피해로 3만여 정보의 농경지가 유실, 매몰, 침수되고 양수설비와 트랙토르를 비롯한 많은 농기계가 파괴됨.
 -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파괴된 농경지를 원상복구하기 위하여 피해 토지에 대한 조사사업, 터진 저수지와 강하천 제방, 물길을 보수보강하기 위한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있음. 또한 큰물피해를 입은 시, 군에 일군들을 파견하여 피해정형에 따라 토지조사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토지관계 부문 일군들이 설계일군들과 합심하여 토지 복구설계를 하고 농경지 피해복구에 나서고 있음.
 - 큰물피해를 제일 많이 입은 회양군, 이천군, 철원군에서는 침수, 유실, 매몰된 농경지에 대한 복구사업을 진행하면서 저수지와 강하천 제방을 보수보강하고 있음.
 - 문천시, 판교군, 법동군, 천내군을 비롯한 도 안의 다른 시, 군에서도 모든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농경지에 대한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고 가을걷이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
 - 도에서는 큰물피해를 입은 협동농장에서 가을남새를 다시 심기 위한 작전도 동시에 진행하여 이미 많은 협동농장은 물길에 잠기었던 포전을 다시 갈아엎고 남새파종을 끝냄.
 - 청단군 청단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이번에 큰물피해를 심하게 입은 화양천 제방보수공사를 거의 마무리함. 지난 8월에 내린 무더기비로 이 농장구역에 위치한 화양천제방뚝이 여러 곳에 수십m나 터져나가면서 배수문까지 파괴되고 많은 면적의 농경지가 큰 피해를 입었음.
- 태풍 위파(Wipha)의 영향으로 인한 호우피해 막대(AFP 9. 21)
- 북한 중앙방송은 지난 8월 수해를 입은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호우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도함.
 - 북한 서해안을 강타한 태풍 위파는 평양을 비롯한 서해안 지역에 9월 18일부터 20일 사이 3일 동안 폭우가 내려 벼 등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였음.
 - 사리원시에는 하루 동안 200여mm의 비가 내린 것을 비롯하여 황해남도, 황해북도,

평안남도 일대에 최고 368mm까지 폭우가 내림.

- 9월 18일 오전 9시부터 20일 오후 3시까지 집계된 강우량은 평양 268mm, 장연 368mm, 은률 338mm, 룡연 314mm, 신천 309mm, 남포 335mm, 성천 254mm, 양덕 231mm, 맹산 228mm, 온천 226mm, 사리원 308mm, 황주 274mm, 신계 235mm, 서흥 229mm, 수안 226mm 등임.
- 이번 호우는 단 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려 남포시에는 9월 18일 오전 3시에서 6시 사이에 87mm, 오후 9시에서 자정까지 76mm가 내렸으며 황해북도 은파군에는 9월 19일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에 85mm, 황해남도 삼천군에는 9월 19일 오전 3시에서 6시 사이에 76mm의 폭우가 내림.

○ 태풍 위파로 농경지 10만9천 정보 침수(연합뉴스 9.24)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제12호 태풍 위파의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져 전국적으로 농경지 10만9천여 정보가 물에 잠기고 1만4천여 가구와 8천여 동의 공공건물이 파괴됐다고 24일 밝힘.
- 중앙통신은 “조선에서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내린 태풍 12호에 의한 폭우로 피해가 또 다시 발생했다”며 “이 기간에 평양시와 황해남도, 황해북도, 평안남도를 비롯한 서해안 지방의 강수량은 250~470mm에 달하고 특히 황해남도 은천군에 469mm, 재령군에 446mm, 태탄군에 410mm, 장연군에 397mm,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339mm, 평양시에 331mm의 많은 비가 내렸다”고 전함.
- 황해남도 인민위원회 문형수 국장은 24일 평양방송과 인터뷰에서 “지난 18일부터 21일 새벽까지 내린 무더기비는 황해남도에 큰 피해를 주었다”며 “도적으로 평균 300여mm나 되고 지난 8월에 제일 크게 피해를 보았던 은천군에는 근 500mm의 비가 내렸다”고 밝힘.
- 문 국장은 황남도 지역의 피해현황과 관련, “안악군에서 6천300여 정보, 은천군에서 5천200여 정보의 논이 침수된 것을 비롯해 도에서 3만2천여 정보의 논밭이 침수됐으며 그중 70정보의 논은 완전히 매몰돼 수확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함.
- 허창일 황해북도 사리원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도 평양방송과 인터뷰에서 “사리원시의 큰물피해 정형(실태)은 대단히 엄혹하다”며 “사리원시 안의 협동농장 70% 이상의 논밭 면적이 물에 침수되고 17일부터 벼가을(추수)을 시작한 논에서는 베어놓은 벼들이 물에 떠내려가 유실됐다”고 말함. 그는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서는 90%의 논이 물에 침수됐고 만금.신창협동농장을 비롯한 많은 협동농장에서 수로와

논둑이 유실돼 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소개함.

○ 큰물피해 복구사업 계속 힘있게 전개(로동신문 9. 22)

-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영향을 준 태풍은 여러 지역에 커다란 피해를 가져옴.
- 이 기간에 평양시와 평안남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에서는 200~360mm 이상의 비가 내렸으며 남포시와 은파군, 삼천군 등 일부 지역에서는 18일과 19일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70~80mm 이상의 무더기 비가 내림.
- 서해안의 일부 지방은 지난 8월 7일부터 14일까지 내린 강수량의 거의 50%에 가까운 양수량을 기록하고 있음.
- 재령군에서는 폭우로 인하여 재령강 물이 넘쳐 도로와 논밭이 물속에 잠기고 사리원시의 많은 농경지가 침수된 것을 비롯하여 황해남북도의 여러 시, 군에서는 알곡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됨.
- 8월의 큰물피해로 인해 평양-개성고속도로와 평양-원산관광도로를 비롯하여 파괴되었던 많은 구간의 도로들이 짧은 기간에 복구됨.
- 또한 강하천 제방, 침수 또는 매몰되었던 토지와 양묘장이 기본적으로 원상회복됨.

○ 태풍12호로 또 다시 폭우피해, 복구사업 활발(민주조선 9. 22)

-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태풍12호로 인해 평양시, 평안남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에서는 200~300mm 이상의 비가 내려 여러 지역에서 피해를 입음.
- 연탄군은 이번 비로 인해 송죽천 제방이 무너져 군 안의 공장, 기업소별로 분담하여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큰물피해 복구사업 힘있게 추진(로동신문 9. 26)

- 지난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여러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려 또다시 많은 인적, 물적피해를 가져옴.
- 9월 18일부터 21일까지의 강수량은 평양시, 남포시, 사리원시, 장연군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300mm 이상이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 사이 100mm에 가까운 무더기비와 함께 태풍이 들어 닥쳐 피해가 확대됨.
- 지금까지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13만여 정보의 농경지가 큰물피해를 입었으며 이 중 10만 정도의 농경지는 침수되고 26,000여 정보의 논밭은 곡식이 넘

어졌으며 많은 토지가 유실, 매몰됨. 특히 이 시기는 이삭이 한창 여물 시기여서 피해는 더욱 큼.

- 황해남도에서만 54,000여 정보의 논밭이 물에 잠기고 20,000여 정보의 곡식이 완전히 넘어졌으며 수백 정보의 농경지가 못쓰게 되어 수확이 어렵게 됨. 재령군, 은천군, 안악군, 장연군, 은률군, 신천군, 사리원시, 황주군, 은파군, 남포시, 온천군, 강서군 등 황해북도와 평안남도의 농촌도 사정은 마찬가지임.
- 전국적으로 70여개의 저수지가 손상되고 400개소의 농업구조물이 파괴되었으며 140여 동의 양수장이 물에 잠기고 40여 동의 양수장이 파괴됨. 300여 개소에 100여 km의 중소하천과 17개소 수 km 구간의 해안방조제, 900개소 140 km의 관개물길, 130여 개소 20km의 도로가 끊어지거나 파괴됨. 190여 개소의 수천m의 보가 손상되고 70여 동의 생산건물이 파괴되었으며 수백 대의 양수기와 전동기, 변압기가 물에 잠겨 가동할 수 없게 됨. 이 밖에도 농업생산에 필요한 설비, 자재, 구조물, 저수지들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됨.

○ 예성장 제방 보수공사 힘 있게 추진(로동신문 10. 10)

-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기간을 맞아 평산군에서는 예성장 제방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음.
- 평산군 당위원회에서는 큰물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협의회를 열고 지난 장마철 피해를 입은 예성장의 제방을 보수하기로 결정함.
- 군에서는 제방 보수공사를 짧은 기간에 마무리하기 위하여 공장, 기업소를 비롯한 모든 단위에서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음.

○ 강하천 제방공사에 힘을 집중(로동신문 10. 13)

- 금강군에서는 강하천 제방공사를 벌려 수천m의 제방을 복구하는 성과를 거둠.
- 지난여름 수해로 인하여 금강군에서는 130여 개소의 강하천 제방이 파괴되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면적의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살림집과 공공건물이 피해를 입음.
- 군에서는 강하천 정리계획을 세우고 공장, 기관, 기업소에 대해 담당구간을 정해주고 짧은 기간에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함에 따라 짧은 기간에 큰 성과를 거둠.
- 군에서는 먹포천의 큰물피해 복구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5만여m³의 돌을 날라다 수천m의 구간에 쌓는 성과를 거둠.

7. 산림

□ 산림부문에서는 여름의 큰물 피해로 인한 복구와 겨울철 통나무 생산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또한 경제림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강조하고 있음.

□ 임업정책

○ “림업발전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민주조선 8. 10)

- 임업부문의 강령적 지침인 “림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를 발표한지 15돛을 맞이하였음.
- 임업은 나라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없어서는 알 될 통나무를 비롯한 임산물 생산을 보장하는 채취공업의 한 부문임.
- 통나무 생산을 늘이는 데 중요한 것은 주체적인 임산공업 방침인 순환식채취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임. 이를 통해 나라의 산림자원을 보호증식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노력과 설비, 자금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임산물 생산을 끊임없이 늘리고 임업노동자에게 안착된 생활조건을 보장해 줄 수 있음.
- 순환식채취방법은 본질에 있어서 나무베기를 계획적으로 하여 통나무 생산에서 투기성을 없애는 것임. 순환식채취 계획을 수립할 때는 순환구역과 채벌구 구획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나무베기와 사이나르기, 마감나르기와 같은 통나무 생산과 관련한 기술공정을 과학적으로 규정하며 나무를 벤자리에 다시 나무를 심어 키우기 위한 대책, 임산마을의 형성 규모와 위치, 후방기지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함.
- 통나무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겨울철 통나무 생산전투를 잘 조직해야 함. 겨울에는 나무에 수분이 적고 숲이 무성하지 않으며 산에 눈이 덮여 있기 때문에 나무를 베기도 좋고 끌어내리기도 편리함.
- 목재를 종합적으로,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거둬물을 높이고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목재가공기지를 꾸리며 목재 소비기준을 바로 정하고 목재를 절약하기 위한 운동을 펼쳐야 함.

- 목재 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공장, 기업소는 생산공정의 기술개선을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자투리 나무에 이르기까지 목재 부산물을 철저히 이용하며 여러 가지 목재 가공품과 목재화학제품을 생산해야 함.
-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은 임업을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함. 임업부문에서는 “나무를 한 대 베고 열대 십자!”라는 구호를 새기면서 산림조성사업을 실속있게 해나가야 함.

□ 산림조성

○ 천연정보의 경제림을 새로 조성(민주조선 7. 24)

- 길주군공업림경영소의 일군들과 산림감독원은 올해에 들어와 천연 정보의 경제림을 새로 조성함.
- 이들은 온천, 목성, 춘흥 지구에 빨리 자라며 경제적 수요가 높은 이깔나무, 평양뽕뿌라나무, 아카시아나무, 평양단풍나무, 수유나무림을 대대적으로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봄철 국토관리총동원 기간에 군 안의 전체 일군들과 근로자, 청소년 학생들과 함께 나무심기를 추진하여 500만 여 그루의 나무를 심는 성과를 거둬.

○ 잣나무 숲이 늘어난다(로동신문 9. 20)

- 김정숙군의 산과 들에 잣나무 숲이 늘어가고 있음.
- 지금부터 30여 년 전 풍양중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170정보의 잣나무를 조성하여 가꾸어 지금은 1,400정보로 늘림.
- 군공업림경영소에서는 양묘장의 육종체계를 수립하여 좋은 나무모를 계획적으로 키워내고 있음.
- 풍양, 원룡, 황목, 저풍협동농장에서는 자체적으로 3,500정보의 잣나무림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해마다 10만 그루의 나무모를 심어 잣나무 숲을 늘려나가고 있음.

○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더 많이(로동신문 9. 22)

- 형제산구역산림경영소에서는 구역 안의 모든 산을 푸르게 하고 거리와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나무모 생산에 열중하고 있음.
- 형제산구역산림경영소에서는 나무모 생산에 여러 가지 앞선 기술을 받아들여 종자의 허실을 막고 그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는 한편 이깔나무, 잣나무, 단풍나무, 오동나무, 수삼나무 등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생산하고 있음.

□ 임업생산

○ 겨울철 생산준비와 큰물피해복구를 동시에(로동신문 8. 19)

- 임업부문도 최근 며칠 동안 내린 무더기비와 큰물 피해를 받음.
- 립업성의 초보적인 자료에 의하면 폭우로 파괴된 자동차 길은 100km, 트랙토르 길은 130여km에 달함.
- 또한 다리 175개소, 물동 9개소, 살림집 62동, 공공건물 8동이 파괴되고 나무모밭이 10.8정보나 유실됨.
- 특히 평안남도과 함경남도 임업관리국 소속의 임산, 갯목 생산사업소에서는 자동차길, 트랙토르길, 소밭구길, 살림집, 생산건물이 형체 없이 파괴되고 물동과 다리가 떠내려감.
- 함경남도 임업관리국 안의 정평갯목생산사업소, 덕성림산사업소, 검덕갯목생산사업소, 단천갯목생산사업소들은 근 10km의 자동차, 트랙토르 길이 파괴되고 37개의 다리가 떠내려감.

○ 겨울철 통나무 생산 준비를 실속 있게(로동신문 9. 20)

- 121호 임업연합기업소에서는 겨울철 통나무 생산에 앞서 순환식 채벌 구역에 따른 생산 준비에 여념이 없음. 연합기업소에서는 철길 보수 및 건설, 임철기관차와 대차수리 등 생산준비를 하면서 내부예비를 최대한 동원하고 있음.
- 삼수임산기업소에서는 산관도로를 새로 내거나 보수하는 공사를 비롯하여 겨울철 통나무 생산 준비를 하고 있으며 부전임산기업소에서는 ‘풍년’호, ‘천리마’호 트랙토르, 자동차, 임철기관차 수리를 재촉하고 있음.

- 압록강류별사업소에서는 통나무 생산을 더 많이 하기 위하여 타리개를 비롯한 때를 못는데 필요한 자재 생산 준비를 하고 있음.
- 연합기업소 자재상사의 일꾼들은 기계톱, 트랙또르, 임철기관차를 비롯한 설비의 이용률을 높이는데 필요한 베어링, 차륜, 전기부속품들을 사업소에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음.

8. 기타 작물

□ 과수, 양잠, 유지작물, 버섯, 약초 재배에 대한 보도가 있었으며 특히 가을철 약초재배 월간을 맞이하여 약초의 채취 및 파종에 많은 군중을 동원하고 있음.

□ 과수

○ 수도 시민들에게 공급될 올해 첫물과일 도착(로동신문 7. 14)

- 수도 시민들에게 공급할 올해 첫물복숭아들을 실은 과일수송대가 7월 13일 평양에 도착함.
- 과일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과일나무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올해에도 좋은 작황과 결실을 마련함.
- 평양에 도착한 과일은 시안의 탁아소, 유치원들과 상업봉사망에 공급됨.

□ 양잠

○ 누에고치 생산에 큰 힘을(로동신문 7. 11)

- 자강도 안의 고치생산사업소들에서는 누에고치 생산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투쟁을 벌이고 있음.
- 사업소에는 100여동의 큰누에치기가설막을 새로 건설하고 뽕밭 비배관리와 봄누에치기를 기술적 요구대로 진행하고 있음.
- 고평군고치생산사업소에서는 작업반마다 20톤 능력의 흙보산비료 생산기지를 세우고 많은 어린누에 잠실과 수백동의 큰누에치기가설막을 새로 건설함.
- 사업소에서는 뽕밭의 지력을 높이고 뽕나무모 생산기지에서 생산한 나무모와 함께 가지휘묻기 방법으로 수백정보의 뽕밭을 밀식 뽕밭으로 만들고 뽕밭비배관리를 잘 하여 뽕잎생산을 높였음.

□ 유지작물

○ 땅콩농사를 본때 있게(로동신문 8. 18)

- 개천시 삼봉협동농장에서는 땅콩농사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농장에서는 땅콩농사에 유리한 청천강 유역의 모래메흙땅을 적지로 정하고 많은 면적에 땅콩농사를 시작하였으며 청년들로 구성된 2개의 땅콩분조를 조직함.
- 땅콩밭 군데군데 병해충예찰초소를 세워 예찰예보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농약뿌리기를 철저히 하여 병해충 피해를 막고 땅콩밭 비배관리에 힘씀.

○ 땅콩농사에도 힘을 실어(민주조선 9. 13)

- 연안군 도남협동농장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여러 정보의 땅콩을 심음.
- 책임성과 기술수준이 높은 농장원들로 조직된 땅콩전문분조를 조직하여 식물성 농약을 포기마다 살포하는 등 병충해 방제에서 비배관리에 이르기까지 기술적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였으며 농장에서는 필요한 지원을 보장함.

□ 버섯

○ 사철 버섯을 재배(로동신문 8. 4)

- 구장군 신흥협동농장의 버섯분조는 태양열을 이용하여 1.5톤의 버섯을 생산하여 농장원들에게 공급함. 올해 여름철에는 3톤의 버섯을 생산할 목표를 세우고 정성을 다고 있음.
- 이들은 자체로 버섯 종균을 생산하고 자연상태의 버섯포자도 채취하여 조직배양방법으로 버섯을 재배하는데 성공함.
- 버섯분조는 해마다 5월에 야외포전에 접종한 버섯을 8월까지 여름내 생산하고 9월에 온실에서 접종한 버섯은 다음해 4월까지 재배하여 식생활에 이용하고 있음.

□ 약초

○ 약초재배 월간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자(민주조선 9. 12)

- 북한은 9월과 10월을 약초재배 월간으로 삼고 있으며 약초를 심고 가꾸는 것은 고

려약 자원을 풍부히 하고 인민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애국사업으로 선전하고 있음.

- 약초 채취에 많은 군중이 동원되기 때문에 약초 품종과 약초 채취와 관련한 기술적 문제를 정확히 알려주고 약초 채취 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교육함.
- 뿌리채 캐는 약초는 씨가 다 여문 다음에 종자를 받고 캐야하며 잎이나 줄기, 열매 약초들은 뿌리를 다치지 말고 채취해야 함.
- 약초를 완전히 캐지 말고 한 뿌리를 캐면 두 뿌리, 세 뿌리를 심는 원칙을 지킴으로써 약초자원을 계속 늘여나아가야 함.
- 보건부문과 협동농장의 전문약초생산단위에서는 약초자원 조성계획을 세워 어김없이 집행해나가야 함.

○ 가을철 약초 재배월간사업에 떨쳐나가자(로동신문 9. 25)

- 상원군 소재지로부터 10여리 떨어진 골 안에 상원군약초관리소 종업원들이 가꾸는 10여 정보의 약초밭이 있는데 곽향, 산토닌쑥, 소회향, 단너삼, 찔광이, 산수유 등 많은 약초, 약나무 열매를 수확하여 군 고려약공장에 보내고 있음.
- 해마다 정보당 30톤의 거름을 내기 위하여 주변에 축산기지를 만들어 여기서 나오는 배설물로 일정 양의 거름을 생산함.
- 상원군약초관리소 마당에는 60여종의 약초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약초견본포첩’을 만들어 놓고 있음.
- 철산군관개관리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관리소 주변에 복숭아나무와 살구나무를 가꾸어 살구씨와 복숭아씨를 수집하여 군중약초수매계획에 이바지하고 있음.

○ 약초채취와 재배사업을 균중적 운동으로(민주조선 10. 14)

- 삭주군에서는 9, 10월 약초재배월간에 더 많은 약초를 채취하고 재배하기 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음.
- 군인민위원회에서는 보건기관 책임일군들의 협의회를 열고 해당 단위에서 약초 품종을 정확히 알려주고 약초 채취과제를 명백히 하여 성과를 거두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에서는 거두어들인 약초를 보관,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한편 약초밭을 새로 조성하여 더 많은 약초와 약나무를 심고 재배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함.

- 군 안의 약초 생산단위에서는 약초밭의 면적을 늘리고 지력을 높이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학교와 협동농장을 비롯한 해당 단위에 약초와 약나물을 보내주어 약초재배사업을 군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9. 기타 보도 동향

- 화학비료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여름철 풀베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함.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개선 소식과 함께 김정일 위원장의 현지지도 소식을 전함. 이 밖에 전국의 각지에서 농촌 살림집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함.

- 현지지도
 - 개교 60돐을 맞은 원산농업대학(로동신문 7. 17)
 -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원산목장을 현지지도하면서 집짐승먹이생산용 복합 미생물에 대한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원산농업대학 교원학자들의 연구성과에 대해 노고를 치하함.
 - 원산농업대학은 2007년 과학연구목표를 동해안의 과학농사를 위한 종합적인 영농 체계 확립과 세포등판에서의 18,000여 정보의 풀관조성을 위한 연구사업 등 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과 첨단과학기술을 농업생산에 도입하기 위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설정함.

- 풀베기
 - 평산군당위원회는 풀베기에 역량을 집중(로동신문 7. 19)
 - 평산군당위원회는 논밭의 지력을 높여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해서는 풀베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군당위원회, 군인민위원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비롯한 군급기관의 일군들이 풀베기전투목표를 세우고 모두가 풀베기 실적을 높이도록 조직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풀베기사업은 농장원뿐만 아니라 군자동차사업소, 평산직물공장을 비롯한 군 안의 공장, 기업소종업원들과 가두인민반원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음.

○ 적기에 많은 풀을 베어 들인다(민주조선 7. 22)

- 신원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많은 풀을 베어 부침땅을 걸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화석, 룰라, 신덕협동농장의 작업반, 분조에서는 규모가 큰 퇴적장을 만들어 놓고 노력과 운반수단을 총동원하여 매일 많은 풀을 베고 있음.
- 농장에서는 베어들인 풀을 잘 썬이기 위하여 진거름, 소석회 등을 기술적 요구대로 섞어가며 제때에 더미를 쌓도록 하고 있음.
- 위원군 어곡협동농장에서도 작업반들이 산기슭과 포전가까이, 집짐승우리주변에 여러 가지 크기의 퇴적장을 만들어 풀베기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음.

○ 룡림군 구룡협동농장에서도 풀베기에 역량을 집중(로동신문 7. 23)

- 구룡협동농장의 작업반에서는 농장원들에게 풀거름 생산과제를 정확히 주고 실적에 대한 평가사업을 매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작업반에서는 베어들인 풀을 제때에 작업반 비육분조의 퇴적장과 매 농장원 세대에 만들어 놓은 퇴적장에 날라다 쌓고 있음.

○ 풀더미가 높아간다(민주조선 7. 24)

- 김정일은 7월과 8월은 풀베기를 해야 할 시기임을 강조하고 전국적으로 풀베기를 통해 자급비료를 생산하도록 함.
- 강원도 통천군에서는 풀베기에 앞서 보여주기 사업을 조직하고 모든 협동농장에서 풀베기에 필요한 소농기구와 운반수단, 퇴적장 준비를 철저히 갖추도록 함. 풀베기에는 구읍, 미평, 명고, 로상, 룡수협동농장이 앞서 나가고 있음.
- 황해남도 배천군 신월협동농장 농장원들은 작업장에 도착하자마자 그날의 과제인 김매기에 달라붙어 풀거름을 생산함. 연백벌에 자리잡고 있는 농장은 풀 원천이 많지 않기 때문에 때를 놓치고 나면 풀거름을 생산하기 곤란함. 풀 원천이 적은 작업반은 상대적으로 풀 원천이 많은 작업반 구역으로 풀베기 노력을 이용시키고 여러 곳에 퇴적장을 만들어 놓고 모든 농장원이 짬짬이 풀을 베어 쌓아 놓도록 함.

○ 풀베기전투장에 나래치는 혁신의 기상(로동신문 8. 5)

- 순천시에서 풀씨가 앓기 전에 더 많은 풀을 베어들이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

지고 있음. 시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시농근맹위원회에서는 풀베기의 성과를 올리기 위하여 협동농장별, 작업반별 사회주의 경쟁을 조직하고 시 안의 농근맹조직을 적극 발동하여 풀베기전투를 벌이고 있음.

- 철산군 안의 협동농장에서는 풀베기에 힘을 집중하여 매일 많은 풀을 베고 있음. 가산, 동평, 선주협동농장은 풀거름 원천을 찾아 경쟁적으로 풀을 베고 있음. 보산, 검암, 련수, 명암협동농장에서는 트랙도르를 비롯한 운반수단을 동원하여 풀거름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그날 베어낸 풀을 그날로 집짐승우리에 넣어 밟혀내고 있음.
- 황해남도의 은률, 신원, 태단, 신천, 배천 등 각 군에서는 농장별 사회주의 경쟁을 조직하고 풀베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풀베기를 힘있게 다그친다(민주조선 8. 10)

- 연산군 안의 송산, 대평, 반천, 신락협동농장은 지난해보다 풀거름 생산목표를 더 높이 세우고 노력과 수송수단을 풀베기에 집중시켜 계획보다 더 많은 풀을 베어들고 있음.
- 은률군 장련협동농장은 지난해의 같은 시기에 비해 1.5배의 풀을 베어 트랙도르와 부림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베어놓은 풀을 공동퇴적장과 세대별 퇴적장에 실어다 쌓고 있음.

○ 풀베기를 균중적으로 힘있게(민주조선 8. 21)

- 자강도 안의 협동농장에서는 풀베기를 균중적으로 벌여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올해 풀거름 생산목표를 높이 세우고 노력과 운반수단을 집중시킴으로써 도 안의 협동농장은 매일 수만 톤의 풀을 베어들고 있음.
- 송원군, 초산군, 고평군, 화평군, 량림군, 동신군, 룡림군, 자성군의 협동농장은 작업반 사이, 분조 사이에 사회주의 경쟁을 조직하여 풀베기를 경쟁적으로 함으로써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함.
- 베어낸 풀은 산골짜기와 산기슭에 전개한 집짐승 이동방목 우리에 넣어 밟혀냄으로써 질 좋은 풀거름을 생산하고 있음.

□ 농자재

○ 식물성 농약을 적극 이용(로동신문 8. 8)

- 안변군 읍협동농장에서는 식물성 농약을 적극 이용하여 병해충의 피해를 미리막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 있음.
- 이 농장에는 몇 해 전에 자체적으로 건설한 식물성 농약 생산기지가 있음.
- 이 농장에서 만드는 식물성 농약의 원료는 주로 썩을 비롯하여 인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들임.

○ 김정일 위원장 홍남비료련합기업소 현지지도(로동신문 8. 12)

- 김정일 위원장은 새로 개건된 비료생산공정을 돌아보면서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비료생산공정을 현대적으로 개건한 데 대해 기업소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 그리고 개건 사업을 도와준 국가과학원, 과학원 함흥분원, 함흥화학공업대학, 룡성기계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지원단위의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의 노력을 치하함.
- 새로 개건된 비료생산공정은 전력을 절약하고 공해를 방지하면서 비료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게 됨.
- 김정일 위원장은 의식주 문제에서 기본을 이루는 식량문제를 해결하자면 농업을 적극 발전시켜야 하며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비료를 많이 공급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비료는 곧 쌀이고 쌀은 곧 사회주의이다.”라고 한 김일성의 명제를 가슴에 새겨야 한다고 강조함.

○ 새로 개건된 홍남비료련합기업소 비료생산공정 조업식 진행(로동신문 8. 31)

- 새로 개건된 홍남비료련합기업소 비료생산공정 조업식이 8월 30일 거행됨.
- 이에 앞서 김정일 위원장은 8월 7일 홍남비료련합기업소를 방문하여 현지지도함.
- 조업식에서는 홍남비료련합기업소 비료생산공정 개건공사에 참가한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와 일군을 치하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감사문을 소개함.

○ 생물농약을 적극 이용(로동신문 9. 1)

- 온천군에서는 최근 생물농약 생산을 더욱 늘여 병해충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미리 막고 있음.

- 온천군에서는 몇 년 전부터 생물농약을 생산하여 이용하고 있음.

□ 농촌복지

○ 농촌문화회관의 본보기로(로동신문 8. 8)

-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의 문화회관 개건 공사가 마감단계임.
- 지난해 12월 김정일 위원장이 이 농장을 방문하여 농촌에서도 도시에서처럼 문화정서생활을 할 수 있게 그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문화회관 개건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음.
- 미라산 기슭에 현대적으로 개건되는 미곡협동농장의 문화회관은 원래의 회관보다 좌석수가 훨씬 늘어나게 되고 무대도 화려하게 장식함.

○ 평양시의 주변농촌들에서(로동신문 9. 23)

- 평양시는 주변 농촌 지역에 천 여 세대의 살림집을 새로 건설하고 천 여 세대의 살림집을 개건 보수할 계획임.
- 평양시에서는 유치원과 탁아소, 병원, 목욕탕, 상점, 작업반의 공공건물을 비롯한 수백 동에 달하는 건물을 새로 건설하거나 개건 보수하여 농촌마을을 변모시키고자 계획함.
- 시 주변 농촌에 건설되는 살림집은 여러 칸의 살림방과 전실, 부엌, 창고, 세면장이 있으며 집집승우리와 온실, 메탄가스탱크까지 갖추고자 함.
- 농촌살림집 건설에는 순안구역과 형제산구역, 사동구역, 강남군, 락랑구역이 앞서가고 있음.

농업 교류협력 동향

-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2. 교류협력사업 동향
 3.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2.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단체 동향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 6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07년 6월 중 남북교역액은 15,524만 달러로 전년 동월 12,945만 달러에 비해 19.9% 증가하였음(전월 15,192만 달러 대비 2.1% 증가)
- 반입은 5,738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3,559만 달러에 비해 61.2% 증가하였음.(전월 6,339만 달러 대비 9.4% 감소)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9.8%, 농림수산물 28.2%, 광산물 20.2%, 철강·금속제품 20.2%, 전기전자제품 12.6% 등임.
- 반출은 9,785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9,385만 달러에 비해 4.3% 증가하였음(전월 8,853만 달러 대비 10.5% 증가)
 - 품목별 구성은 화학공업제품 22.2%, 농림수산물 26.4%, 섬유류 14.0%, 철강·금속제품 8.8%, 전기·전자제품 14.5% 등임.

□ 6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07년 6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1,618만 달러로 전월 1,754만 달러 대비 7.8% 감소하고 6월 전체 반입액 5,738만 달러의 28.2%를 차지했음.

* 통일부 교류협력국에서 발간하는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과 통일부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재정리한 것임.

- 반입 농림수산물인 마늘·고사리 등 농산물이 482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8.4%), 로알제리 등 축산물이 3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1%), 기타 조개 등 수산물이 1,132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19.7%)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07년 6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2,586만 달러로 전월 478만 달러 대비 441.0% 증가하였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쌀·마늘 등 농산물이 2,553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26.1%), 소시지 등 축산물이 1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01%), 수목류 등 임산물이 16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2%), 어패류 등 수산물이 16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2%)를 차지했음.

□ 7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07년 7월 중 남북교역액은 18,356만 달러로 전년 동월 10,975만 달러에 비해 67.2% 증가하였음(전월 15,524만 달러 대비 18.2% 증가)
- 반입은 7,841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6,392만 달러에 비해 22.7% 증가하였음.(전월 5,738만 달러 대비 36.6% 증가)
 - 품목별 구성은 석유류 15.1%, 농림수산물 24.5%, 광산물 16.2%, 철강·금속제품 33.3%, 전기전자제품 5.7% 등임.
- 반출은 10,514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4,583만 달러에 비해 129.4% 증가하였음(전월 9,785만 달러 대비 7.5% 증가)
 - 품목별 구성은 광산물 22.9%, 농림수산물 21.0%, 석유류 18.8%, 기계류 10.0%, 전기·전자제품 10.0% 등임.

□ 7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07년 7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1,924만 달러로 전월 1,618만 달러 대비 18.9% 증가하고 7월 전체 반입액 7,841만 달러의 24.5%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은 마늘·고사리 등 농산물이 563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7.2%), 건축용목제품 등 임산물이 7,000 달러(전체 반입액의 0.008%), 기타 조개 등 수산물이

1,360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17.4%)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07년 7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2,206만 달러로 전월 2,586만 달러 대비 14.7% 감소하였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쌀·마늘 등 농산물이 2,165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20.6%), 소시지 등 축산물이 2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01%), 기타 목재류 등 임산물이 16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2%), 어패류 등 수산물이 22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2%)를 차지했음.

□ 8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07년 8월 중 남북교역액은 15,340만 달러로 전년 동월 10,768만 달러에 비해 42.4% 증가하였음(전월 18,356만 달러 대비 16.4% 감소)
- 반입은 5,958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5,474만 달러에 비해 8.8% 증가하였음.(전월 7,841만 달러 대비 24% 감소)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29.4%, 농림수산물 22.7%, 광산물 16.8%, 철강·금속제품 21.6%, 전기전자제품 4.5% 등임.
- 반출은 9,381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5,294만 달러에 비해 77.2% 증가하였음(전월 10,514만 달러 대비 10.8% 감소)
 - 품목별 구성은 화학공업제품 7.7%, 농림수산물 31.6%, 섬유류 30.1%, 기계류 10.1%, 전기·전자제품 7.5% 등임.

□ 8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07년 8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1,353만 달러로 전월 1,924만 달러 대비 29.6% 감소하고 8월 전체 반입액 5,958만 달러의 22.7%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은 마늘·고사리 등 농산물이 568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9.5%), 로알제리 등 축산물이 2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03%), 기타 조개 등 수산물이 781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13.1%)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07년 8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2,960만 달러로 전월 2,206만 달러 대비 34.1% 증가하였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쌀·마늘 등 농산물이 2,925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31.2%), 소시지 등 축산물이 15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2%), 기타 목재류 등 임산물이 15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2%), 어패류 등 수산물이 3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03%)를 차지했음.

표 1 2007년 6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 목	중 량(kg)	금 액(천달러)	구 성비	품 목	중 량(kg)	금 액(천달러)	구 성비
농산물	2,359,784	4,826	8.4	농산물	16,964,829	25,530	26.1
쌀	100,000	59		쌀	13,572,812	20,874	
강낭콩	47,720	23		감자	66,558	122	
들깨	369,200	406		밀가루	85,617	187	
마늘	616,551	1,430		바나나	250	0	
기타채소	138,415	248		오렌지	76	0	
고사리	181,360	1,140		수박	2,083	7	
죽순	1,620	3		토마토	5	0	
표고버섯	85,438	666		호박	22,000	3	
기타버섯류	23,984	191		양파	590	3	
밤	38,000	35		마늘	748,945	1,446	
기타견과류	41,280	24		기타채소	140,082	244	
기타산식물	4,601	33		기타화초	266,400	142	
식물성환약제	209,865	379		기타산식물	1,121,196	445	
맥주	9,000	8		사료	125,005	70	
기타주류	28,795	71		고추장	36,434	331	
물	401,880	57		마요네스	7,381	17	
면류	16,530	15		기타소스류	2,103	9	
기타농산가공품	45,545	36		커피조제품	114,462	228	
				녹차	750	1	
				제조담배	9,036	157	
				소주	720	2	
				맥주	12,848	10	
				위스키	4,278	156	
				기타주류	1,061	9	
				정당	98	0	
				기타음료	701	3	
				비스킷	2,670	16	
				곡류가공품	71	0	
				빵	36,890	71	
				면류	139,784	364	
				빙과류	45	0	
				기타농산가공품	443,878	613	
축산물	16,000	33	0.1	축산물	10,467	16	0.01
로얄제리	16,000	33		쇠고기	21	0	
				돼지고기	1,120	4	
				소시지	8,116	10	
				기타낙농품	1,210	2	
임산물	-	-	-	임산물	245,702	160	0.2
				합판	4,619	7	
				섬유판	480	1	
				건축용목제품	1,476	3	
				목제장식품상자	81	10	
				기타목제품	154,926	96	
				수목류	84,120	43	
수산물	3,008,407	11,322	19.7	수산물	89,233	161	0.2
명태	4,172	6		기타어류	13,711	10	
새우	116,600	1,105		기타계	5,616	16	
문어	90,406	372		오징어	30	0	
낙지	12,722	29		문어	26,901	80	
기타조개	994,071	1,113		기타조개	10,800	15	
기타연체동물	406,313	780		기타연체동물	24,500	25	
기타해조류	11,460	15		기타수산가공품	7,675	14	
기타연장수산물	15,175	28					
건조수산물	531,148	4,610					
기타수산가공품	765,398	2,819					
기타수산물	60,942	445					
합 계	5,384,191	16,181	28.2	합 계	17,310,231	25,868	26.4

주 :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92호(2007.6.1~6.30).

표 2 2007년 7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입				반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2,186,408	5,636	7.2	농산물	52,904,692	21,652	20.6
대두	200,000	140		쌀	50,523,235	17,518	
강낭콩	22,000	12		감자	82,074	161	
들깨	40,000	47		대두	18,000	9	
기타곡실류	3,000	13		밀가루	635,627	334	
마늘	593,900	1,378		사과	5	-	
기타채소	39,655	85		복숭아	10	-	
고사리	459,168	3,111		오렌지	1,704	6	
표고버섯	34,086	240		수박	1,757	18	
기타버섯류	43,784	258		멜론	10	-	
밤	18,984	18		시금치	117	1	
기타견과류	20,280	11		무	20	1	
식물성한약재	139,033	230		양파	512	1	
소주	3,603	5		마늘	733,742	1,416	
물	552,320	75		기타채소	12,174	46	
비스킷	200	1		기타화초	16,170	23	
면류	16,395	13		고사리	7,200	46	
				기타산식물	135,000	33	
				대두유	18,540	30	
				박류	4,600	10	
				사료	84,275	35	
				된장	118	-	
				마요네스	1,908	5	
				기타소스류	380	1	
				커피조제품	86,871	323	
				초코렛	2,990	36	
				녹차	10	-	
				제조담배	2,997	57	
				소주	1,220	2	
				맥주	5,563	9	
				포도주	64	2	
				위스키	1,582	66	
				기타주류	11,922	16	
				정당	20,063	9	
				기타당류	9,780	58	
				과일주스	456	1	
				기타음료	5,658	6	
				사탕	633	102	
				비스킷	17,338	68	
				곡류가공품	79	-	
				빵	25,664	85	
				면류	160,817	331	
				기타농산가공품	273,669	781	
				종자류	138	6	
축산물	-	-		축산물	11,924	23	0.01
				쇠고기	25	-	
				돼지고기	703	2	
				닭고기	660	-	
				소시지	8,420	11	
				기타낙농품	1,656	3	
				모류	460	6	
임산물	22,000	7	0.008	임산물	137,745	169	0.2
건축용목제품	22,000	7		합판	1,605	7	
				섬유판	40,380	35	
				건축용목제품	1,320	1	
				목제장식품상자	69	-	
				기타목재생활용품	451	1	
				기타목재류	8,125	77	
				수목류	85,795	48	
수산물	2,647,480	13,606	17.4	수산물	54,326	223	0.2
기타어류	23,560	85		기타조개	16,490	35	
새우	149,079	1,152		건조수산물	18,140	142	
꽃게	20,000	278		기타수산가공품	19,696	47	
문어	190,354	699					
낙지	18,652	60					
기타조개	452,821	700					
기타연체동물	169,654	594					
미역	864	7					
기타해조류	2,040	4					
기타염장수산물	3,350	8					
건조수산물	765,572	6,730					
기타수산가공품	810,694	2,746					
기타수산물	40,840	543					
합계	4,855,888	19,249	24.5	합계	53,108,687	22,067	21.0

주 :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93호(2007.7.1~7.31).

표 3 2006년 8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 목	중 량(kg)	금 액(천달러)	구 성비	품 목	중 량(kg)	금 액(천달러)	구 성비
농산물	2,334,019	5,689	9.5	농산물	71,027,716	29,259	31.2
대두	437,000	302		쌀	61,544,387	21,408	
녹두	100,000	99		감자	82,195	163	
들깨	20,000	17		보리가루	245	1	
마늘	613,400	1,423		밀가루	542,414	320	
기타채소	63,700	75		기타채유종실	110	82	
고사리	344,495	2,416		복숭아	10	0	
죽순	720	1		오렌지	535	2	
고비	6,170	49		포도	25	0	
송이버섯	3,923	211		수박	1,782	13	
기타버섯류	67,045	448		상추	582	4	
밤	19,000	18		시금치	557	2	
들기름	19,602	24		양파	147	0	
원장	35,070	22		마늘	758,816	1,465	
제조담배	3,117	30		고추	503	1	
식물성한약재	236,988	429		기타채소	20,557	45	
기타주류	3,230	17		대두유	17,800	19	
물	259,760	32		사료	92,100	1,286	
면류	45,121	34		간장	57	0	
기타농산가공품	55,678	40		기타소스류	1,077	6	
				커피조제품	54,799	366	
				초코렛	381,640	130	
				녹차	360	1	
				제조담배	5,584	95	
				인삼류	61	10	
				소주	1,880	4	
				맥주	11,061	11	
				위스키	4,328	143	
				기타주류	1,249	11	
				정당	60	0	
				기타당류	9,591	51	
				음료베이스	3,407,000	1,102	
				인삼음료	59	0	
				과일주스	5,877	44	
				기타음료	1,233	3	
				사탕	643	39	
				비스킷	100,644	52	
				곡류가공품	117,536	39	
				빵	26,797	49	
				면류	3,501,125	1,826	
				기타농산가공품	332,290	467	
축산물	7	26	0.03	축산물	195,756	152	0.2
로얄제리	7	26		말	95	0	
				쇠고기	8	0	
				돼지고기	370	1	
				닭고기	180	1	
				소시지	7,076	8	
				분유	186,600	140	
				기타낙농품	1,427	2	
임산물	-	-		임산물	96,398	159	0.2
				합판	3,659	14	
				섬유판	39,403	61	
				목재틀	2	0	
				목재장식품상자	24	1	
				기타목재생활용품	4,500	4	
				기타목재류	48,810	79	
수산물	2,008,826	7,818	13.1	수산물	12,937	30	0.03
기타어류	92,787	67		오징어	4	0	
새우	233,572	2,047		김	1,094	5	
문어	200,404	703		기타수산가공품	11,839	25	
낙지	34,800	96					
기타조개	489,287	1,000					
기타연체동물	115,379	408					
기타얼장수산물	16,560	37					
건조수산물	90,885	753					
기타수산가공품	697,792	2,418					
기타수산물	37,360	289					
합 계	4,342,852	13,533	22.7	합 계	71,332,807	29,601	31.6

주 :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94호(2007.8.1~8.31).

□ 남북한 교역 통계

표 4 연도별·월별 남북한 교역 실적

(단위 : 천 달러)

연 도	반 입			반 출			총교역액 (A+B)	교역수지 (B-A)
	건수	품목수	금액(A)	건수	품목수	금액(B)		
1989	66	24	18,655	1	1	69	18,724	△ 18,586
1990	79	23	12,278	4	3	1,188	13,466	△ 11,090
1991	300	43	105,719	-	16	5,547	111,266	△100,172
1992	510	69	162,863	62	25	10,563	173,426	△152,300
1993	601	69	178,167	97	37	8,425	186,592	△169,742
1994	708	80	176,298	267	87	18,249	194,547	△158,049
1995	976	109	222,855	1,668	167	64,436	287,291	△158,419
1996	1,475	130	182,400	1,908	167	69,639	252,039	△112,761
1997	1,806	143	193,069	2,185	284	115,270	308,339	△ 77,799
1998	1,963	136	92,264	2,847	379	129,679	221,943	37,415
1999	3,089	172	121,604	3,421	405	211,832	333,436	90,228
2000	3,952	204	152,373	3,442	527	272,775	425,148	120,402
2001	4,720	201	176,170	3,034	492	226,787	402,957	50,617
2002	5,023	204	271,575	3,773	495	370,155	641,730	98,580
2003	6,356	186	289,252	4,853	530	434,965	724,217	145,713
2004	5,940	202	258,039	6,953	575	439,001	697,040	180,962
2005	9,337	381	340,281	11,878	712	715,472	1,055,754	375,191
2006	16,412	421	519,539	17,039	697	830,200	1,349,739	310,661
소 계	63,313	2,797	3,473,404	63,432	5,599	3,924,251	7,397,655	450,848
2007.1	1,759 (953)	169 (152)	55,581 (26,741)	1,848 (1,162)	340 (296)	37,168 (36,364)	92,749 (63,105)	△18,431 (9,623)
2007.2	1,533 (871)	170 (165)	44,431 (28,419)	1,586 (1,191)	339 (309)	37,797 (38,068)	82,228 (66,487)	△6,634 (9,649)
2007.3	1,939 (1,253)	166 (176)	58,636 (41,335)	1,823 (1,425)	399 (345)	44,515 (89,671)	103,151 (131,006)	△14,121 (48,336)
2007.4	1,803 (1,083)	180 (164)	46,029 (30,388)	1,891 (1,132)	431 (294)	86,840 (36,564)	132,869 (66,952)	40,811 (6,176)
2007.5	2,222 (1,080)	187 (164)	63,397 (36,780)	2,115 (1,280)	443 (325)	88,531 (64,299)	151,929 (101,079)	25,134 (27,519)
2007.6	2,010 (1,167)	180 (183)	57,385 (35,594)	2,094 (1,505)	409 (336)	97,858 (93,858)	155,243 (129,452)	40,473 (58,264)
2007.7	2,060 (1,289)	192 (154)	78,414 (63,925)	2,254 (1,509)	426 (312)	105,150 (45,833)	183,564 (109,758)	26,736 (△18,092)
2007.8	1,982 (1,540)	195 (170)	59,582 (54,745)	2,445 (1,536)	449 (346)	93,817 (52,944)	153,399 (107,689)	34,235 (△1,801)
소 계	15,308	382	463,455	16,056	718	591,677	1,055,131	128,222
총 계	78,621	3,179	3,936,858	79,488	6,317	4,515,928	8,452,786	579,070

주: 1) ()안은 2006년 동기 실적임.

2) 1995년 교역금액은 대북 쌀 지원 237,213천 달러 반출을 제외한 것임.

3)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94호.

그림 1 연도별 남북한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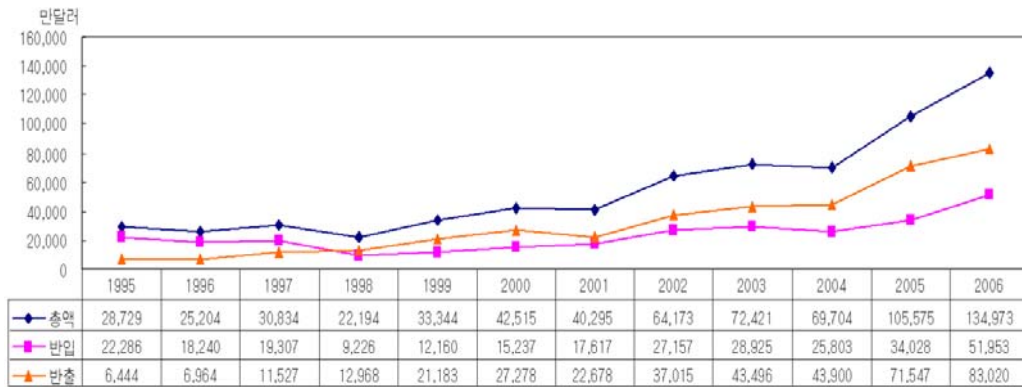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월별 남북한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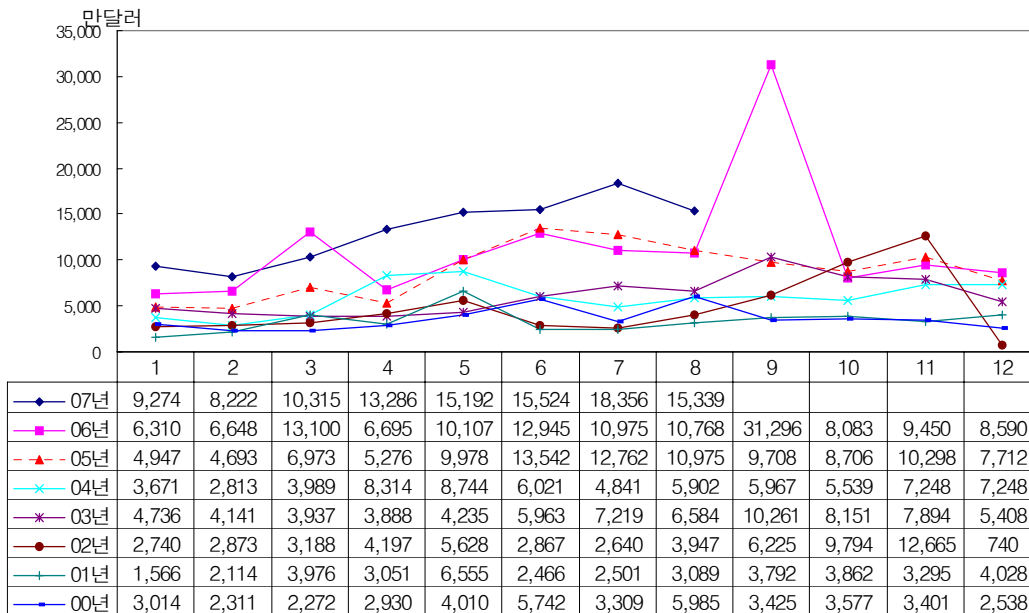


표 5 연도별·월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단위 : 천 달러)

연 도	반입					반출					총교역액 (A+B)	교역수지 (B-A)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소계(A)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소계(B)		
1989	2,178	-	-	174	2,352	-	-	-	-	-	2,352	△2,352
1990	5,130	-	49	393	5,572	10	-	-	-	10	5,582	△5,562
1991	6,364	-	1,402	3,052	10,818	1,607	-	-	-	1,607	12,425	△9,211
1992	9,546	-	2,277	5,083	16,906	64	-	-	-	64	16,970	△16,842
1993	6,916	-	4,221	879	12,016	63	-	-	6	69	12,085	△11,947
1994	5,315	-	7,212	2,723	15,250	3,220	-	-	97	3,317	18,567	△11,933
1995	13,506	-	6,003	2,810	22,319	8,879	-	273	154	9,306	31,625	△13,013
1996	11,853	-	2,014	9,588	23,455	6,044	-	57	613	6,714	30,169	△16,741
1997	7,871	-	4,902	14,553	27,326	16,525	-	116	383	17,024	44,350	△10,302
1998	7,895	-	3,526	13,377	24,798	18,732	-	510	398	19,640	44,438	△5,158
1999	15,057	-	4,484	28,327	47,868	15,682	-	1,796	189	17,667	65,535	△30,201
2000	23,352	-	7,014	41,566	71,932	23,910	-	1,005	464	25,379	97,311	△46,553
2001	38,703	78	5,717	45,316	89,814	26,939	2,157	424	2,977	32,497	122,311	△57,317
2002	28,881	395	95	70,531	99,902	103,080	5,079	1,102	934	110,195	210,097	10,293
2003	36,203	1,474	245	89,714	127,636	112,345	7,425	2,206	3,583	125,559	253,195	△2,077
2004	32,965	443	244	68,209	101,862	60,649	2,411	2,006	2,075	67,141	169,003	△34,721
2005	21,425	664	318	57,430	79,837	73,303	1,638	2,160	821	77,922	157,759	△1,915
2006	37,670	184	437	99,563	137,854	206,702	1,745	4,451	994	213,892	351,746	76,038
소 계	310,830	3,238	50,160	553,288	917,517	677,754	20,455	16,106	13,688	728,003	1,645,520	△189,514
2007.1	2,996 (2,323)	- (36)	26 (73)	13,345 (7,845)	16,367 (10,277)	3,002 (833)	32 (107)	41 (183)	27 (161)	3,102 (1,284)	19,469 (11,561)	△13,265 (△8,993)
2007.2	- (1,550)	- (71)	- (41)	- (5,049)	- (6,711)	- (1,078)	- (645)	- (227)	- (31)	- (1,981)	- (8,692)	- (△4,730)
2007.3	2,069 (2,191)	- (14)	5 (53)	9,666 (9,539)	11,740 (11,797)	3,111 (1,080)	291 (198)	774 (248)	143 (33)	4,319 (1,559)	16,059 (13,356)	△7,421 (△10,238)
2007.4	3,386 (2,521)	- (4)	18 (47)	6,250 (4,694)	9,654 (7,266)	2,316 (1,164)	70 (7)	487 (372)	219 (27)	3,092 (1,570)	12,746 (8,8362)	△6,562 (△5,696)
2007.5	4,229 (2,023)	- (-)	- (23)	13,317 (8,504)	17,546 (10,550)	3,405 (1,522)	162 (9)	941 (252)	281 (108)	4,789 (1,891)	22,335 (12,441)	△12,757 (△8,659)
2007.6	4,826 (3,046)	33 (9)	- (17)	11,322 (10,233)	16,181 (13,305)	25,530 (1,477)	16 (195)	160 (295)	56 (56)	25,867 (2,023)	42,048 (15,328)	9,686 (△11,282)
2007.7	5,636 (3,807)	- (29)	7 (9)	13,606 (6,562)	19,249 (10,407)	21,652 (1,146)	23 (22)	169 (536)	223 (60)	22,067 (1,764)	41,316 (12,171)	2,818 (△8,643)
2007.8	5,689 (3,225)	26 (18)	- (14)	7,818 (7,879)	13,533 (11,136)	29,259 (2,234)	152 (202)	159 (409)	30 (13)	29,601 (2,858)	43,134 (13,995)	16,068 (△8,277)
소 계	28,831 (20,686)	59 (181)	56 (277)	75,324 (60,305)	104,270 (81,449)	88,275 (10,534)	746 (1,385)	2,731 (2,522)	1,084 (489)	92,837 (14,930)	197,107 (96,380)	△11,433 (△66,518)
총 계	-	-	-	-	1,021,787	-	-	-	-	820,840	1,842,627	△200,947

주 : 1) ()은 2006년 동기 실적임.

2)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 통일부, 남북무역 통계자료(1989-1997), 1998.,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사업 동향, 제187~194호. <http://www.unikorea.go.kr>

그림 3 연도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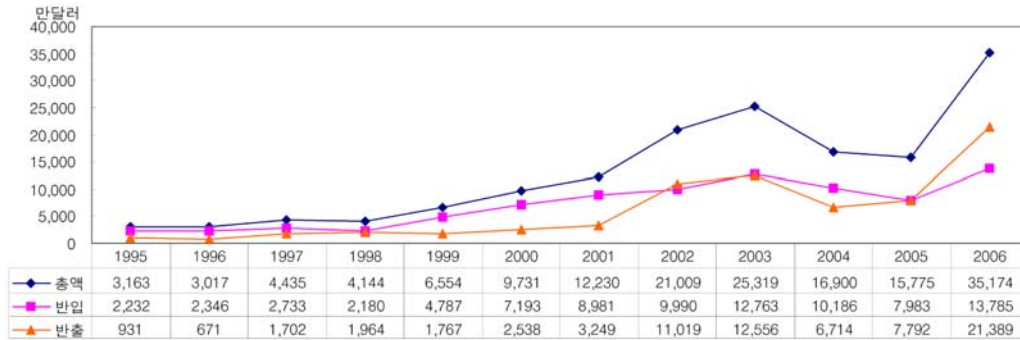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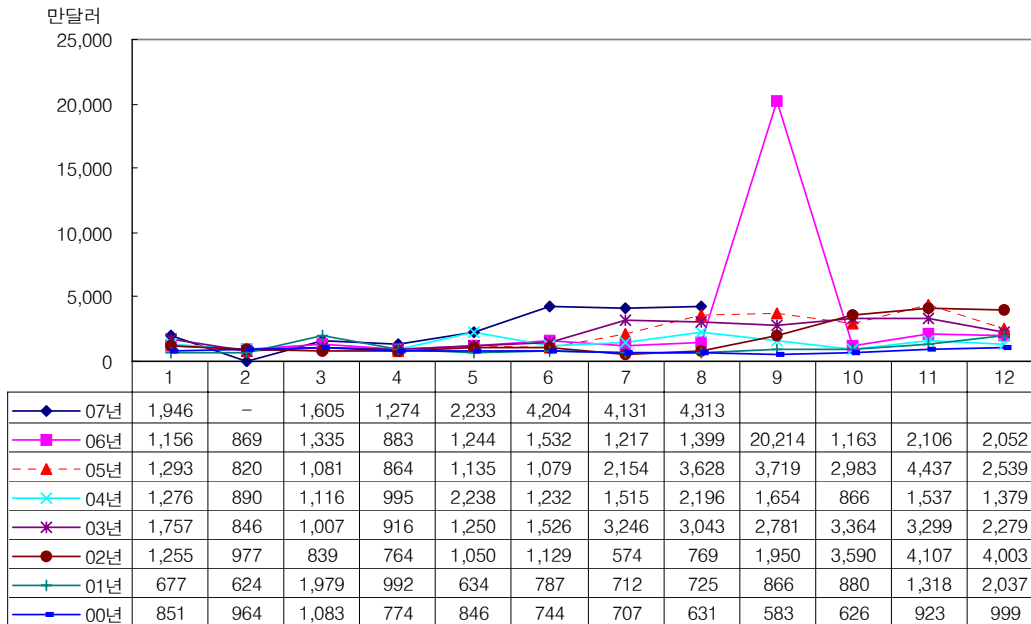


그림 4 연도별 · 월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2. 교류협력사업 동향

□ 농림수산분야,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 현황

○ 2007년 6~8월 중 농림수산분야에서 협력사업이나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기업은 없음. 8월 말 현재, 농림수산분야에서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기업(단체)는 총 19개로 전체 367개 기업(단체)의 5.2%를 차지하고 있음. 승인된 협력사업 339건 중 농림수산분야는 14건으로 4.1%를 차지하고 있음.

농림수산분야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 현황, 2007년 8월 말 현재

기업	사업상대자	사업 내용	지역	금액	사업자 승인일
미홍식품**(합 영)	조선철산무역총회사	수산물 채취가공·양식 및 판매	청진, 함흥 원산, 남포	15만불 (47만불)*	'97.5.22 (*98.3.13)*
파라우수산(합 영)	조선은파산무역상사	수산물 생산·가공	원산, 해주	300만불	'97.8.1
금오식품(합 작)	은하무역총회사	냉면·고구마·전분 제조	평양	40만불	'97.8.1
태영수산/LG상사** (합 영)	광명성총회사	가리비 양식·생산	나진, 원산	200만불 (65만불)*	'97.10.14 (*98.8.28)*
안흥개발(합 작)	조선56무역회사	참기름 가공공장 설립	남포	50만불	'98.3.13
두레마을영농조합법인** (합 작)	라선경제협조회사	나진, 선봉지대 합영농장 운영 및 계약재배사업	나진, 선봉	800만불 (200만불)*	'98.4.8 (*98.7.27)*
국제육수수제단** (조사·연구)	농업과학연구원→ 농업과학원 (*99.3.25)	새품종 생산력 검증시험 및 제배리지 확정, 신품종 슈퍼육수수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평양, 기타	30.9억원 →216억원* (*99.3.25)*	'98.6.18 (*99.6.18→ '01.6.20)*
백산실업**(합 영)	함경북도 선봉군 온실농장	버섯배지 생산 및 국내농가 보급, 표고·타리·진주 등 버섯류 생산·수출	나진, 선봉 (선봉군읍)	20.8만불*	'98.10.28 (*98.10.28)*
(주)해주(합 작)	광명성총회사	복합 수산물 생산 및 판매	서해인근	299만불	'99.1.8
(주)G-환신 (주)경평인터내셔널**	광명성총회사	식품가공업 (김치, 된장, 상화버섯음료)	평양	-	'03.10.31 (*04.3.20)*
(주)인동대마방직**	새별총회사	북한내 대마제품 및 삼베제품	평양, 황해도	250만불*	'04.2.18 (*04.9.17)*
제일유통**	개선무역총회사	표고버섯 재배 및 가공	평양	546천불*	'04.8.21 (*04.8.21)*
상하씨엠**(계약)	개선무역총회사	농수산물 및 토산물 가공공장 설립·운영	남포	5만불*	'04.9.17 (*04.9.17)*
(주)제이유네트워크**	광명성총회사	김치제조공장 설립 및 유통·판매	평양	160만불*	'04.12.30 (*04.12.30)*
(주)에너지극동개발	광명성총회사	사료 제조·판매	평양	-	'04.12.30
아이니무역**	개선총회사	다슬기 가공설비 투자 및 반입·판매	원산	15만불*	'05.06.15 (*05.06.15)*
제일유통**	개선총회사	나무재배 및 판매	황북·봉산 황남 언덕	26만불*	'05.12.30 (*05.12.30)*
제일유통**	개선총회사	과수재배 및 생산물 판매	평양 민경대	164만불*	'05.12.30 (*05.12.30)*
제일유통**	개선총회사	소사육 생산 및 판매	황북/황남, 평양	30만불*	'05.12.30 (*05.12.30)*

주 : 1) *는 협력사업 승인 금액 및 날짜임.

2) **는 협력사업 승인까지 받은 기업(단체)임.

3) 현대아산과 금강산관광총회사간의 계약에 의한 금강산영농장사업은 현대아산이 영농장의 시설재·농자재를 금강산관광총회사에 연불수출(延拂輸出)하고 북한측은 생산물로 연불수출금을 상환하는 형태임(금강산관광총회사에서 영농장 운영은 고성군인민위원회에, 생산물 납입 가격 협의는 광명성총회사에 위탁).

자료 :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94호.

3.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 제19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결과 (통일부, 2007. 7. 30)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2007. 7. 27(금) 「회령지역 영유아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과 「대북지원 민간단체 합동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 2건의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
 - 1) 회령지역 영유아 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 한국JTS(Join Together Society)가 추진하는 「회령지역 영유아 지원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에서 17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
 - 지원내용 및 규모 : 모자보건센터 건립 6억 원, 영양개선 7억 5천만 원, 질병관리 5천만 원, 건강관리 2억 원, 수송비 등 기타 1억 원
 - 정부는 회령지역의 영유아 지원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대북지원 민간단체를 통한 영유아 사업 확대를 검토할 계획
 - ※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 : 식량난 장기화로 영양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의 5세 이하 영유아와 산모에 대해 영양, 질병, 건강 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2006년부터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를 통해 추진
 - 2) 대북지원 민간단체 합동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 나눔인터내셔널 주관의 「보건의료체계 개선사업」 등 대북지원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3개의 합동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에서 37억 6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
 - 금년에는 5개 신청사업에 대해 통일부·농림부·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단이 「기금지원 심사평가지침」에 따라 심사하여 3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사업별 지원규모는 다음과 같음.

- 보건의료체계 개선사업(나눔인터내셔널 등 6개 단체) 17.2억 원, ▲농촌시범마을 조성사업(남북나눔운동 등 4개 단체) 13.18억 원, ▲강남군 종합복지사업(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 등 5개단체) 7.24억 원

※ 본 사업은 2005년부터 북한의 개발협력을 위해 민-관 협력차원에서 3개 이상 민간 단체가 협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임.

민간단체 합동사업 지원실적

연 도	사업명	지원액
2005	①모자보건 복지사업 ②보건의료 체계 개선사업 ③축산사료 자급사업 ④농업·보건용수 개발사업 ⑤주거환경 개선사업	50억 원
2006	①종합복지모델 개발사업(계속) ②보건의료 체계 개선사업(계속) ③주거환경 개선사업(계속) ④보건·식수환경 개선사업(계속) ⑤북토직파 농업협력사업(신규)	50억 원

□ 개성공단 최저노임 5% 인상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2007. 8. 3)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북측근로자 월 최저노임 5% 인상에 합의
 - 합의 내용 : 월 최저노임을 50달러에서 52.5 달러로 5% 인상, 적용 시점은 8월 1일부터, 향후 월 최저노임은 매년 8월 1일 관리위와 총국 간 합의로 결정
- 이번 합의에 따라 월 최저노임에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기업부담액은 현 57.5 달러에서 60.375 달러로 약 2.9 달러 상승

□ 제19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통일부, 2007. 8. 11)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2007. 8. 10(금) 「제6차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남북협력 기금 지원안」과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 등 2건의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

1) 제6차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남북협력기금 지원

- 남북은 제6차 화상상봉을 8. 13~14 2일간 40가족 규모로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소요되는 남측 경비는 남북협력기금에서 2.7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
 - 지원내용 및 규모 : 통신비 1.3억, 상봉장 시설·운영비 0.6억, 부대경비 0.8억 원 등

2)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

- 정부는 민원인의 편의 도모와 대북 전략물자 반출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제정
- 이 고시는 전략물자의 대북반출에 따른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전략물자 사전판정, 반출승인 절차 및 기준, 사후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대북 수해복구 지원

(통일부, 2007. 8. 19)

- 정부는 8월 19일 판문점 남북 연락관 접촉을 통해 『긴급구호 물자』(71억 원 상당)를 8. 23~8. 25까지 3일간 육로를 통해 개성 봉동역으로 전달하기로 결정
 - 국회보고, 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수송할 계획
- 민간에서도 『대북지원민간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총 21개 단체에서 약 148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음을 정부에 통보
 - 이와 별도로 『북민협』차원에서 정부의 매칭펀드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 고려

□ 제19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통일부, 2007. 8. 22)

- 8월 22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대북수해 피해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
 - 한적을 통해 75억 원, 민간단체(북민협)에 대한 매칭지원 30억 원 등 총 105억 원을 지원
- 북측에서 요청한 수재 복구용 자재와 장비 지원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

□ 대북 수해복구 자재와 장비 지원

(통일부, 2007. 8. 24)

- 정부는 8월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북한 수해지원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의 피해 상황 및 지원 요청, 우리의 가용 재원, 물품 재고량 등을 감안하여 총 374억 원 상당의 자재·장비를 지원하기로 결정
 - 주요 지원 품목 : 시멘트 10만 톤, 철근 5천 톤, 트럭 80 대(8톤 20대, 5톤 60대), 연료 500톤, 도로복구장비(4종) 각 5대씩 총 20대, 피치 2만 톤 등
 - ※ 북측의 요청 품목 : 살림집 건설에 필요한 시멘트, 철근, 트럭 및 연료, 도로복구에 필요한 피치 및 복구장비(4종) 등
- 국회 보고와 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원을 추진

□ 제19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통일부, 2007. 9. 4)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9월 4일(화) 「대북 수해복구 및 긴급구호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과 「2007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

1) 대북 수해복구 및 긴급구호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 북한 수해복구 자재·장비 374억 원 상당치를 지원하기로 결정
 - 지원규모 : 시멘트 10만 톤, 철근 5천 톤, 경유 500톤, 피치 2만 톤 등 복구 자재, 트럭 80대(8톤 20대, 5톤 60대), 복구장비(4종) 20대 등 374억 원 상당(수송비 등 부대경비 100억 원 별도)
- 이와 함께 UN인도지원조정국(OCHA)의 긴급구호 호소(1,400만 달러)에 대해 2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결정

2) 2007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

- 대북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인도적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2007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
 - 「인도적 사업」 프로그램을 당초 2,560억 원에서 3,010억 원으로 450억 원 증액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통일부, 2007. 9. 11)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5.25 공포, 8.26 시행)이 위임한 사항과 동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시행령이 9월 11일 제39회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통과
- 시행령의 주요 내용
 - 개성공단의 개발에 관한 심의기구인 개성공업지구개발지원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
 - 공단 개발과 관련한 자금지원과 기반시설 지원대상 등에 대하여 규정
 - 국내지원제도를 개성공단에 적용함에 있어 국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의해 지원되도록 규정
 - 왕래와 교역의 특례 범위를 정하여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왕래와 반출입이 이루어 지도록 규정
 - 4대 보험 적용 및 근로자 보호 관련 필요절차를 규정하고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의 운영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제19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통일부, 2007. 10. 1)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10월 1일(월)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제16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남북경제협력 사업 손실보조 약정체결 승인 등 3건의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

1)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 대북지원 민간단체인 한국복지재단 등 4개의 민간단체 컨소시엄(총 16개 단체)이 추진하는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 88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
 - 지원내용 및 규모 : 남포산원 현대화 10억 원, 남포시 소아병동 현대화 12억 원, 남포시 영양개선 10억 원, 대안군 인민병원 현대화 및 대안군 영양개선 16억 원, 어린이 영양생산 시설 36억 원, 사업관리비 등 기타 4억 원

2) 『제16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 10월 17일(수)부터 10월 22일(월)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되는 제16차 남북 이산가족 상

봉행사에 필요한 소요경비 8억 8천만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무상지원

- 이번 행사 지원으로 남북이산가족 200명(남북 각 100명, 가족포함 약 900여 명) 상봉 예상

※ 제1차 ~ 제15차까지 남북 총 3,188가족 15,381명 상봉

3) 남북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 약정체결 승인

- 정부는 (주)삼명아이앤씨 등 개성공단 입주업체 2개 기업의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 약정체결 신청에 대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약정체결 조건에 부합함에 따라 동 신청을 승인하기로 결정
 - 2개 기업 약정체결 금액 95억 원

제2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2007정상선언 채택 (통일부, 해설자료, 2007. 10. 4)

- 「2007 남북정상회담」이 2007년 10월 2~4일 간 평양에서 개최됨.
 - 김정일 위원장과 단독회담 2회, 김영남 상임위원장 면담 등
 - 남북정상은 평화정착, 공동번영, 화해·통일에 관한 제반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8개 항의 공동선언을 발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8개 항

1. 6.15 공동선언 적극 구현
 2. 상호 존중과 신뢰의 남북관계로 전환
 3.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국방장관회담 개최)
 4. 6자회담의 2.13 합의 이행 협력, 평화체제 구축과 종전선언 논의 실현 노력
 5. 남북 경협 확대·발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부총리급 경제협력공동위원회 개최)
 6.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의 발전
 7. 남북 간 인도적 사업 협력
 8. 국제무대에서의 공동 노력
- ※ 총리급 회담 개최 / 정상회담 수시 개최

1) 경협 일반 개요

-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동안의 단기적, 일회성 경협사업을 장기적, 지속적 쌍방향 투자협력으로 전환 추진

- 경제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관계를 형성하여 평화의 물질적 토대를 구축
 - 남북 경협을 통해 남북의 동반발전을 이룩함으로써 중국적으로 하나의 경제권을 추구해 나간다는 목표를 지향
- 양 정상은 민족의 이익과 공동번영을 위해 남북경협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민족 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적극 활성화해 나가기로 합의
- 남북경협에 대한 군사적 보장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데 합의함으로써 철도 개통 등 군사보장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고, 2007 남북정상선언에서 합의한 경협사업에 대해서도 군사보장을하기로 합의

2) 개성공단 내실화 및 확대

- 남북은 개성공단 추진사례가 남북공동번영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내실화하고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 다음 사항을 협의
- 통행·통신 문제를 해소하고 경의선 철도 연결구간 개통 등에 합의함으로써 상호 소통 확대 및 물류비 절감 등 경협환경을 개선
 - 이번 합의는 연중무휴, 상시통행을 이룩하고 국제화시대 인터넷 개통 등을 통해 개성공단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생의 협력단지로 발전해가는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
 - 또한 1단계 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2단계 개발에 착수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조성해 나갈 계획
 - 앞으로 이러한 특구확대를 통해 우리에게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고 북측에게는 고용확대와 경제회복에 기여하는 상생의 협력방안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

3)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견인할 수 있는 포괄적 프로젝트로서 서해에 「평화협력특별지대」 개발을 제의하고 협의를 도출
-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개발은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해주지역과 주변 해역의 평화와 번영을 견인하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구상
- 서해 지역의 평화정착 방안을 마련하여 안보불안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실질적 평화를 확보

- 평화와 번영을 결합한 새로운 평화경제 사업
- 서해 NLL 등 군사문제를 군사적 방식이 아닌 경제적 공동이익 관점에서 접근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서해 「군사안보벨트」를 「평화번영벨트」로 전환

4) 조선협력 및 농업·보건의료·환경 등 협력사업

- 최근 세계적 조선산업 호황으로 우리 조선업계의 수주량이 크게 증가(전년 동기대비 38.2%)한 가운데 우리 업계는 면세혜택 폐지, 인건비 상승 등으로 투자유인이 감소되고 있는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투자처로 북한을 주목
- 북측도 영남배수리공장(남포 소재)을 남측기업 관계자 및 경제인대표단에게 공개하고 협력(시설·장비 제공, 기능인력 교육 등 요청)의사를 표명
- 조선 산업분야 협력은 남측의 자본·기술과 북측의 우수한 인력이 결합함으로써 남북 경제가 보완적 구조를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동력 확보 가능
 - 선박블록공장을 설립할 경우 북측 인력 1~2천 명 고용 예상
- 북측의 영남배수리공장이 위치한 남포와 수심이 깊고 남측 조선소와 인접한 동해안 지역(안변)을 협력사업 후보지로 논의

5)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협력

- 남북 경험의 질적 발전과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농업 및 보건의료분야의 협력을 통해 북한 경제의 토대를 일정 수준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은 농업, 보건의료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
- 앞으로 정부는 농업협력과 관련, 남북 농업협력위원회를 조기에 개최하여 시범협동농장 운영, 종자개발·처리시설 지원 등 기존 합의사항을 이행하면서 남측의 자본·기술과 북측의 토지·인적자원을 결합하여 북측의 식량난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것이며, 자연재해 방지를 위해 산림녹화·병충해 방제 등 남북 공동대응을 추진해 나갈 방침
- 보건 의료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먼저 취약계층인 영유아와 임산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당국 간 협력 착수
 - 전염병 공동방역·관리체계 구축, 북측 의료인력 교육, 기초의약품 및 의료장비 지

원, 기초(군단위) 병원 현대화 지원 등 협력을 순차적으로 추진

6)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이용 및 개보수

- 우선 경의선 남북 철도연결 구간의 개통을 통해 개성공단 물자 및 북측 근로자 통근 등에 활용하고 남북간 철도의 상시적 운행 등 단계별·점진적으로 운행 확대
- 남북 경협 확대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경협에 활용빈도가 높은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고속도로 개보수문제 협의
 - 특구 등 협력거점과 특구와 특구, 나아가 동북아 연계 물류망 구축을 염두에 두고 북측 SOC 건설 협력 추진
 - 이를 위해서는 북측 철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개보수할 필요
- 남북경협물자의 개성-평양 간 육로운송이 시작된다면 남북 간 물류비 감소, 수송기간 단축으로 경협 활성화의 여건 마련
 - 인천-남포의 경우 해상 수송에 비해 편도 기준으로 운임은 1/4 수준으로 절감(TEU 당 800달러→200달러), 운송 일수는 5~6일에서 1~3일로 단축 가능

□ 제1차 「2007남북정상선언이행 종합대책위원회」 개최
(통일부, 2007. 10. 12)

- 정부는 10월 12일 대통령 주재로 제1차 「2007남북정상선언이행 종합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를 정립함.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경제·과기부총리, 통일·외교·국방·법무·문화·산자·복지·농림·해수·건교·기예처장관, 국정원장, 청와대 정책실장·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등의 위원으로 구성
 - 동 종합대책위원회의 소위원회 형태로 남북 간 회담체계에 따라 경협공동위원회, 국방장관회담, 기존 장관급회담 등 「분야별 대책회의」를 각각 운영
- 후속조치 이행 과정에서 국민적 참여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대북투자기업 관계자, 학자 등으로 「민간자문단」을 구성, 종합대책위원회 및 분야별 T/F 자문 추진
- 동 대책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산하에 「2007남북정상선언이행 종합기획단」

과 「2007남북정상선언이행 사무처」를 설치·운영

- 동 종합기획단은 통일부 장관(단장), 국조실 기획차장(부단장), 상기 종합대책위원회 참여부처 차관(위원)으로 구성, 정상선언 이행 추진체계 운영 종합 지원 및 전체적인 후속조치 이행 로드맵 작성 등을 담당
- 「사무처」(처장 : 통일부 차관, 차장 : 국조실 기획관리조정관)는 통일부 남북회담본부를 모체로 총리실 인원과 부처인원(과장급)으로 구성·운영

- 정부는 상기 추진체계 구축을 계기로 사업별 비전과 추진계획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 로드맵을 작성할 예정

□ 「2007남북정상선언이행 종합기획단」 제1차 회의 개최

(통일부, 2007. 10. 15)

- 정부는 10월 5일 「2007남북정상선언이행 종합기획단」 제1차 회의를 종합기획단장(통일부 장관) 주재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개최하여 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이행 계획과 사무처 운영계획 등을 협의
 - 정상선언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 방향에 대해 논의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후속 추진방향에 대해 유관부처 간 여러 가지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추후 협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키로 하였음.
 - 「사무처」는 산하조직으로 총괄관리팀, 회담운영지원반, 이행대책지원반을 두고 「종합대책위」·「분야별 대책회의」·「종합기획단」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면서 분야별 범정부 T/F와 긴밀히 협력하여 후속조치 이행을 총괄·지원하는 역할 수행

□ 대북식량차관 1차 분배현장확인 결과

(통일부, 2007. 10. 16)

- 정부는 남북간 합의에 따라 10월 16일 개성지역 2곳과 고성지역 3곳에 대한 분배현장 확인을 실시
 - 우리측 대표단(개성·고성 각 5명)은 북측의 식량공급소를 직접 방문하여 우리가 지원한 쌀을 분배하는 현장을 확인하고, 북측 양정관계자 및 주민들과 인터뷰를 실시
 - 현장방문 지역 : 개성 제3, 8식량공급소, 고성읍, 조양, 온정 식량공급소 등 5곳
- 금년 개성과 고성으로 전달된 쌀은 5만 톤(개성 3만 톤, 고성 2만 톤)이며 전달된 쌀

은 하역지에서 양정사업소를 거쳐 식량공급소로 이송되었음.

- 지원한 쌀의 분배는 1개월에 2회(1일, 16일)이며, 직업과 연령 등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어 분배
- 북측은 세대별로 식량공급카드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북한주민이 제출한 배급표를 확인한 후 해당 등급에 따라 쌀을 분배

□ 『2007남북정상선언이행 종합기획단』 제2차 회의
(통일부, 2007. 10. 18)

- 정부는 10월 18일 『2007 남북정상선언이행 종합기획단』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 방향과 국민참여 방안 등을 협의
 - 당면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 집중하여 정상선언 이행 후속조치 전반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향에서 주요 이행과제에 대한 부처별 협조사항 등에 대해 논의
 - 정상선언 후속조치의 이행 또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협력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를 위한 자문단』을 구성·운영키로 결정

□ 『2007남북정상선언이행 종합대책위원회』 제2차 회의
(통일부, 2007. 10. 19)

- 정부는 10월 19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2007남북정상선언이행 종합대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총리회담 추진 계획 등 전반적인 일정에 대해 협의
 - 총리회담에서는 기본적으로 『2007 남북정상선언』 합의사항 전반을 포괄적으로 협의
 - 『2007 남북정상선언』 이행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인 합의 도출에 주력
- 금번 회담에서 중점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결실을 맺도록 하고 정상회담 이행 로드맵이 나올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강구하기로 함.
 - 남북국방장관회담 및 경협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협의·추진해 나갈 사안들을 정리·확인하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조정해 나감.
 - 총리회담 이전이라도 추진이 가능한 사업의 경우 관련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병행 추진해 나감.

□ 『2007남북정상선언이행 종합기획단』 제3차 회의
(통일부, 2007. 10. 25)

- 정부는 10월 25일 『2007 남북정상선언이행 종합기획단』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남북 총리회담 예비접촉, 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분야별 추진계획과 민간자문단 구성 및 운영 계획 등을 논의
 - 남북총리회담 예비접촉은 총리회담이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
 - 남북총리회담에서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구도를 마련하고, 가능한 분야에서는 연내에 이행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함.
 - 『국민참여를 위한 자문단』을 전문가, 기업인, 학자, 시민단체대표 등 40명 수준에서 구성하기로 결정

□ 제1차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 결과
(통일부, 2007. 11. 7)

- 남북한은 『제1차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을 11월 5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 주요 합의 내용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남북농업협력사업 중 우선 시범적으로 축산협력사업을 착수하되, 평양시 강남군 고읍리 일대에 상시 사육두수 5천두(연산 1천톤, 사업기간 2년) 규모로 양돈협력사업을 진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확대 실시해 나감.<ul style="list-style-type: none">- 빠른 시일에 양돈협력사업을 협의·처리하는 총괄 이행기구를 지정하여 상대측에 통보- 2007년 11월중 남북 전문가 공동으로 현장 답사를 실시2. 남측은 양돈협력사업 관련 시설 건축과 종돈·사료 등 사육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 물자를 차관방식으로 제공하며, 차관합의서는 별도 협의를 통해 체결함.<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체적인 제공 품목 및 수량,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쌍방의 이행기구가 협의- 북측은 토지, 전력, 용수, 노동력 등을 제공하며 남측 인원들의 사업현장방문, 기술지원, 신변안전, 수송수단의 안전운행과 기타 편의를 보장3.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제2차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을 금년 중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함. |
|---|

- 이번 접촉을 통해 2005년 8월 남북농업협력위원회에서 합의했던 축산협력사업(양돈사업)을 구체적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북측은 양돈기술을 전수받고, 양질의 돼지고기를 생산하게 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기초생활 보장에도 기여할 것임.

- 앞으로 제2차 농업협력실무접촉을 개최하여 그 간 지연되어 왔던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2005년) 합의사항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
- 남북간 농업협력사업이 확대·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

<자료1>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안)

통일부고시 제2007·호(2007. 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4조 및 반출·반입승인 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른 전략물자의 반출승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전략물자”라 함은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및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이하 “전략물자통합고시”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물품을 말한다. 다만, 전략기술이 전략물자와 결합되어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전략물자로 본다.

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전략물자의 반출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 규정된 사항은 반출·반입승인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준용규정) 전략물자와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략물자통합고시에 준하여 이를 처리한다.

제5조(전략물자의 확인의무) ① 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하려는 자는 반출하려는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일부 장관에게 그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을 전략물자통합고시 제5조에 따른 사전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전략물자의 반출승인) ① 전략물자를 북한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반입자 등이 반출하려는 물품을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거나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7조(반출승인신청) ① 제6조에 의한 반출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전략물자반출승인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략물자반출입승인신청서(반출자가 반출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반입하는 경우)(이하 “전략물자반출승인신청서등” 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반출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간접교역인 경우 중개인과 북한거래당사자간의 계약서(교역의 경우)
 2. 협력사업합의서(협력사업의 경우)
 3. 대북지원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지원사업의 경우)
 4. 반출대행계약서(위탁자와 반출자가 다른 경우)
 5. 특정물품 취급면허증 사본(해당물품의 경우)
 6. 전략물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전략물자사전판정서 또는 제6조 제2항의 의도가 있음을 알거나 의심되는 경우에 대한 소명서
 7.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략물자 기술적 특성 명세서
 8. 반출품의 성능과 용도, 반출대상 기술의 내용을 표시하는 서류(매뉴얼, 카탈로그, 사양서 등)
 9. 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에 대한 소개서 및 사용목적 설명서
 10.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②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서류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반출승인에 대한 기준 및 절차)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전략물자가 평화적 목적에 이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반출을 승인한다.

1. 반출품의 기술수준과 군사적·외교적 민감성
 2. 민간부문에서의 사용 여부
 3. 최종사용자와 최종사용용도에 대한 신뢰성
 4. 제3국으로 재수출될 가능성
 5. 반출자, 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가 전략물자 거래부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8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 ③ 통일부장관은 전략물자반출승인신청서등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일수에 산입하

지 아니한다.

1. 별도의 기술심사
2.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3.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
4. 북한당국과의 협의
5. 현지조사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반출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관리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반출승인사항의 변경) ① 제8조 제1항의 전략물자반출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전략물자반출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전략물자반출승인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반출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1. 전략물자반출승인서를 발급한 후 미리 알았다면 승인하지 아니하였을 새로운 사유가 발견된 경우
2. 전략물자반출승인서를 발급한 후 전략물자 반출승인의 취소 또는 그 효력의 정지가 불가피할 정도의 국제정세의 변화 또는 안보상 새로운 수출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출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세관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결과보고) 제8조에 따라 전략물자반출승인을 받은 자는 당해 물품을 반출한 이후 1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전략물자반출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서류의 보관) 반출자는 반출품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반출승인 관련 서류 등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특구 등에 반출한 전략물자 사후관리) ①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 등 북한의 경제특구 등에 전략물자를 반출한 자 또는 반출한 전략물자의 최종사용자(이하 “반출자등”이라 한다)는 반출한 전략물자에 대하여 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관리대장의 비치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반출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내역을 매 분기마다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 호 서식 : 전략물자반출승인(신청)서

별지 제 2 호 서식 : 전략물자반출입승인(신청)서

별지 제 3 호 서식 : 전략물자 기술적 특성 명세서

별지 제 4 호 서식 : 전략물자반출승인변경(신청)서

별지 제 5 호 서식 : 전략물자반출결과보고서

<자료2>

북한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현황

(통일부, 2007. 8. 14)

1. 북한지역 집중호우 현황

- 북한은 8.7~18에 걸쳐 평양 580mm를 비롯, 평남북, 강원, 함남 등 북한 중부지역에 평균 300mm의 비가 내림.
- 황북 서흥 769mm, 평남 북창 796mm, 강원 회양 745mm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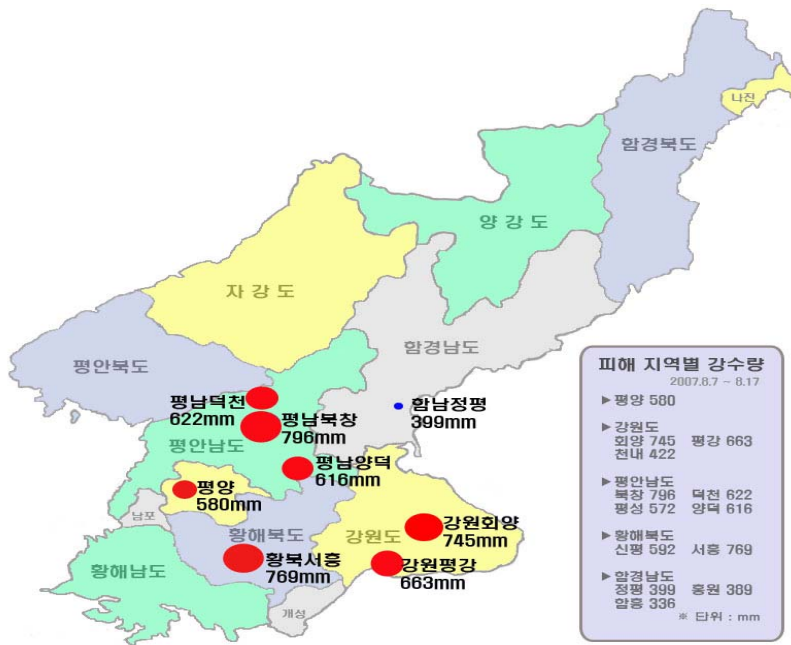
주요지역 강수량 현황(8월 19일)

단위 : mm

평양	평 남							함 남				황 북			강 원				
	북창	양덕	숙천	덕천	평성	맹산	순천	정평	홍원	함흥	고원	신흥	신평	서흥	신계	수안	평강	천내	회양
580	796	616	672	622	572	529	452	399	389	336	391	304	592	769	730	406	663	422	745

주: 북한발표 및 세계기상통신망(GTS) 자료 종합

피해지역별 강수량



2. 피해 규모 및 실태

□ 전반적 피해 규모

- 인명피해 : 북한은 수백명이 사망·실종되었으며 88,400여 세대의 주택이 침수·파괴되고 30여만명의 이재민이 발생
 - ※ UN의 OCHA는 221명 사망자, 80명의 행불자, 46,500여 가구의 주택 파괴, 85,000여 가구의 부분파괴로 30만 명의 이재민 발생하였다고 보고(8.17)

- 경작지 피해 : 전체 경작지의 11%가 침수
 - 평남 2.6만 정보, 황남 2만정보, 황북 3.7만여 정보 침수·매몰
 - 양수장 200여 동, 물길 1,600여 개소, 농업구조물 480여 개소, 하천 800여개, 해안방조제 10여 개소 등 파괴

- 생산기반시설 : 철도·석탄·통신 등 전반적 생산기반시설이 파괴
 - 전력 : 송전선 전주 500여 개, 변압기 10여 개 파손, 대형 변전소 5개 침수, 40,000m 전선 유실, 허천강발전소, 부전강 6호발전소, 통천1호발전소 등 침수·파괴
 - 석탄 : 수십만톤 석탄 유실, 400여 개소의 갱, 채탄장, 굴진막장 침수, 90여 동 산업건물, 30여 동 공공건물 파괴, 탄광설비(전동기, 압축기, 전차, 변압기) 등 600여 개 침수, 200여 개소 75,000m³ 운탄선, 도로 단절
 - 철도 : 78,000m³ 철길노반(100여 개소), 200여 개소 철길, 4개소 터널 침수, 57개소 철도옹벽(36,000m³) 및 280m 철교 파괴, 13개 철도변전소 침수, 1,160여 개 통신전주, 120여 개 콘크리트전주 전복 등
 - 기타 : 평양-원산 간 도로 유실 등 통신·도로 등 기반시설 파괴

□ 지역별 주요 피해 현황 (8.18 현재)

- 평양 : 대동강과 보통강 범람으로 보통강구역과 선교구역이 침수되어 주택(6,400세대), 공공·생산건물(300여 개) 파손, 30여 개 지하도, 240여 개소 23,000m³ 도로 파괴, 농경지 8,200여 정보 침수
 - ※ 북한은 대동강 중·상류 지역에 과거 최대였던 1967년의 472mm보다 52mm 더 내렸다고 보도(8.15 중통)
- 강원도 : 250여 명 사망·실종, 살림집 28,000여 세대 파괴·침수
- 평안남도 : 주택 19,000여 세대 파손, 수재민 발생 17,000명, 농경지 26,000여 정

- 보 침수·유실, 탄광 20여 개 침수
- 황해북도 : 26,000여 세대 파손, 농경지 37,000여 정보 침수·유실
- 황해남도 : 주택 20,000여 세대 파괴, 농경지 20,000여 정보 침수
- 함경남도 : 주택 8,000세대 파괴, 농경지 9,000여 정보 침수

3. 북한의 수해복구 동향

- 북한 각 성·중앙기관 등 당국은 「큰물피해복구지휘부」를 조직, 주민·군부대를 동원하여 피해 대책 마련과 복구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
 - 국가계획위원회 등 각 성과 · 중앙기관에서 내부예비를 총동원, 시멘트·강재·연유 등 자재들을 우선 보장
 - 농업부문에서는 논밭 물도랑 치기 등 침수된 농경지 정리, 강·하천 제방보수공사 추진
 - 전력부문에서는 파괴·침수된 발전소 복구 및 대규모 저수지의 적정 수위 보장
 - 석탄부문에서는 저탄장 옹벽공사·물도랑 파기 등 저탄장 관리와 배수설비 정상가동으로 갯들의 침수 방지 주력
 - 철도·도로부문에서는 현장지휘부를 조직하여 파괴된 노반·철도 복구와 강·하천 등 복구에 인원·자재·설비 투입
 - 평양에서는 침수되었던 대동강, 보통강 강안도로 복구사업 주력
- 피해주민들을 대상으로 의약품·생필품 우선 제공 등을 통하여 동요 최소화 및 생활안정화에 주력
 - 수매양정성, 상업성은 식량·기초식품 최우선 보장, 보건성에서는 현장치료대를 조직, 피해지역 의약품 제공 및 의료봉사활동 진행
 - 조선적십자회에서는 16,000여 세대의 피해주민에게 모포, 천막, 물정화제 등 긴급구제물자 제공(8.18 중통)
 - ※ 북한은 현지주재 UN기구와 UN인도지원조정국(OCHA) 등에 수해상황을 설명하면서 긴급지원을 공식 요청(8.14)

4. 종합 평가

- 지난 8.7 이래 평양을 비롯한 북한 중부지역에 짧은 기간동안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림으로써 지난해 7월 수해에 비해 인명·재산피해의 규모가 보다 컸던 것으로 평가
 - 북측이 100년 만에 큰 피해라고 언급한 1995년과 비교해 볼 때도, 농경지 침수 등

재산피해에 있어서 버금가는 것으로 평가

※ “1995년 8월에는 100년 이래 처음으로 되는 큰물피해로 전국적으로 200여 만 톤의 논벼와 강내가 생산이 줄어들었고 100여 만 톤의 알곡재고량이 류실되는 등 손실액은 무려 150억 달러에 달하였음.” (1996. 8. 5, 북한 외교부 담화)

- 지역적으로는 강원도에서 인명·재산 피해가 가장 컸으며, 이어 황북, 평남, 함남 등에서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
 - 황해도를 비롯한 곡창지대를 중심으로 전국 농경지의 11%가 침수·매몰 등 농업 부문의 피해로 벼, 옥수수 등 곡물수확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 FAO는 올해 수해로 곡물수확량이 20-3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추정(8.18)
- 탄광·광산 침수로 석탄과 광물의 생산 감소, 철도·도로 유실로 인한 수송 애로 등으로 산업생산과 주민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북한의 경우 인력에 의한 복구가 일반적이고, 도로 유실 등으로 복구장비 동원이 용이하지 않아 앞으로 복구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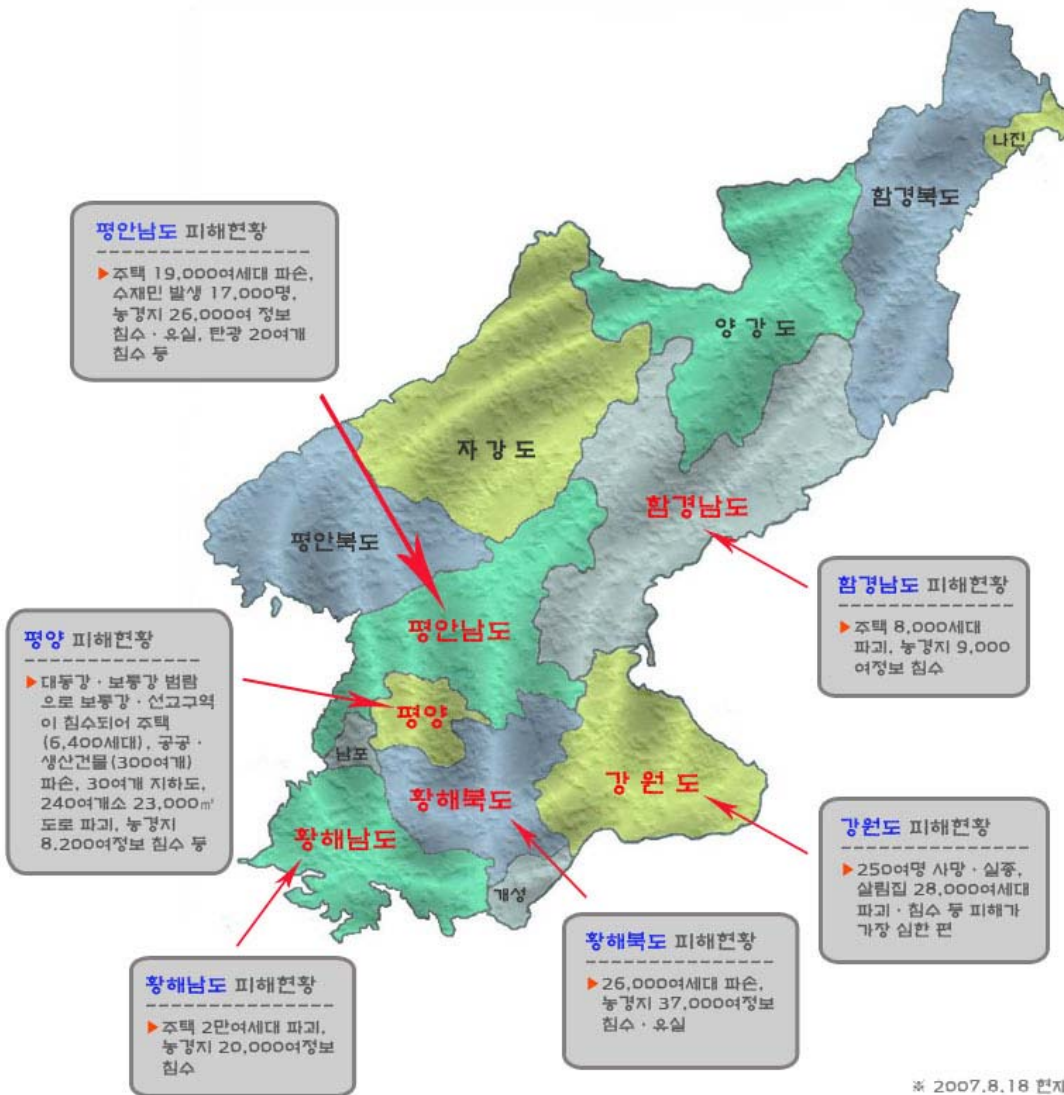
산업부문별 피해 현황(2007)

지역	피해 사항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논·강내가 밭의 11% 이상 침수·매몰·유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남 2.6만여 정보, 황남 2만여 정보, 황북 3.7만 정보 ○ 200여 동의 양수장, 1,600여 개소의 물길, 480여 개소의 농업구조물, 800여 개소의 하천 파괴 ○ 수백대의 양수기·전동기·변압기 등 침수·유실
전력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대 파괴, 변전소 침수, 변압기 등 설비 고장으로 송배전망이 두절되어 전력공급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천강발전소, 부전강 6호발전소, 통천1호발전소 등 침수 - 500여 대의 송전선 전주, 10개 변압기 파손, 5개 대형 변전소 침수
석탄/채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십만톤 석탄 유실, 400여 개소의 갱, 채탄장, 굴진막장 침수·붕괴 ○ 90여 동 산업거물, 30여 동 공공건물 파괴 ○ 탄광설비(전동기, 압축기, 전차, 변압기) 등 600여 개 침수 ○ 200여 개소 운탄선, 도로 단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덕천 : 수천톤 유실, 50여 개 갱, 채탄장, 굴진막장 침수 순천 : 40여개 갱, 채탄장, 굴진막장 침수
철도/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8,000㎡ 철길노반(100여 개소) 유실, 200여 개소 철길 단절, 4개소 터널 침수 ○ 57개소 철도옹벽(36,000㎡), 280m 철교 파괴 ○ 13개 철도변전소 침수, 1,160여 개 통신전주, 120여 개 콘크리트전주 전복으로 여객·화물 수송 중단
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 신양·양덕(평남), 세포·이천·고성(강원), 고원(함남), 개천(평남), 향산(평북)지구 통신 두절
살림집/공공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6,580여 동 88,400세대 주택 파괴 ○ 800여 개의 공공건물, 540여 개소의 다리 파괴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십만㎡의 통나무 유실 ○ 11,000여 대의 윤전기재, 양수기, 전동기 파괴

북한의 과거 호우 피해 실태

구분	시기	피해지역	주요피해상황
1995	'95.7.31~8.18	신의주, 강원, 황해 등 8개지역 145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실종 : 68명, 이재민 : 520만 명 ○ 주택파괴 : 98,000세대 ○ 농경지 : 36만 정보침수·유실 ○ 저수지 붕괴 : 102개소, 제방붕괴 : 13,065km ○ 피해추정액 : 120억 불
1996	'96.7.24~28	신의주, 강원, 황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실종 : 116명 ○ 이재민 : 327만 명 ○ 농경지 : 26만 정보 침수·유실
1999	'99.7.31~8.3	개성, 황해, 평남, 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경지 4만여 정보 침수, 2,300여 정보 유실·매물 ○ 도로 및 철로 파손 ○ 수백여세대의 주택 손실
2002	'02.8.3~5	개성, 황해, 평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도로, 다리 등 파손 ○ 농경지 유실 ○ 수십명의 사상자·행불자 발생
2004	'04.7.1~25	황해, 평남, 강원, 양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경지 유실 10만여 정보 ○ 철로 및 도로 파손 ○ 전기·통신시설 파손
2005	'05.6.30~8.4	평양, 평남, 평북, 함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행불 500여 명 ○ 주택 14,000세대 침수
2006	'06.7.10~16	황해, 평안, 강원, 함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행불 150명 ○ 농경지 2만7천 정보 ○ 공공건물 500여 동, 교량파괴 80개소 ○ 도로파괴 400km, 철교 10여 개소 등
2007	'07.8.9~	평양, 황해, 평안, 강원, 함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여 명 사망·실종, 이재민 30여만 명 ○ 농경지의 11%이상 침수 ○ 철도·도로 피해 540여 개소 ○ 공장·기업소 400여 개 침수 등

주요 지역 피해 현황(2007)



<자료3>

북한지역 집중호우 피해현황

(조선중앙통신 보도, 통일부 정리)

올해 집중호우 피해 상황

사망·실종	부상	주택	이재민	농경지	산업시설	공공시설
600여 명	수천명	24만세대	100만여 명	20만여 정보	1,000여 동	8,000여 동
철 도	도 로		광 업	석탄유실	전 력	수도망
1,000여 개소 78,000㎡ 산사태 200개소	2,000여 개소, 600km 교량 2,200개소 * 평양-개성고속도로, 평양-원산관광도로 포함		탄광 90여 개 갱 300개 막장 170개	수십만 톤	변전소 수십개 전주 800여 기	100개소

자료 : 조선중앙통신, 8. 15일자

□ 과거 홍수피해와 비교

- 1995년 「대홍수」와 비교한 이번 집중호우의 특징
 - 강수량 : 1995년 「대홍수」에 비해 짧은 기간에 집중 호우
 - 강수기간 : 19일간(1,092mm) → 8일간(796mm)
 - 1일평균강수량 : 58mm → 80-100mm
 - 강수지역 : 북한 전지역 → 중남부 지역 집중

피해규모 비교(1995, 2006, 2007)

구 분	1995년 대홍수	2006년 수해	2007년 수해
사망·실종	69명	150여 명	600여 명
주택손상	9.6만세대	3.6만세대	24만세대
농경지 침수	36만 정보	2.7만 정보	20여만 정보

<자료4>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성공업지구개발지원대책협의회의 업무)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개성공업지구개발지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할 수 있다.

1. 개성공업지구 개발계획(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가 작성하는 개성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주요 사항
2.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원과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주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관계 부처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주요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재정경제부·통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관세청·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각 1명
2. 남북관계와 개성공업지구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협의회에 출석하는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위원장의 요청으로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개발과 투자의 지원

제5조(자금지원)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수공급시설의 건설비
2.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의 건설비
3. 그 밖에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 등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것

제6조(기반시설의 지원)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 및 철도
2. 용수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및 가스시설
3. 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개성공업지구 안의 공동구(共同溝)
5.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6. 그 밖에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②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으로부터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개성공업지구 개발계획에서 정하여진 도로까지의 전기시설은 한국전력공사가 미리 설치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공급하는 자에게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절차)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으로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남북협력기금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8조(사전 협의)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단서, 제29조 및 제46조에 따른 비용부담, 시설 및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투자의 지원) ① 정부는 법 제12조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3.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6.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7. 「중소기업기본법」
 8.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9.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10.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1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1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② 정부는 제1항과 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한 지원이 남한기업에 대한 지원기준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시행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개성공업지구의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제2항의 지원은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한 남한주민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3장 출입 체류자의 보호

- 제10조(분사무소의 설치·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적용을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은 각각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분사무소를 개성공업지구에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제1항의 각 공단은 분사무소를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 분사무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 ③ 개성공업지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각 공단은 접경지(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분사무소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관할)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적용과 관련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는

- 접경지를 관할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의 장이 수행한다.
- ② 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적용과 관련된 직업안전기관의 장의 업무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접경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전기관의 장이 수행한다.
- ③ 법 제1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의료법」 제33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5조, 제48조, 제61조 및 제67조 등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경기도지사 또는 파주시장이 행사 또는 수행한다.
- ④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접경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행사한다.
1. 「근로기준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2. 「최저임금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4.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 ⑤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 또는 업무는 접경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가 행사하거나 수행한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권한 또는 업무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권한 또는 업무
- ⑥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및 남한 근로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접경지를 관할하는 근로감독관이 행사한다.
1. 「근로기준법」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권한
 2. 「최저임금법」 제26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권한
- ⑦ 법 제1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행정관청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노동조합 및 단위노동조합: 노동부장관
 - 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나. 개성공업지구와 다른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걸쳐있는 단위노동조합

2. 개성공업지구와 다른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단위노동조합: 경기도지사

3. 개성공업지구 내의 단위노동조합: 파주시장

제12조 (그 밖에 적용에 필요한 사항)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상시근로자의 수는 남한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임금총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나 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15조제1항 각 호를 적용받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사용자가 위 각 호의 각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투자한 남한주민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조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14조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의료법」,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은 제2항에 정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장 조세·왕래 및 교역에 관한 특례

제13조(통행차량의 등록 신청) 도로차량으로 남한과 개성공업지구 간을 통행하려는 자는 통행차량등록신청서를 접경지세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차량등록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수송장비운행승인서를 접경지세관장이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을 통행차량등록 신청으로 본다.

제14조(통행차량증명서의 발급) ① 통행차량의 등록 신청을 받은 접경지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차량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행차량증명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식 카드 또는 컴퓨터 판독용 부호가 부착된 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접경지세관장은 증명서의 발급업무를 통일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③ 통행차량증명서의 발급 절차, 유효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15조(출입확인과 출착·도착의 보고) ① 도로차량으로 개성공업지구를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할 때에 통행차량증명서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출입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자식 카드 등으로 통행차량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출입확인은 전자식 판독기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같음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확인을 거친 차량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법」 제149조 및 제150조에 따른 첨부 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반출·반입의 신고 및 검사) ① 개성공업지구로 물품을 반출하려는 자와 개성공업지구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출·반입 신고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반출·반입 신고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고 자료를 통관 시스템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며,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 제출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 자료를 통관 시스템에 전송한 후 반출·반입 신고서 및 관련 구비 서류를 세관장에 제출한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개성공업지구 개발과 투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구비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개성공업지구에서 반입되거나 개성공업지구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선별(選別)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검사 대상으로 선별된 경우에도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관리 또는 감시단속상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할 서류의 종류와 양식, 서류제출대상 선정의 기준 및 제4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7조(방문신고의 면제)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로 출입하는 남한주민 중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된 방문기간 내에서 방문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출입심사)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개성공업지구를 출입하는 남한 주민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출입신고서 제출을

면제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입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장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

제19조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자금, 인력 및물품 등을 지원하려면 통일부장관과 지원의 대상 및 방법 등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정관) ① 법 제19조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설립등기사항)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22조(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및 이사장을 제외한 3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는 상근(常勤)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이사와 감사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이사장의 임기는 3년,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⑥ 이사의 수와 상근으로 하는 이사의 대상 및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2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상근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분장(分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근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24조(이사회)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5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26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는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재단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 국유재산 관리청은 재단이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받은 국유재산(이하 “자산”이라고 한다)을 그 양여·대부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면 그 양여·대부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27조(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의 관리) ① 통일부장관은 재단의 자산이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관리되고 있는지 관리한다.

② 재단은 매년 자산의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재단에 자산의 관리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 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재단이 무상대부 받은 개성공업지구 내 자산을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및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에 따라 재단의 명의로 등록을 하면 해당 국유재산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른 관리청의 권리보전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⑤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양여 등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재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통일부장관을 거쳐 관계 부처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무원·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임직원 등의 파견) 재단은 그 임직원을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매 사업연도의 사업 실적
3.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계산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지도·감독 등) ① 통일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3조(공무원이 아닌 자의 파견 절차) ① 법 제20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공무원이 아닌 자를 북한에 파견하여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에 근무하게 할 경우 그 사유·기간·절차와 파견근무 중의 복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공무원이 아닌 자의 소속 기관·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을 지원하고 남북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북한에 공무원이 아닌 자를 파견할 필요가 있으면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직무 내용, 인원 및 직급 등을 명시하여 파견할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단의 설립준비) ① 통일부장관은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 ② 설립위원은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④ 설립위원은 재단의 설립등기 후 지체없이 재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⑤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 해촉된 것으로 본다.

<자료5>

정부 및 민간차원 무상지원액 세부내역

기간	정부차원	민간차원	합 계
'95	23,200만불 (1,854억원)	25만불 (2억원)	23,225만불 (1,856억원)
	쌀 15만톤 직접 지원	담요 8천매 국적 경유	
'96	305만불 (24억원)	155만불 (12억원)	460만불 (36억원)
	CSB, 분유, 기상자재 UN기구 경유	밀가루, 분유, 식용유 국적 경유	
'97	2,667만불 (240억원)	2,056만불 (182억원)	4,723만불 (422억원)
	CSB, 옥수수, 분유, 보건의료 등 UN기구 경유	옥수수, 밀가루, 감자, 라면 등 국적/남북적십자 경유	
'98	1,100만불 (154억원)	2,085만불 (275억원)	3,185만불 (429억원)
	옥수수 3만톤, 밀가루 1만톤 UN기구 경유	밀가루, 옥수수, 비료, 한우, 비닐, 등 남북적십자 경유	
'99	2,825만불 (339억원)	1,863만불 (223억원)	4,688만불 (562억원)
	비료 11.5만톤 직접지원	밀가루, 옥수수, 약품, 비료 4만톤 등 한적 / 독자창구(2.10~)	
2000	8,139만불 (978억원)	3,238만불 (387억원)	11,377만불 (1,365억원)
	비료 30만톤 직접지원	옥수수, 감귤, 의류, 설탕, 분유 등 한적 / 독자창구	
2001	7,522만불 (975억원)	6,017만불 (782억원)	13,539만불 (1,757억원)
	내의 150만벌, 옥수수 10만톤, 비료 20만톤, 말라리아 방역지원 직접지원/WFP/WHO경유	옥수수, 감귤, 의류, 설탕, 분유 등 한적 / 독자창구	
2002	8,915만불 (1,140억원)	4,577만불 (576억원)	13,492만불 (1,716억원)
	옥수수10만톤, 비료30만톤, 말라리아방역 직접지원/WFP/WHO경유	농기계, 의류, 의료장비, 씨감자 등 한적 / 독자창구	
2003	9,377만불 (1,122억원)	6,386만불 (766억원)	15,763만불 (1,888억원)
	말라리아 방역지원, 취약계층 지원, 비료 30만톤, 옥수수 10만톤 직접지원/WFP/UNICEF경유	동내의, 아동복, 밀가루, 항생제 등 한적/ 독자창구	
2004	11,541만불 (1,313억원)	13,250만불 (1,558억원)	24,791만불 (2,871억원)
	의약품, 긴급구호세트, 비료 30만톤 말라리아 방역지원, 옥수수 10만톤 직접지원/WFP/WHO경유	농자재, 피복, 감귤, 의료설비 등 한적/독자창구	
2005	13,588만불 (1,359억원)	7,666만불(779억원)	21,254만불 (2,138억원)
	말라리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지원, 비료 35만톤, 수해응급구호, 취약계층 직접지원/WHO/UNICEF경유	밀가루, 의료설비, 농업용비닐 등 한적/독자창구	
2006	23,367만불 (2,336억원)	7,088만불(709억원)	30,455만불 (3,045억원)
	비료 35만톤, 수해복구 지원(정산중), 말라리아 방제약품, 영유아 지원 직접지원/WHO/UNICEF경유	밀가루, 의류, 의료설비, 수해복구 등 한적/독자창구	
2007	23,214만불 (2,205억원)	5,659만불(536억원)	28,873만불 (2,741억원)
	비료30만톤(정산중), 수해복구, 구제역, 산림병충해 방제품(의결액 기준, 진행중), 말라리아 방제약품, 영유아, 식량 지원 직접지원/WHO/WFP/UNICEF경유	의류, 의료설비, 연탄, 농자재 수해복구 등 한적/독자창구	
9월 현재			
합계	135,760만불 (14,039억원)	60,065만불 (6,787억원)	195,825만불 (20,826억원)

주 : 민간에 대한 기금지원액 : 정부차원 지원액에 포함

분야별 무상지원 현황(2007.9.30 현재)

단위 : 만 달러

구분	'95-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9	누계
일반	23,680	4,329	2,891	565	1,435	6,067	4,174	6,157	10,472	4,346	12,072	11,853	88,041
구호	100%	92%	91%	12%	13%	45%	31%	39%	42%	20%	40%	41%	45%
농업	5	205	254	3,941	8,562	5,476	7,351	7,673	8,695	13,744	14,082	12,878	82,866
복구	0%	4%	8%	84%	75%	40%	54%	49%	35%	65%	46%	45%	42%
보건		189	40	182	1,380	1,996	1,967	1,933	5,624	3,164	4,301	4,142	24,918
의료		4%	1%	4%	12%	15%	15%	12%	23%	15%	14%	14%	13%
계	23,685	4,723	3,185	4,688	11,377	13,539	13,492	15,763	24,791	21,254	30,455	28,873	195,82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 식량차관 제외

<자료6>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 기간 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 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 양

대한민국 대통령 노 무 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 정 일

<자료 7>

제1차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 합의서

남과 북은 2007년 11월 5일 개성에서 제1차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을 갖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서 명시된 농업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남북농업협력사업 중 우선 시범적으로 축산협력사업을 착수하되, 평양시 강남군 고읍리 일대에 상시 사육두수 5천두(연산 1천톤, 사업기간 2년) 규모로 양돈협력사업을 진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확대 실시해 나가기로 한다.

남과 북은 빠른 시일내에 양돈협력사업을 협의·처리하는 총괄 이행기구를 지정하여 상대측에 통보하며 2007년 11월중 남북 전문가 공동으로 현장 답사를 실시한다.

2. 남측은 양돈협력사업 관련 시설 건축과 종돈·사료 등 사육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 물자를 차관방식으로 제공하며 차관합의서는 별도 협의를 통해 체결한다. 구체적인 제공 품목 및 수량,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쌍방의 이행기구가 협의하여 정한다.

북측은 양돈협력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력, 용수, 노동력 등을 제공하며 남측 인원들의 사업현장에 대한 방문, 기술지원,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 수송수단의 안전운행과 기타 편의를 보장한다.

3.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제2차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을 금년 중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4. 이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남북 당국이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5.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으며,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1월 5일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

남측 수석대표 김기혁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

북측 단장 김영철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¹⁾

표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1995.9~2007.10

구 분	목 표 (만달러)	실 적 ¹⁾ (만달러)	실적율 (%)	국가별 지원액 (만 달러)
1차 '95.9~'96.6	2,032	927	45.6	미국 222.5, 일본 50, EU 38 등
2차 '96.7~'97.3	4,364	3,439	78.8	EU 860, 미국 717, 일본 600, 한국 335 등
3차 '97.4~12	18,439	15,838	85.9	미국 4,537, EU 2,752, 일본 2,700, 한국 2,533 등
4차 '98.1~12	38,324	21,587	56.3	미국 17,185, 한국 1,087, EU 953, 덴마크 357, 캐나다 354, 노르웨이 304, 스웨덴 279, 호주 130 등
5차 '99.1~12	29,208	18,989	65.0	미국 16,070, EU 798, 스웨덴 383, 캐나다 340, 노르웨이 232, 호주 228, 덴마크 195, 핀란드 72 등
6차 '00.1~12	31,376	15,310	48.8	일본 9,566, 미국 2,923, 호주 666, EU 478, 스웨덴 280, 노르웨이 229, 캐나다 171, 덴마크 151, 핀란드 113 등
7차 '01.1~12	38,398	24,797	63.5	일본 10,489, 미국 10,270, 한국 1,579, 이탈리아 708, 독일 291, 호주 289, 스웨덴 244, 스위스 222, 노르웨이 189, 캐나다 170, 덴마크 151 등
8차 '02.1~12	24,684	22,001	89.1	미국 6,349, 한국 1,624, EU 947, 호주 339, 캐나다 245, 스웨덴 228, 영국 171, 노르웨이 144, 독일 135, 덴마크 101, 핀란드 70, 룩셈부르크 56 등
9차 '03.1~12	22,937	13,310	58.0	미국 3,152, 한국 1,683, EU 1,602, 러시아 1,000, 이탈리아 652, 캐나다 437, 스웨덴 407, 독일 323, 노르웨이 284, 네덜란드 220, 호주 176, 덴마크 154, 핀란드 125 등
10차 '04.1~12	20,880	15,158	72.6	일본 4,660, 한국 2,509, 미국 1,906, EU 1,557, 스웨덴 910, 호주 797, 캐나다 477, 독일 426, 이탈리아 403, 노르웨이 377, 아일랜드 304, 영국 182, 핀란드 119, 덴마크 116, 뉴질랜드 106, 룩셈부르크 81 등
'05.1~12 ²⁾	-	4,523	-	유럽연합 1,322, 독일 777, 스웨덴 549, 이집트 388, 노르웨이 324, 핀란드 291, 네덜란드 132, 캐나다 132, 한국 107 등
'06.1~12 ²⁾	-	1,915	-	한국 728, 스웨덴 498, 노르웨이 2,21, 호주 78, 아일랜드 70, 덴마크 69, 네덜란드 65, 독일 63, 핀란드 59 등
'07.1~10 ³⁾	-	8,142	-	한국 1,760, 유엔긴급지원자금 1,110, 호주 524, 스웨덴 456, 독일 432, 유럽연합 401, 노르웨이 258, 스위스 236 등
총 계	-	165,937	-	

주: 1) 유엔인도지원사무국(UNOCHA)이 발표하는 Financial Tracking Database 자료에 나타난 실적이며 실제 지원된 금액만을 집계한 것임.

2) 2005년부터 유엔합동호소에 의한 통합지원은 폐지되고 개별지원으로 전환됨.

3) 긴급수해복구 지원도 포함.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Oct. 31, 2007)

표 2 2007년도 지원창구별 지원 실적 (2007.1.1~10.31)

지원창구	지원내역	지원국	지원액(달러)
양자지원(정부)	수해 지원	러시아	637,000
	수해 지원	한국	7,862,680
		소계	8,499,680
CONCERN	수해 지원	아일랜드	141,689
	식량안보 및 보건 지원	스웨덴	827,883
		소계	969,572
유럽연합 프로그램 지원단 1	수해 지원	ECHO	595,745
		소계	595,745
유럽연합 프로그램 지원단 2	수해 지원(물 및 위생)	ECHO	170,213
		소계	170,213
FAO	유엔긴급지원자금 지원	유엔긴급지원자금	600,000
	2007년 여름작물 생산 지원	유엔긴급지원자금	700,000
		소계	1,300,000
GAA	식량안보 개발지원	독일	1,142,473
	수해 지원(비식품)	독일	205,198
		소계	1,347,671
독일적십자사	의약품 및 의료장비 지원	독일	109,439
	약품 및 의료장비 지원	독일	695,364
		소계	804,803
Handicap International	식량안보 및 보건 지원	스웨덴	551,922
		소계	551,922
국제적십자연맹	수송	독일적십자사	19,867
	인도적 지원	일본적십자사	258,750
	인도적 지원	덴마크적십자사	50,838
	수해 지원	싱가폴적십자사	35,077
	DREF 교체	네덜란드적십자사	54,647
	수해 지원	국제적십자연맹	208,333
	수해 지원	뉴질랜드	381,679
	수해 지원(수인성 전염병 예방)	ECHO	136,240
	15 IEHK	독일	136,289
	수해 지원	싱가폴	35,077
	보건, 물 및 위생	핀란드	666,667
	큰물피해대책위원회 요청	캐나다	233,645
	인도적 지원	영국적십자사	60,500
	소계	2,277,609	
Medical Assistance International	수해 지원(의약품)	국제의료지원 프로그램	750,000
		소계	750,000
Mercy Corps	수해 지원(의약품)	개인 및 기관	12,500,000
	수해 지원	미국	50,000
	수해 지원(의약품, 의류)	개별 기구	830,000
		소계	13,380,000
노르웨이 적십자사	큰물피해대책위원회 요청 지원	노르웨이	2,184,874
		소계	2,184,874

지원창구	지원내역	지원국	지원액(달러)
개인 및 개별기구	수해 지원	개인 및 개별기구	5,227,021 소계 5,227,021
Psykisk Helsevern Norum	정신병프로젝트	노르웨이	60,504 소계 60,504
호주적십자사	재난관리, 물 및 위생 지원	호주	403,877 소계 403,877
Samaritan's Purse	수해 지원	미국	50,000 소계 50,000
Save the Children	식량안보 및 보건 부문 지원 함경남도 기초 건강관리	스웨덴 영국	827,883 304,260 소계 1,132,143
스웨덴적십자사	백신접종 지원 보건 및 의료 지원 수해 지원(보건의료 및 물)	스웨덴 스웨덴 스웨덴	70,561 290,469 576,360 소계 937,390
SDC	수해 지원	스위스	5,738 소계 5,738
Triangle	식량안보 및 보건 부문 지원	스웨덴	413,942 소계 413,942
유엔기구 및 NGOs	기초 의약품 물 염소소독 지원	ECHO ECHO	341,997 136,799 소계 478,796
UNICEF (유엔아동기금)	모자보건 모자보건 프로그램 물 및 위생 프로그램 인도적 지원 긴급영양지원 모자보건 영양 및 보건 서비스 지원 등 긴급지원 영양개선 긴급지원 보건, 물 및 위생사업 물 및 위생사업 긴급지원 긴급지원 수해 지원 긴급지원	이태리 ECHO 호주 스웨덴 독일UNICEF 유엔긴급지원자금 한국 유엔긴급지원자금 한국 캐나다 한국 유엔긴급지원자금 UNICEF홍콩 UNICEF한국	384,616 1,945,530 1,239,675 1,000,020 723,610 1,700,000 3,150,000 3,100,000 500,000 235,849 500,000 500,000 100,000 200,000 소계 15,279,300
UNPF (유엔연구기금)	출산보건서비스 긴급지원 긴급지원 출산 및 신생아 보건 지원	노르웨이 유엔긴급지원자금 유엔긴급지원자금	180,000 300,000 300,000 소계 780,000

지원창구	지원내역	지원국	지원액(달러)
WFP (세계식량계획)	WFP 대북 활동지원	터키	100,000
	식량지원	아일랜드	337,838
	취약계층 긴급지원	유엔긴급지원자금	2,298,577
	식량지원	호주	1,211,632
	수해 긴급지원	영국	1,010,670
	식량지원	ECHO	681,199
	식량지원(밀 1,976톤)	독일	2,027,027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	스위스	604,167
	취약계층 지원	룩셈부르크	341,530
	식량지원	캐나다	471,698
	식량지원	영국	1,006,036
	수해 지원	유엔긴급지원자금	800,000
	긴급지원	핀란드	410,396
	수해 지원	스위스	1,747,541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	룩셈부르크	100,221
	식량지원	덴마크	182,627
	수해 긴급지원	호주	1,574,803
		소계	14,905,962
WHO (유엔보건기구)	홍역예방접종	한국	1,050,000
	보건 및 기초의약품 긴급지원	호주	395,733
	강원도 보건 및 의료지원	이태리	1,231,190
	홍역예방접종	이태리	133,333
	여성 및 어린이 보건 지원	한국	3,500,000
	말라리아 예방	한국	36,566
	긴급지원	유엔긴급지원자금	800,000
	기초의약품 및 보건지원	호주	409,836
	수해 지역 보건지원	한국	1,000,000
	현금 및 현물지원	노르웨이	156,669
	수해 지역 의료키드 긴급지원	한국	200,000
		소계	8,913,327
합 계			81,420,089

주: 전체 지원액 81,429,089달러 중 8월의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금은 43,420,089달러임.

자료: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Oct. 31, 2007)

표 3 2007년도 분야별 지원 실적 (2007.1.1~10.31)

분 야	지원내역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농 업	2007년 여름작물 생산 지원	유엔긴급지원자금	FAO	700,000
	긴급지원	유엔긴급지원자금	FAO	600,000
				소계 1,300,000
조정/ 지원	수송	독일	국제적십자연맹	19,867
	DREF 교체	네덜란드	국제적십자연맹	54,647
				소계 74,514
식 량	식량지원	캐나다	WFP	471,698
	수해긴급지원	영국	WFP	1,006,036
	긴급지원	유엔긴급지원자금	WFP	800,000
	수해긴급지원	핀란드	WFP	410,396
	수해긴급지원(PRRO 10488)	덴마크	WFP	182,627
	식량지원	유럽연합	WFP	681,199
	식량지원	룩셈부르크	WFP	100,221
	수해지원	호주	WFP	1,574,803
	WFP 대북 활동 지원	터키	WFP	100,000
	식량지원	아일랜드	WFP	337,838
	취약계층 구호지원	유엔긴급지원자금	WFP	2,298,577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	스위스	WFP	1,747,541
	식량지원	호주	WFP	1,211,632
	식량지원 - PRRO 10488	독일	WFP	2,027,027
	수해긴급지원	영국	WFP	1,010,670
	취약계층지원	룩셈부르크	WFP	341,530
	스위스 낙농제품 지원	스위스	WFP	604,167
				소계 14,905,962
보 건	영양개선 긴급지원	한국	UNICEF	500,000
	모자보건 지원	유엔긴급지원자금	유엔인구기금	300,000
	홍역예방	한국	WHO	1,050,000
	현금 및 현물 지원	노르웨이	WHO	156,669
	모자보건 프로그램 지원	유럽연합	UNICEF	1,945,530
	강원도 보건 및 의료지원	이태리	WHO	1,231,190
	함경남도 기초보건 지원	영국	영국 SC	304,260
	보건 및 기초의약품 지원	호주	WHO	395,733
	모자보건 긴급지원	유엔긴급지원자금	UNICEF	1,700,000
	말라리아 방제	한국	WHO	36,566
	수해 지역 기초의약품 지원	유럽연합	유엔 및 NGOs	341,997
	수해지역 의약품 현물지원	민간단체	Mercy Corps	12,500,000
	긴급지원	유엔긴급지원자금	WHO	800,000

분 야	지원내역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보 건	기초의약품 지원	호주	WHO	409,836
	2006-07 인도적 지원	스웨덴	UNICEF	1,000,020
	수해지역 기초보건서비스	한국	WHO	1,000,000
	정신병프로젝트	노르웨이	Psykick	60,504
	모자보건	이태리	UNICEF	384,616
	긴급영양지원	독일UNICEF	UNICEF	723,610
	긴급지원	유엔긴급지원자금	UNICEF	3,100,000
	수해지역 보건키트 수송	스위스	SDC	5,738
	수해지역 보건키트 지원	독일	독일적십자	109,439
	인도적 지원	스웨덴	스웨덴적십자	290,469
	수해지역 긴급의료지원	유럽연합	유럽연합	595,745
	백신예방 지원	스웨덴	스웨덴적십자	70,561
	긴급지원	유엔긴급지원자금	UNICEF	500,000
	홍역백신 지원	이태리	WHO	133,333
	모자보건 증진	한국	WHO	3,500,000
	의약품 및 의료장비 지원	독일	독일적십자	695,364
	출산보건 지원	노르웨이	유엔인구기금	180,000
	긴급지원	유엔긴급지원자금	유엔인구기금	300,000
소계				34,321,180
다부분	수해지역 보건의료, 물	스웨덴	스웨덴적십자	576,360
	식량안보 및 보건 지원	스웨덴	CONCERN	827,883
	의약품 및 의류지원	개인	Mercy Corps	830,000
	수해긴급지원	아일랜드	CONCERN	141,689
	질병관리, 물 및 위생	호주UNICEF	호주적십자	403,877
	식량안보 및 보건 지원	스웨덴	Handicap Int'l	551,922
	식량안보 및 보건 지원	스웨덴	Triangle	413,942
	인도적 지원	영국	국제적십자연맹	60,500
	인도적 지원	덴마크	국제적십자연맹	50,838
	수해 지원	싱가폴	국제적십자연맹	35,077
	수해 지원	국제적십자연맹	국제적십자연맹	208,333
	북한적십자사 지원	월드비전	월드비전코리아	200,000
	수해지역 식품 및 구호키트	국제의료지원단	국제의료지원단	750,000
	수해지역 의약품 등 지원	개인	개인 및 단체	5,227,021
	국제적십자연맹 지원	노르웨이	노르웨이적십자	2,184,874
	수해지역 긴급 현물지원	한국	양자지원	7,862,680
	영양, 보건서비스 등	한국	UNICEF	3,150,000

분 야	지원내역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다부문	식량안보 등 개발지원	독일	GAA	1,142,473
	식품 등 현물지원	러시아	양자지원	637,000
	식량안보 및 보건 지원	스웨덴	영국 SC	827,883
	긴급지원	독일	국제적십자연맹	136,289
	수해지역 긴급지원	싱가폴	국제적십자연맹	35,077
	보건, 물 및 위생 지원	핀란드	국제적십자연맹	666,667
				소계 26,920,385
미분류	국제적십자연맹 지원	캐나다	국제적십자연맹	233,645
	긴급수해지원	홍콩	UNICEF	100,000
	보건, 물 및 위생 지원	캐나다	UNICEF	235,849
	긴급지원	한국	UNICEF	200,000
	수해지원	뉴질랜드	국제적십자연맹	381,679
	인도적 지원	일본	국제적십자연맹	258,750
				소계 1,409,923
주거 및 비식품	수해물자지원	미국	Mercy Corps	50,000
	수해물자지원	독일	GAA	205,198
	수해물자지원	미국	Samaritans's	50,000
			소계 305,198	
식수와 위생	식수와 위생프로그램	호주	UNICEF	1,239,675
	식수 소독 긴급지원	유럽연합	유엔 및 NGOs	136,799
	수해지역 물 및 위생지원	유럽연합	EU 지원단 2	170,213
	수해지역 수인성 질병예방	유럽연합	국제적십자연맹	136,240
	물 및 위생지원	한국	UNICEF	500,000
			소계 2,182,927	
합 계				81,420,089

자료 :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Oct. 31, 2007)

표 4 2007년도 원조국별 지원 실적 (2007.1.1~10.31)

지원국	지원액(달러)
유엔긴급지원자금(CERF)	11,098,577
한 국	17,799,246
호 주	5,235,556
스 웨 덴	4,559,040
독 일	4,315,790
유럽연합	4,007,723
노르웨이	2,582,047
스 위 스	2,357,446
영 국	2,320,966
이 태 리	1,749,139
핀 란 드	1,077,063
캐 나 다	941,192
러 시 아	637,000
아일랜드	479,527
룩셈부르크	441,751
뉴질랜드	381,679
덴 마 크	182,627
터 키	100,000
미 국	100,000
싱 가 폴	70,154
개인 및 단체	20,983,566
합 계	81,420,089

자료 :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Oct. 31, 2007)

2.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단체 동향

가. 유엔기구

□ 유엔인도지원조정국의 북한 홍수 상황보고서 제5호

- 이 보고서는 북한의 홍수 상황에 대한 유엔기구, 국제적십자연맹, 프로그램지원단, 북한정부, 유엔인도지원조정국 아시아지역사무소의 정보를 종합하여 작성됨.

- 상황
 - 8월 7-14일 동안 평양을 포함하여 북한의 149개 군에서 호우가 발생함.
 - 이번 홍수로 인해 강원, 황해북도, 황해남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양강도, 자강도 등지에서 100만 명에 가까운 주민이 피해를 입음.
 - 북한당국이 8월 24일 추계한 바에 의하면 홍수로 인해 사망 454명, 실종 156명, 부상 4,350명이 발생함.
 - 북한 통계국은 가옥 붕괴 40,463채, 침수 133,732채, 파손 67,056채로 발표
 - 조선중앙방송은 학교와 병원을 포함하여 공공건물 8,000동이 붕괴 또는 파손을 입은 것으로 보고함.
 - 대부분의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남부 지역의 저지대는 침수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작물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됨.

- 북한의 대응
 - 북한 당국은 수해 복구를 위하여 주민들과 군인을 동원하고 있으며 국방위원회가 주도가 되어 구호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조선적십자사는 14,000명의 자원봉사자를 통해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 평가, 구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한국 정부가 8월 24일 4,000만 달러 상당의 천막, 건설자재, 중장비를 지원키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지원은 필요로 하지 않음.

○ 국제사회의 대응

- 북한 당국은 유엔에 공식적으로 긴급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데 이어 8월 27일에는 유엔의 긴급구호조정국에도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유엔은 즉각 북한의 홍수 피해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합동호소를 개시함.
- 유엔은 합동호소를 통해 향후 3개월 동안 홍수 피해를 입은 북한의 취약계층에 총 1,4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며 주로 기초의약품, 식수, 식량 등을 제공함.
-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아동기금은 이미 의료키트, 정수제를 공급하기 시작하였으며 전문가를 통해 어느 정도의 보건시설이 필요한지 평가할 계획임.
- 세계식량계획은 피해 정도가 심한 37개 군의 20만 명을 대상으로 긴급 식량지원을 개시함.
- 국제적십자연맹은 8월 20일 548만 달러의 긴급지원을 호소하여 8월 28일까지 32%의 기금을 확보함.
- 스웨덴 정부(SIDA)는 스웨덴 적십자를 통해 400만 크로네를 북한 적십자에 전달하였으며 향후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 체코는 국제적십자연맹을 통해 25,000 달러의 지원 의사를 밝힘.
- 한국 정부는 일차로 40대 분의 라면, 담뇨, 긴급구호키트, 생수 등 750만 달러의 긴급지원을 실시하였음.
- 한국의 현대아산은 금강산관광지역을 통해 740톤의 구호물품을 8월 말까지 전달할 예정임.

자료: <http://www.relief.int> (UN OCHA, DPR Korea: Floods OCHA Situation Report No. 5, 28 Aug 2007)

□ 유엔의 북한 홍수 피해 지원을 위한 합동호소

- 2007년 8월에 발생한 홍수로 인하여 북한은 유엔에 공식적으로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유엔은 즉각 국제사회에 긴급 합동호소(Flash CAP)를 요청함.
- 북한에서 활동중인 유엔기구와 유럽연합 프로그램지원단(EUPS)이 제출한 긴급 합동호소에는 총 6개 분야의 11개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음.
- 총 지원금액은 14,102,922달러로 향후 3개월 동안 홍수 피해가 심각한 지역의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북한 홍수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 합동호소 내용

(2007. 8. 27 현재)

분 야	필요액(달러)
농 업	800,000
교 육	1,000,000
식 량	4,652,922
보 건	6,660,000
식수 및 위생	990,000
합 계	14,102,922

지원 요청 기관	필요액(달러)
EUPS1	720,000
EUPS2	650,000
FAO	800,000
UNFPA	480,000
UNICEF	4,200,000
WFP	4,652,922
WHO	2,600,000
합 계	14,102,922

○ 전체 피해 상황

영 향	피해 규모
사망	454명
실종	156명
부상	4,351명
피해지역	9개 도 149개군(평양, 평안남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함경남도, 강원도, 평안북도, 양강도, 자강도)
직접피해	총피해자 960,000명 이재민 170,000명
공공건물 파손 및 침수	2,781동
농경지 피해	전체 농경지 면적의 10% 223,381ha(벼, 옥수수, 기타 작물) 농업구조물 488개소 파손

주: 북한 당국이 밝힌 2007. 8. 22 현재 상황임.

○ 농업부문 피해 및 호소 내용

- 8월 16일 현재까지 파악된 작물별 피해면적은 벼 132,032ha, 옥수수 73,349ha, 콩 6,769ha, 기타 작물 11,231ha 등 총 223,381ha
- 벼는 전체 재배면적의 20%, 옥수수는 15%가 피해를 입었음.
- 향후 기상여건이 좋더라도 피해 농경지는 정상 수량의 20~30% 정도 감소될 것으로 추산
- 수해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밀, 보리 등 이모작에 필요한 비료, 비닐, 종자 등을 긴급 지원해야 함.

○ 식량안보

- 세계식량계획이 북한의 식량 지원을 위해 2006년 5월 개시한 PRRO(Protracted Relief and Recovery Operation)은 지원금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임.
- 북한의 수해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PRRO는 계속 진행하면서 수해 피해 지역의 어린이 급식, 모자 영양 보충을 위한 급식, 취약지역의 지역 개발을 위한 식량 지원 등을 별도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향후 3개월 동안 215,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일 1,900kcal의 열량을 공급하기 위하여 밀가루, 콩, 채소, 식용유, 식당 등을 공급할 계획이며 소요되는 예산은 4,652,922달러임.
- 긴급 식량지원을 위해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당국과 수송, 보관, 조작 등에 합의한 후 국제요원들이 사전평가, 모니터링, 사후평가 등 통상적인 지원 절차를 지켜나갈 것임.
- 이번에도 세계식량계획은 접근 가능한 지역에만 지원한다는 원칙(no access-no food)을 지켜 나갈 것임.

자료: *United Nations, DPRK Floods 2007: Consolidated Appeals Process, Aug 2007.*

□ OCHA의 북한 홍수 상황보고서 제8호

○ 상황

- 2007년 8월 7일부터 14일 동안 북한의 많은 지역에서 폭우가 쏟아져 170,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수해 피해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100만 명에 달함.
- 수해로 인해 많은 인명이 사망, 실종, 부상을 입었으며 경제적 손실도 막대함.

- 북한 당국 및 국제사회의 대응
 - 북한에 상주하는 유엔기구와 협력 파트너들은 북한 당국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홍수 발생 이후 4주 동안 긴급구호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모든 비상주 지원자들은 유엔상주조정사무소를 통해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협력 기구와 함께 활동하도록 요청을 받고 있음.
 - 북한 지원을 위한 유엔의 재원이 부족하지만 홍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것이 확인되고 있음.
 - 유엔기구는 복구사업을 위해서는 기구당 적어도 1명 이상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북한의 조정위원회에 알리고 인력 지원을 요청함.
 - 유엔기구는 보건, 식량, 농업 부문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하여 CERF(유엔기금 구호자금)에 300만 달러의 무상 지원을 요청함.

- 식량안보 부문
 - 세계식량계획은 37개 지역을 대상으로 215,000명의 수혜자에게 1차로 40일 분의 곡물과 콩, 90일 분의 설탕과 식용유를 분배하고 10월 중순 2차 분배를 실시할 계획임.
 - 중국 국경을 통해 5,000톤 이상의 곡물을 철도, 도로를 통해 수해 지역에 긴급 수송 완료함.
 - 수해를 심각하게 입은 지역에는 2주 이내 트럭 500대 분량의 식량이 지원되어야 함.

자료: <http://www.relief.int> (OCHA, DPR Korea: Floods OCHA Situation Report No. 8, Sep. 17, 2007)

□ 북한, 태풍 위파로 피해

- 북한 중앙방송은 태풍 위파의 영향으로 9월 18일부터 20일 사이 서해안 지방에 엄청난 비가 내렸다고 보도함.
 - 강수량을 살펴보면 평양시 268mm, 황해남도 장연군 368mm, 은률군 338mm, 용연군 314mm, 신천군 309mm, 남포시 335mm, 평안남도 성천군 254mm, 양덕군 231mm, 맹산군 228mm, 온천군 226mm 등임.
 - 이 밖에 황해북도 사리원시 308mm, 황주군 274mm, 신계군 235mm, 서흥군 229mm, 수안군 226mm 등의 강우를 기록함.

- 이 외 강원도 지방에는 천내군 230mm를 비롯하여 법동군에도 폭우가 쏟아졌으며 함경남도의 요덕군에도 많은 비가 내림.

자료: <http://www.relief.int> (Korean Central News Agency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hit by Wihph-accompanied downpour, 21 Sep 2007)

□ OCHA의 북한 홍수 상황보고서 제9호

- 8월 7일부터 14일까지 북한의 9개도에 내린 폭우로 인명피해와 함께 엄청난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데다 9월 18일부터 20일 사이에 발생한 태풍 위파의 영향으로 평안남도, 황해남도 등 서해안 지방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됨.
 - 농업부문은 지난 8월의 집중 호우로 인해 전체 농경지의 10%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됨.
 - 농업성에 의하면 8월의 집중 호우로 인하여 토끼 30,000마리, 가금 7,649수, 소, 염소 등 가축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짐.

자료: <http://www.relief.int>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DPR Korea: Floods OCHA Situation Report No. 9, 24 Sep 2007)

□ 유엔, 태풍 피해를 입은 북한에 구호 착수

- 유엔 기구들은 태풍 위파의 영향으로 지난 8월에 이어 또 다시 물난리를 겪게 된 북한 지원 호소에 나섬.
 - 북한 중앙통계국에 의하면 지난 8월의 집중 호우로 인해 100만 명이 영향을 받았으며 이 중 170,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사망 454명, 실종 156명, 부상 4,351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됨.
 - 이 밖에 40,463채의 가옥이 파괴되고 133,732채의 가옥이 침수되었으며 67,056채의 가옥이 심하게 파손됨. 또한 8,000동의 공공건물이 파괴되거나 심하게 파손되었음.
 - 지난 달 유엔은 1,410만 달러의 긴급지원호소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12%인 171만 달러밖에 모금되지 못함.
 - 유엔은 지원을 약속한 478만 달러가 하루 빨리 지원되기를 희망함.

- 제1차 식량분배를 끝낸 세계식량계획은 10월 중순부터 실시되는 제2차 식량분배를 위하여 미리 식량재고를 재배치하고 있음.

자료: <http://www.relief.int> (United Nations News Service: With typhoon compounding flood damage in DPR Korea, UN steps up relief, 25 Sep 2007)

□ 유엔 북한 수해 모금액 12%...신속지원 당부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북한의 수해복구를 위해 국제사회에 호소한 금액의 12%만 모금되었다며 각국에 신속한 지원을 당부함.
 - 유엔 OCHA는 지난 8월 2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제사회에 1,400만 달러의 지원을 요청하였지만 지금까지 목표액의 12%에 불과한 171만 달러만 모금되었다며 지원을 약속한 국가들이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함.
 - 유엔은 모금된 액수가 목표액에 1/10 수준에 그침에 따라 9월 19일 유엔 산하의 중앙긴급대응기금(CEFR)에 보건, 식량, 농업부문 지원을 위해 300만 달러를 추가로 요청함.
- OCHA는 북한 농업성의 통계를 인용하여 지난 수해로 인해 많은 가축이 유실되었을뿐만 아니라 가축 질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수의약과 가축방역이 필요하다고 밝힘.
 - 수해지역 9개도 가운데 5개도에서 토끼 3만 마리, 닭 등 가금류 7,649마리, 소와 염소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됨.

자료: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7/09/27/0504000000AKR20070927205000014.HTML> (연합뉴스, 2007. 9. 27)

<http://www.relief.int> (UNOCHA, DPR Korea: Floods OCHA Situation Report No. 9, Sep. 24 2007)

□ OCHA의 북한 홍수 상황보고서 제13호

- 식량안보
 - 세계식량계획은 1차로 수해피해 지역 37개 군 215,000명에게 5,500톤의 식량을 분배한 데 이어 10월 중순부터 2차로 4,800톤의 식량을 추가로 분배할 계획임.

- 1차 분배 현장 확인을 위하여 9월 5일부터 14일 동안 동해안 18개 지역을 방문하였으며 나머지 서해안 19개 지역은 11월 초까지 현장 방문 확인을 마무리 할 예정임.
- 세계식량계획은 수해피해지역 긴급구호를 위하여 4개월 동안 3차에 걸쳐 식량을 분배할 계획임.
- 세계식량계획은 수해피해 지원을 위하여 긴급호소를 개시한지 수주일 안에 510만 달러를 모금하였음. 그러나 세계식량계획이 추진하고 있는 통상적인 식량지원 활동을 2008년 8월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1,740만 달러가 추가로 모금되어야 함.

○ 농업

- 종자, 비료, 비닐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중앙긴급대응기금(CEFR)으로부터 600,000 달러를 지원받음.
- 조달된 품목들은 2008년 2월에 파종할 작물을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도착할 것으로 보임.
- 현재 콩과 옥수수는 수확이 끝났으며 벼와 가을배추는 수확인 진행중임.

자료: <http://www.relief.int> (OCHA, DPR Korea: OCHA Situation Report No. 13. Oct. 22, 2007).

나. 개별국가 및 비정부기구

□ 러시아, 북에 수해복구비 30만 달러 지원

- 러시아는 40년 만에 최악의 홍수 피해를 입은 북한에 수해 복구비로 30만 달러를 지원키로 했다고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함.
- 러시아 연방정부는 8월 30일 열린 정부회의에서 북한에 30만 달러의 수해 복구 지원안을 승인함.
- 복구 지원안 가운데 일부는 천막과 의료품, 식료품 형태로 지원되며 이미 수송기 3대를 준비하고 있음.
- 또한 러시아 정부는 북한에 제공할 식량 지원을 위해 세계식량계획에 대한 기부금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러시아 정부는 세계식량계획에 매년 1,100만 달러를 기부하고 있음.

자료: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7/08/30/0504000000AKR20070830217300080.HTML>(연합뉴스, 2007. 8. 30)

□ 중국, 홍수 피해 북한 지원 공식 발표

- 중국 정부는 8월 30일 홍수를 입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함.
-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북한의 재해 상황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피해 상황과 실제 수요에 근거하여 의약품과 의료 기구 등 인도적 지원을 제공키로 했다고 발표함.

자료: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7/08/30/0504000000AKR20070830190900083.HTML>(연합뉴스, 2007. 8. 30)

□ 핀란드 외교부는 페루의 지진과 북한의 홍수 희생자를 돕기 위해 지원 제공

- 핀란드 외교부는 북한의 홍수 피해 지원을 위한 유엔의 합동호소에 대응하여 30만 유로를 기부하기로 발표함.
- 북한은 최근 집중 호우로 인해 500명이 사망하였으며 240,000채의 가옥이 파괴되어 100만 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함.

자료: <http://www.relief.int>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grants support for earthquake victims in Peru and flood victims in North Korea, 30 Aug 2007).

□ 한국, 북한 수해지원 493억원 집행 의견

- 한국 정부는 9월 4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서면 개최하여 북한 수해 복구자재, 장비 및 부대비용, 유엔을 통한 북한 수해지원 비용 등에 소요되는 493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안건을 의결함.
- 추진협의회는 493억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올해 남북협력기금 중 ‘인도적 사업비’를 당초 2,560억원에서 450억원 증액하는 안건을 의결함.
- 의결된 기금은 수해 복구를 위한 자재, 장비 구입에 374억원, 수송비와 예비비 100억원 등에 474억이 사용되고 유엔의 지원 요청에 따라 200만 달러(한화 약 19억

원)가 집행될 예정이다.

- 정부는 북한 수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8월 말 시멘트 10만 톤, 철근 5천 톤, 트럭 80대(8톤 20대, 5톤 60대), 경유 500 톤, 다짐로라 20대, 피치 2만 톤 등을 지원키로 결정하였으며 9월 10일부터 수송이 시작될 예정이다.

자료: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7/09/04/0501000000AKR20070904083400043.HTML>(연합뉴스, 2007. 9. 4)

□ 미-북 직항편으로 북에 구호물품 공수

- 미국의 민간구호단체인 사마리탄즈 퍼스(Samaaritan's Purse)는 북한 수해복구를 돕기 위해 800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지원함.
 - 이 중에는 미국 정부가 지원한 5만 달러도 포함되어 있음.
 - 사마리탄즈 퍼스는 8월 30일 보인 747 전세기 편으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로트시를 출발하여 31일 평양에 도착함.
 - 구호물품은 항생제 및 수인성질병 예방약을 포함한 의약품, 정수장치, 공구, 담노 등 75톤 가량임.
 - 구호품중 중에는 7,000여 가구분의 임시주거용 강화 플라스틱판 두루마리 1,000개도 포함되어 있으며 재난지역 임시주택을 건설한 경험이 있는 기술진과 의사도 포함되어 있음.
 - 이번 북한 수해를 돕기 위해 미국 정부는 10만 달러를 사마리탄즈 퍼스와 머시 코(Mercy Corps) 등 2개의 민간구호단체에 각각 5만 달러씩을 지원하였는데 머시 코는 수재민을 돕기 위하여 의료품과 옷 등 83만 달러 상당을 지원함.

자료: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7/09/03/0504000000AKR20070903170600014.HTML>(연합뉴스, 2007. 9. 4)

□ 경상남도, 북에 보리쌀, 시멘트 지원

- 경상남도가 수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식량과 시멘트 등을 지원품을 보냄
 - 경상남도는 9월 3일 도청 광장에서 보리쌀(찰쌀보리) 20kg들이 410포대, 시멘트

40kg들이 2,000포대, 철근 25톤, 농약 500ml들이 1,680병, 등 25톤 트럭 8대 분량의 대북 지원물품 환송행사를 가짐.

- 지원물품은 총 5,000만원 상당이며 전액 도의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하였으며 운송비 1,500만원은 도와 함께 경남통일농업협력회가 부담함.
- 경상남도가 지원하는 물품은 북한의 민화협에 전달되어 평양시 장교리를 포함한 강남군 일원의 수해지역에 사용될 예정임.

자료:<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7/09/03/0504000000AKR20070903158000052.HT>
ML(연합뉴스, 2007. 9. 4)

□ 천주교, 의료, 농업분야 물품 대북지원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한국 카리타스)는 북한에 1억 8천만원 상당의 의료, 농업분야 물품을 지원한다고 밝힘.
- 이 물품은 교황청에 본부를 둔 국제 구호단체인 ‘국제 카리타스’의 대북 지원사업을 위임받아 한국 카리타스가 보내는 것으로 9월 5일 인천항을 통해 북한에 전달될 예정임.
- 의료분야는 평양시 제1인민병원에 보낼 엑스레이 장비, 내시경 수술기구, 심전도 측정기 등 진단장비와 의료 소모품이며 농업분야에서는 한국 카리타스의 지원으로 2005년 9월 완공한 평양농업과학원 무균씨감자 조직배양실에 사용될 배양용기, 시약, 비상발전기용 디젤유 등 운영 물품이 지원됨.
- 국제 카리타스는 그 동안 홍콩 카리타스를 통해 대북 지원사업을 펼쳤으나 2006년 11월부터 한국 카리타스에 위임함.

자료:<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7/09/03/0504000000AKR20070903074500005.HT>
ML

□ 호주 정부, 북한의 수해 희생자 긴급구호 지원

- 호주의 알렉산더 다운너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수해 긴급지원을 위하여 200만 달러 이상(미화 167만 달러)을 추가로 기부하기로 발표함.
- 호주는 8월말 이미 200만 달러의 식량지원을 발표한 바 있음.

- 이번에 지원할 200만 달러는 UNICEF 750,000달러, 국제적십자연맹 750,000달러, 유엔보건기구(WHO) 500,000달러 등으로 구성됨.

자료: <http://www.relief.int> (Xinhua News Agency, Australia boosts emergency relief for DPRK's flood victims, 13 Sep 2007).

□ 멕시코, 북한 수해 피해 추가 지원 계획

- 북한 수해지역을 일주일 간 방문하고 돌아온 4명의 멕시코 구호담당자들은 아직도 긴급지원이 절실하며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장기에 걸쳐 많은 외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힘.
- 멕시코 구호담당자들에 의하면 아직도 정확한 피해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현재로서는 의약품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파악함.
- 멕시코는 북한의 수해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미국국제개발처(USAID)로부터 5만 달러를 지원받아 항생제를 구입한 것 외 캐나다의 민간단체로부터 1,250만 달러 상당의 지원을 받았으며, 국제 택배회사인 DHL은 수송비를 지원하였고 나이키는 255,000달러 상당의 의류 등을 지원하였다고 밝힘.
- 멕시코는 북한 주민의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 중에 있음.

자료: <http://www.relief.int> (Mercy Corps, Mercy Corps aid workers return from North Korea with flood damage details and plea for more help, 18 Sep 2007).

□ GAA, 신뢰구축이 무엇보다 중요

- 독일의 민간지원단체인 GAA(German Agro Action)은 지난 10년간 북한에 40여 차례의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북한 주민 100만 명에게 5,000만 유로의 혜택을 제공함.
- GAA는 2007년 북한에 고품질 종자 생산, 경사지 조림, 식수 공급 등 5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GAA는 대북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 예를 들면 사업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며칠 전에 신청을 해야 하며 사업 추진을 위해 북한 사람을 고용할 때도 자유롭지 못함. 또한 임금, 집세, 전화비 등도 고가일뿐만 아니라 일일이 북한 당국과 협의를 해야 하며 업무 시간 이외에는 북한 주민과의 접촉도 금지되어 있음.
- 북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인내하면서 상호 신뢰를 쌓아야만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음.
- GAA는 10년 가까이 북한에 지원을 제공하면서 동서양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긍지를 느끼고 있으며 상호 신뢰 구축은 종자의 분배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음.

자료: <http://www.relief.int> (Welthungerhilfe-German Agro Action, Ten-year involvement in North Korea: confidence-building as important as seed distribution, 21 Sep 2007).

□ 북한, 내년에 기아 상황 맞이할 수도

- 북한은 1990년대 중반에 경험한 것과 유사한 새로운 기아 상황을 맞을지도 모른다고 한 북한 전문가가 경고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권태진 선임연구위원은 금년 가을 식량 생산량이 1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에는 심각한 부족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함.
 - 북한 주민 2,300만 명이 굶주리지 않기 위해서는 연간 적어도 530만 톤의 식량이 필요하지만 내년의 자체 공급량은 390만 톤에 불과하여 140만 톤 가량 부족할 것으로 추정됨.
 - 한국이 대북 식량차관을 금년 40만 톤에서 50만 톤으로 늘리고 북한이 20-30만 톤의 식량을 상업적으로 수입한다고 해도 부족량은 여전히 60~70만 톤에 이르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식량부족 상황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폴 리슬리 세계식량계획 아시아지역 대변인은 중국 등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기는 하지만 필요한 식량을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전망함.
 - 세계식량계획도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기는 하지만 부족한 양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수해 이후 북한 당국이 식량지원을 늘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임.

- 북한은 연간 필요한 식량의 20%인 100만 톤가량을 국제사회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데 수확철이 도래하기도 전에 이미 외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자료: <http://www.relief.int> (AFP. NKorea may face famine next year. Oct 18, 2007).

농업자료

● 북한의 기상

북한의 기상

□ 기 온

- 7~8월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였으나 9월은 평년에 비해 낮음.
 - 27개 관측지점의 7월 평균 기온은 21.6℃로 평년 기온 21.9℃에 비해 약간 낮았으나 8월과 9월의 평균 기온은 각각 23.1℃와 18.6℃로 평년의 22.4℃와 17.0℃에 비해 높았음.
 - 영농철이 시작된 5월 이후 기온은 평년보다 대체로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지역적으로도 저온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발견되지 않음.
- 금년 농사철 동안 기온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분포를 보였기 때문에 농작물 수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강수량

- 7~9월의 강수량은 평년에 비해 월등히 높았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는 집중 호우로 인해 수해피해가 발생함.
 - 특히 8월 7일부터 14일까지 평양시, 평안남도, 황해남북도, 강원도, 함경남도 지역에 발생한 집중 호우로 인하여 22만 ha에 달하는 농경지가 침수, 유실, 매몰되는 피해가 발생함으로써 농작물 수확량을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됨.
 - 9월 중순 경에도 태풍 위파의 영향으로 서해안 일부 지방에 집중 호우가 발생하여 13만 ha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농작물이 도복되는 피해가 발생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됨.
- 9월의 잦은 강수는 농작물 수확작업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로 인한 농작물의 품질 저하도 우려됨.
 - 9월은 옥수수의 수확이 시작되며 벼의 등숙이 한창 진행되는 철이므로 잦은 강우는 농작물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됨.
 - 벼의 등숙이 나쁜 경우 미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쭉정이 비율이 높아짐으로써 벼의 수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 누적강수량, 7~9월

(단위 : mm)

선봉	삼지연	청진	중강	혜산	강계	풍산
514.5 (375.5)	606.4 (429.6)	492.5 (304.9)	494.0 (365.3)	598.6 (304.6)	329.2 (432.5)	541.0 (358.1)
김책	수봉	장진	신의주	구성	희천	함흥
466.8 (327.9)	603.5 (536.6)	722.1 (393.9)	695.2 (538.6)	913.1 (699.5)	543.9 (690.9)	871.0 (466.0)
신포	안주	양덕	원산	평양	남포	고성
590.2 (414.2)	668.8 (610.7)	1085.0 (568.4)	1010.0 (747.4)	1668.8 (503.0)	704.7 (497.3)	799.0 (784.3)
사리원	신계	용연	해주	개성	평강	
1002.6 (536.6)	1245.0 (658.5)	1035.3 (530.1)	960.9 (600.7)	938.8 (687.4)	817.0 (753.4)	

* ()는 평년 누적강수량을 나타냄.

□ 북한 주요지역의 월평균기온 및 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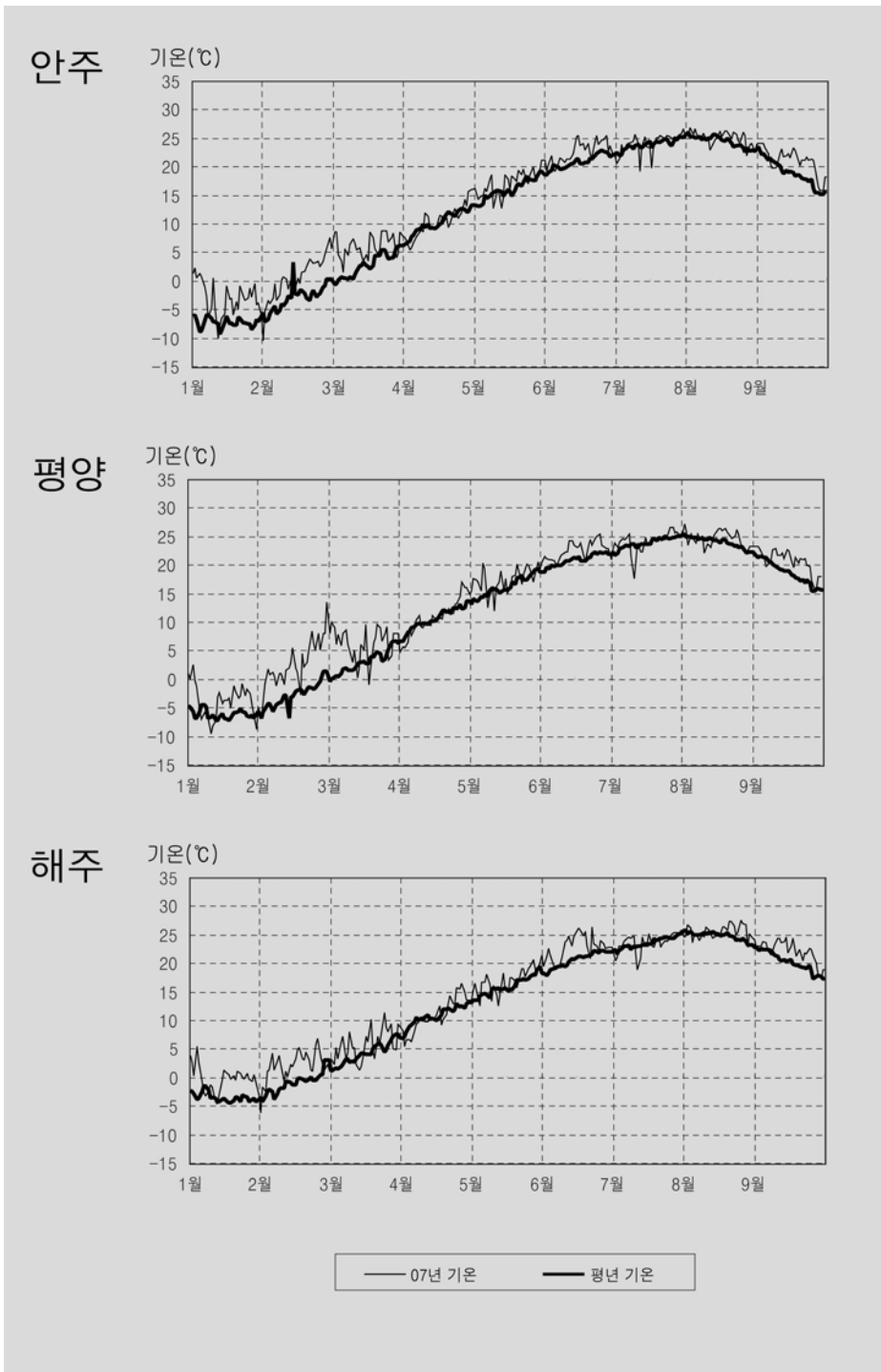
(단위 : °C(기온), mm(강수량))

구 분		안주	평양	해주	청진	함흥	원산
7월	기 온	23.6 (23.5)	23.9 (24.0)	23.2 (23.4)	19.4 (19.9)	21.6 (22.1)	21.9 (22.5)
	강수량	73.5 (296.9)	558.5 (243.5)	202.5 (263.5)	75.0 (111.3)	62.2 (193.1)	325.5 (261.0)
8월	기 온	24.4 (23.9)	24.8 (24.1)	25.3 (24.5)	22.6 (21.7)	23.8 (22.8)	24.7 (23.2)
	강수량	371.9 (214.6)	692.4 (176.4)	512.5 (214.0)	194.4 (128.8)	564.3 (177.7)	300.8 (286.8)
9월	기 온	20.5 (18.4)	20.9 (18.8)	22.0 (20.0)	18.7 (17.5)	19.3 (18.1)	20.2 (18.8)
	강수량	223.4 (99.2)	417.9 (83.1)	245.9 (123.2)	223.1 (64.8)	244.5 (95.2)	383.7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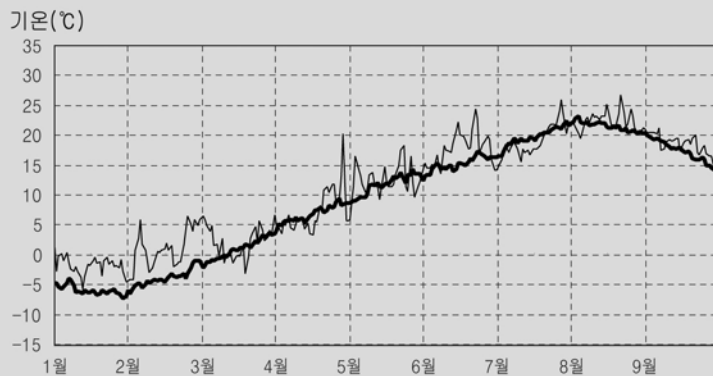
* ()는 평년 평균기온 및 강수량을 나타냄.

27개 기상관측지역의 평년 기후값 가운데 선봉, 청진, 중강, 혜산, 강계, 신의주, 함흥, 원산, 평양, 사리원, 해주, 개성 등 13개 지역의 통계기간은 1973~1994년이며, 삼지연, 풍산, 수봉, 장진, 구성, 희천, 신포, 안주, 양덕, 남포, 고성, 신계, 용연, 평강 등 14개 지역의 통계기간은 1981~1994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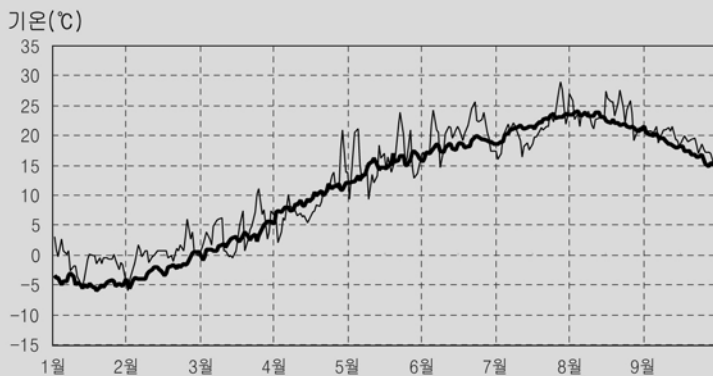
□ 월 평균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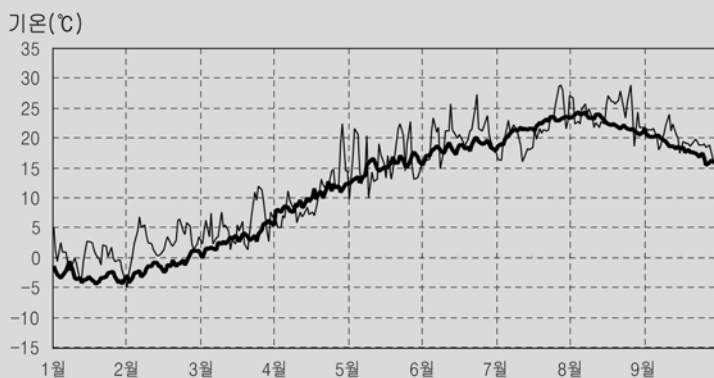
청진



함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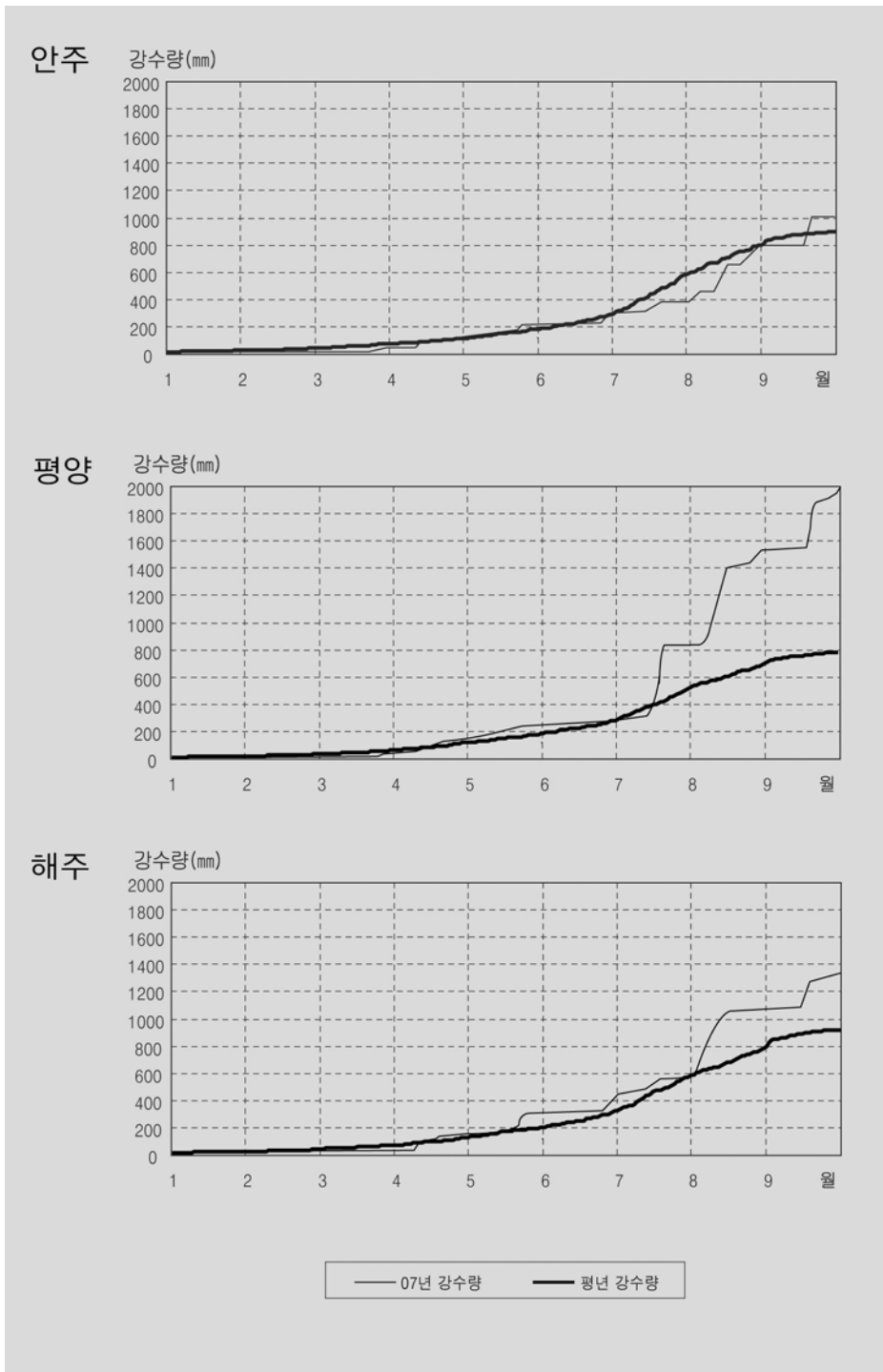


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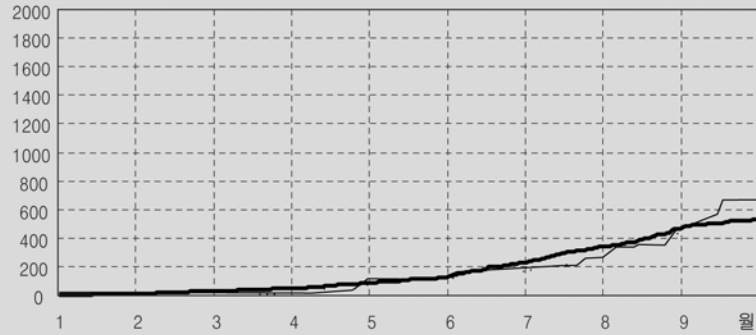
— 07년 기온 — 평년 기온

□ 누적 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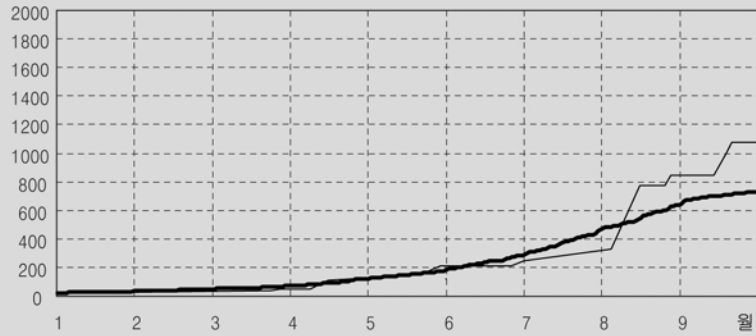
청진

강수량(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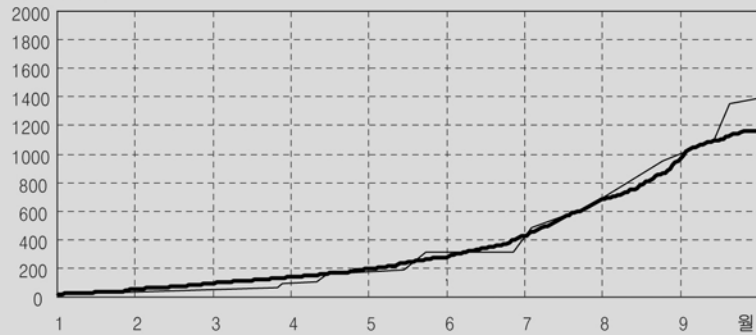
함흥

강수량(mm)



원산

강수량(mm)



— 07년 강수량 — 평년 강수량

M46-9-3 KREI 북한농업동향 제9권 제3호

찍 은 날 2007. 10. 펴낸날 2007. 10.
발 행 인 최 정 섭
펴 낸 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el. 3299-4000)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홈페이지 <http://www.krei.re.kr>
등 록 제5-10호(1979. 5. 25)
찍 은 곳 경희정보인쇄(주) (代) 2263-7534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